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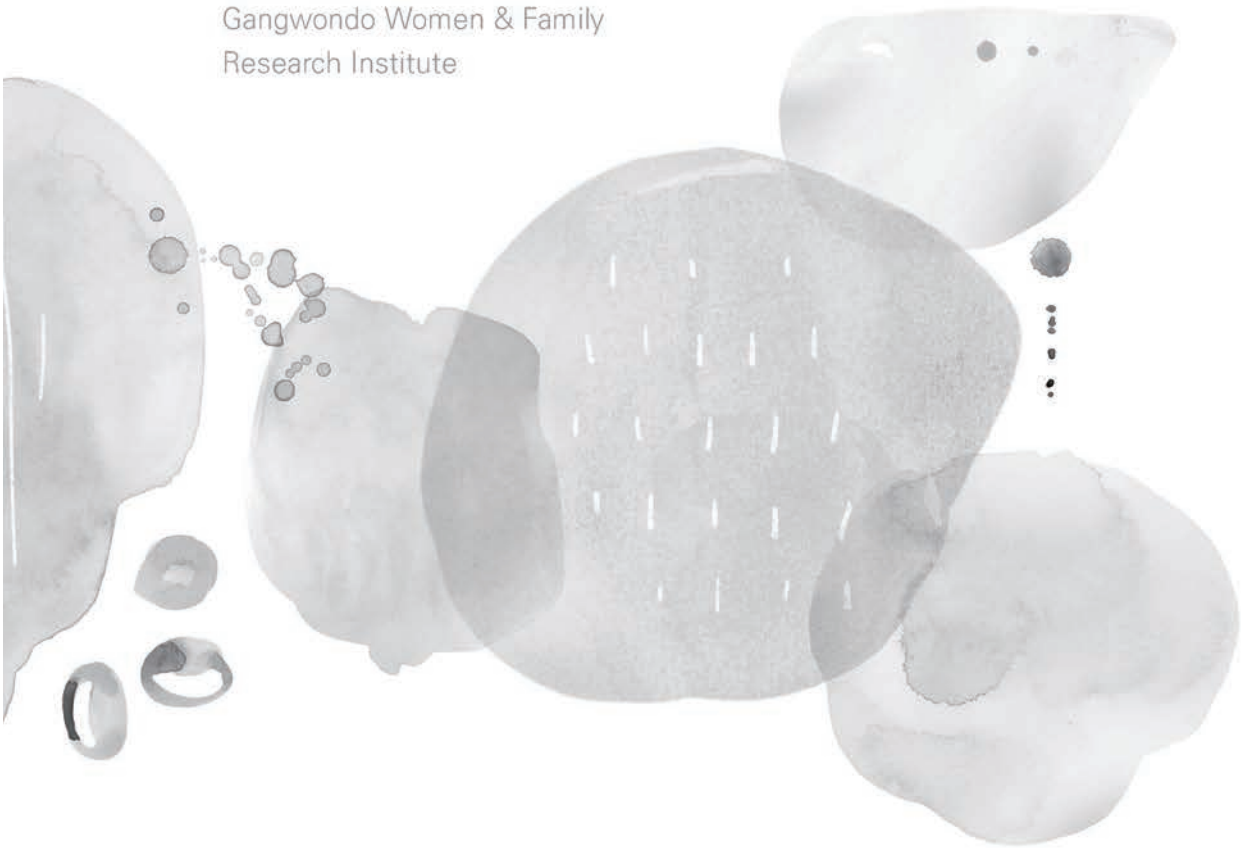
연구보고서 : 2018-02

72-6420607-000086-01

강원도 평화지역 여성친화마을 조성방안

박혜경

Gangwondo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발 간 사

전쟁과 대립의 시대를 넘어 평화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의 분단도인 강원도에게는 특히 더 큰 변화를 예고합니다. 강원도는 이제 분단의 상징이라는 굴레를 벗고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날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평화의 기치를 드높였던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이미 그 시작을 세계에 알린 바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국경선에서가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화지역의 주민들이 두려움 없이 그 지역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어야 합니다. 강원도는 물론 전국 평균보다 조출생률이 높은 강원도 평화지역에 아이를 낳고 기르기 위한 인프라는 부족합니다. 여성을 위한 질 좋은 일자리도 육아정보도 마땅히 구할 곳이 없어서 젊은 여성들이 타지로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는 그저 변방의 문제로 치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강원도는 과거의 접경지역이 주민의 일상이 평화롭게 일구어지는 평화지역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은 바로 이러한 필요에 가장 적절한 사업입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지역에 여성친화마을 조성여건을 분석하고 모델안을 개발한 것입니다. 그 필요와 방향에 관해 지역 상황을 토대로 한 제안을 담고 있어서 사업추진에 기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연구를 위해 면접조사에 참여해 주신 평화지역 공무원, 여성단체 지도자, 주민, 정책 컨설턴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 9월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장 박기남

요약

1.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강원도 내 평화지역(구 접경지역)에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할 필요와 가능성, 개략적인 방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임.
-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은 지역의 성주류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주민의 안전 등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에 매우 효과적인 사업임. 분단체제를 넘어서 평화체제로의 전환기에 평화지역 주민 삶의 여건개선은 강원도뿐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중요한 관심사임.
- 이러한 중대한 정책변화에 여성친화 관점을 개입시키는 것은 지역정책의 질을 한층 더 높이고 주민들의 다양한 정책수요를 충족시키는 데에 효과적임.
- 강원도 평화지역은 강원도는 물론 전국 평균보다 출생률이 높은 지역이나 출산 및 보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임. 이러한 환경에서 여성인구가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등 여성 정주에 어려움이 있음. 이러한 상황은 여성친화의 관점으로 평화지역의 사회환경을 개선할 필요를 제기하고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도내 평화지역이 농어산촌이라는 지리적·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 라는 용어 대신 ‘마을’ 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이러한 맥락에서 이 보고서에서 ‘여성친화마을’ 은 ‘여성친화도시’ 와 같은 개념임.
- 본 보고서에서 강원도 평화지역은 철원, 화천, 인제, 양구, 고성 5개 군을 의미함. 시간적으로는 2018년 6월 말 시점의 논의임.

□ 연구의 방법 및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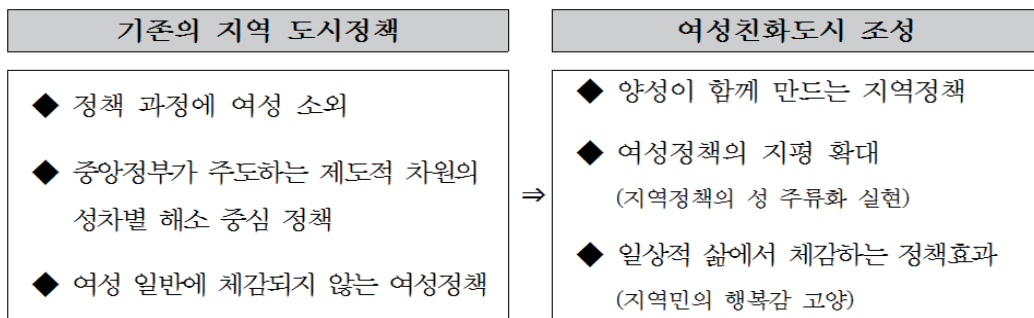
- 본 연구는 대규모 주민 정책요구 조사를 기반으로 한 중장기 기본계획이 아니라 가능성과 필요, 방향에 관한 기초적인 탐색을 시도한 연구임.
- 이에 5개 군 지역에 관한 사회통계 및 행정통계, 공무원 및 지역 여성단체지

도자 등 5개 군 총 20명을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 면접조사(FGI)를 통해 현황 및 정책 요구를 파악하였음.

2.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개요와 평화지역 정책환경 변화

□ 목적과 범위

-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운영지침(2018)에는 여성친화도시 개념을 “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 이라고 정의하고 기존 도시정책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여성가족부, 2018a).



-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첫째, 지역의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하는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둘째, 모든 부서 사업에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여 개선하여, 셋째, 궁극적으로 지역정책 전반이 성평등하게 전환되도록 추진” 하는 사업임(여성가족부, 2018a)
- 한국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2009년부터 익산시와 여수시를 시작으로 여성가족부가 인증하고 주로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진행되어 왔음.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5년을 단위로 지정되고, 여성가족부는 심사를 거쳐 매해 말 여성친화도시 신규 및 재지정 지역을 선정하여 발표함.
-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비전과 가치, 목표, 추진과제는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함. 여성친화도시 비전에서 보듯이, 여성친화도시의 목적은 성평등 및 지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리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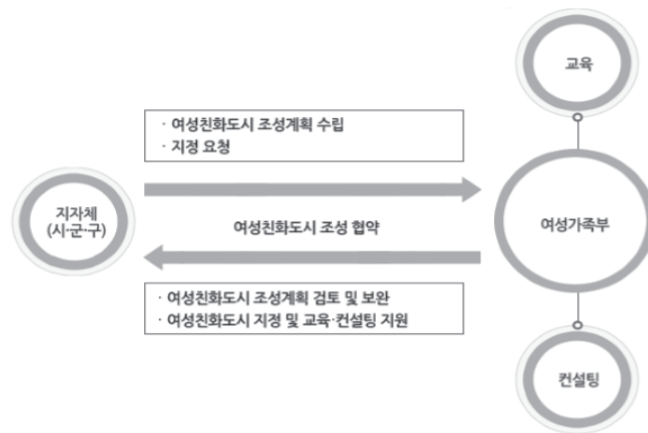
- 이 사업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다양한 시민참여를 통한 환경과 정책개선임. 이에 이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시민과 실무부서의 소통이 매우 중요함.

<표1>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5대 목표

5대 목표	내 용
① 성 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부서에서 성 평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 성평등정책 추진 부서 설치 - 성평등정책부서를 중심으로 한 부서 간 협력 - 지역 여성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구축 -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활성화와 성인지 통계 구축 -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
②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취·창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산업과 연계된 직업훈련 및 취·창업 지원 - 근거리 일자리 발굴과 여성의 사회적 경제 활동 촉진 • 여성 고용 안정을 위한 지역사회 책무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 여성 고용 창출 및 고용 안정 목표 공시 및 지속 모니터링
③ 지역사회 안전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및 사회적 약자의 통행 특성 반영한 이동 여건 조성 -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단지에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 •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위험에 대한 여성의 대처능력 향상 - 여성의 지역 안전 유지 역량 강화
④ 가족친화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 고용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경력 유지와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 여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 가족친화기업 확대 • 돌봄에 대한 지역사회 책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 서비스 내실화와 돌봄 인프라 접근성 향상 - 마을 단위 돌봄 확대
⑤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사회 여성 활동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분야의 마을 여성 모임 활성화와 커뮤니티 활동 공간 확대 - 지역 사회 여성 활동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 모든 분야의 여성 대표성 증진을 위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 및 자원활동 등 지역사회 여성 활동의 사회적 가치 인정 - 지역사회 내 공식적인 의사결정 기구 참여 확대

□ 법적 근거와 추진체계

-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법적 근거는 양성평등기본법 제 39조로서, 여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강원도에는 강원도양성평등기본조례 제19조에 ‘여성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에 관한 규정이 있을 뿐으로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 도시조성사업에 비해 그 범위가 협소함.
-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이 여성가족부에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지자체에서는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지정을 요청함. 여성가족부는 이 계획을 검토하고 보완을 요구함. 또한 이를 기초로 지정이 결정되면 조성협약을 추진함. 교육과 컨설팅은 매단계에서 지원됨.



[그림1]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www.mogef.go.kr)

- 최근 여성가족부가 여성친화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새로운 정책환경이 만들어졌음. 또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확대되고 있음.
- 2017년 말 현재 전국의 여성친화도시는 86개 자치지역이며, 강원도에서는 6개 기초 시·군으로서 강릉, 동해, 영월, 원주, 횡성, 정선 등임.

□ 여성친화마을 조성여건 분석 체크리스트

-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조성매뉴얼에 제시된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기존 통계 등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을 추려 강원도 평화지역 여성친화마을 조성여건분석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음.

<표2> 평화지역 여성친화마을 조성여건 분석 체크리스트

구분	체크리스트	세부 내용	자료
전반적 추진 여건	단체장 및 의회의 관심과 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정에서 여성친화와 관련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되어 왔는가 • 군의회에서 여성친화 관련 의제에 관심이 있는가? 	FGI
	지방자치단체와 여성단체의 관계와 인적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역량 	FGI
	최근 지역 현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주민의 주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현안은 무엇인가 	FGI
행정 체계의 성 주류화	주무부서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무부서는 어떠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가 • 실무자는 몇 명인가 • 여성친화도시 업무를 전담할 인력이 있는가 	행정 통계
	성별영향평가의 활성화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한 조례 및 위원회 등 추진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행정 자료
지역의 일반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규모, 연령대별 인구구조, 출산율, 혼인율, 피부양인구비율, 노인 1인가구 비율, 결혼이주여성 수 	사회 통계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지역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 수로 본 주요 산업, • 문화시설, 공원 등 여가시설 •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공부방,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사회 통계, FGI
여성의 지위	여성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취업(경제활동 참가율, 취업분야 특성) • 정치 및 행정기구 내 여성 비율 • 성폭력, 가정폭력 등 발생률 	사회 통계
	여성 및 돌봄 관련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회관, 여성발전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여성교육기관 현황 • 보육시설 현황(수, 운영주체, 보육률, 공보육율 등) 	행정 통계
여성의 요구 파악	여성단체 또는 주민의 욕구 및 만족도 관련 조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단체 또는 주민의 정책 요구 (FGI 조사 결과) 	FGI

□ 강원도 평화지역 정책환경변화

- 강원도 평화지역에 여성친화마을을 조성하는 것은 현재 중앙정부 및 강원도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평화지역 조성정책에 잘 부합할 뿐 아니라 상승작용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 강원도는 평화 이슈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평화지역발전 추진 TF 팀과 남북교류협력 TF 팀을 조직하여 운영하는 등 남북한 관계변화를 강원도 발전의 중요한 계기로 활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
- 강원도의 신경제지도에는 새로운 광역 교통망과 DMZ 환경 벨트 조성, 금강산 관광 재개 및 지역특성 테마공원 및 특성화마을 조성 등, 특히 평화지역에 큰 변화를 가져올 중장기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음.
-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게 될 여성친화마을 조성은 평화 상징지역으로서 강원도 구점경지역의 위상 변화에 기여할 것임.

3. 강원도 평화지역의 일반적 특성

□ 일반 지리적 특성

-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평화지역은 구 점경지역으로서 점경지역은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과 민간인 통제선 이남의 지역 중 민간인 통제선과의 거리와 지리적 여건을 기준으로 정하는 시·군,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임.
- 점경지역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1등급 지역은 개발이 제한됨. 점경지역의 약 22.0%가 1등급 지역에 해당되며, 강원도에서는 인제군에 1등급 지역의 약 52.3%가 분포되어 있음.
- 평화지역은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지역으로 군사시설 보호 및 수도권 정비 등의 목적으로 개발에 제한을 받아 왔으며, 북방이 가로막힌 지역으로서 광역교통망과 생활 인프라 부족으로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겪어 온 곳임.
- 강원도의 평화지역 5개군,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은 강원도 18개 시·군 면적의 28.5%를 차지하고 전국 점경지역의 64%에 이르는 지역으로서 면적은 넓지만, 타시도 점경지역에 비해 인구밀도가 특히 낮아 점경지역 발전정책에서 주변화되어 왔음(김범수, 2013).
- 평화지역은 대부분이 임야로 67%(철원)~89.5%(인제)이고, 대지비율은 0.4%(인제)~1%(철원), 전답이 4.5%(인제)~24%(철원)에 이룸. 평화지역 면적의 절반 가량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철원군은 전체의 95%, 화천군은 64%, 고성군

은 62%가 해당됨.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민간인 출입이 제한되어 농사나 방문 등을 위한 출입을 위해서는 출입증이 있어야 함. 최근 제한은 다소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민통선 안에 가옥은 여전히 드물.

- 평화지역의 개발제한과 민간인 출입통제로 인해 이 지역은 자연생태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 되었음. 산림청 지정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면적의 41.2%가 강원도 5개 군에 소재함(박종필, 2015; 3).

□ 인구사회학적 특성

- 평화지역의 인구는 전체 강원도 인구의 대략 10.42%를 차지함. 남성은 87,706명, 여성은 75,556 명으로 여성인구 비율은 46.2%임.
- 평화지역 2015년 인구규모는 2000년에 비해 감소하였음. 하지만 2010년과 2015년 사이에는 약간 증가를 보였음. 이를 인구규모의 회복세로 볼 수 있을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좀더 장기적인 관찰이 필요함.
- 인구밀도를 보면 평화지역 전체의 인구밀도는 36.9%로, 강원도 전체 인구밀도 92.8%의 거의 39% 정도로, 인구밀도가 낮음.
- 평화지역 평균보다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은 철원, 고성이고 화천, 양구, 인제는 평균보다 낮음. 인구의 수로 보면 철원, 고성, 인제, 화천, 양구 순이고, 인구밀도 순으로 보면 철원, 고성, 양구, 화천, 인제 순임.
- 2016년 평화지역의 8세 미만 아동인구는 3.9%(고성)~7.8%(인제)에 이르며,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은 18%(인제, 양구)~24%(고성)로 고령사회, 고성은 초고령사회임.
- 교육 수준을 보면 4년제 대졸이상 학력자는 18.3%(철원)~24.0%(고성)이며 여성 중에는 12%(철원)~17%(인제)임. 초졸자는 24.3%(화천)~32.3%(고성)임. 무학력자는 5.3%(철원)~6.6%(양구)임. 여성 무학력자 수는 남성 무학력자 수의 약 3~4배에 이룸. 5개 군 모두에서 여성은 초졸학력자 수와 무학력자 수에서 남성의 수를 훨씬 앞지르고 고졸 이상 학력자 수에서는 남성 수의 1/3~1/2 가량 되며, 대졸(4년제 미만과 이상)자 수에서는 남성의 절반 가량 됨.
- 전국 평균 피부양인구비율은 37.3%임(15세 미만인구비율 + 65세 이상 인구비율), 강원도는 42.1%임. 평화지역은 소년 피부양인구비율과 노인 피부양인구

비율 모두 전국 및 강원도보다 훨씬 높음(고성 소년 피부양 인구비율은 예외). 이처럼 강원도 평화지역은 전국 및 강원도보다 피부양 인구비율이 훨씬 높아 부양부담이 훨씬 높음.

- 2016년 기준, 평화지역의 조출생률은 8.0으로 전국(7.0) 및 강원도(6.58)보다 높음. 조사망률도 전국보다는 매우 높고 강원도보다도 약간 높은 상황임. 조출생률이 높음에도 조사망률이 높아서 인구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음.
- 조혼인율을 보면 2017년 전국이 5.2, 강원도가 4.7인데 평화지역은 고성(4.6)을 제외하면 5.8(철원) ~ 7.5(화천)으로 전국 및 강원도에 비해 매우 높음.
- 평화지역의 노인인구 중 1인가구 비율을 보면 평화지역 중 화천과 인제는 노인 중 홀로 사는 노인인구 비율이 20~25%에 이르고, 철원, 양구, 고성은 상대적으로 독거노인 비율이 낮아 15% 이내에 속하는 지역으로 나타남(김승희, 2014: 169). 평화지역의 결혼이주여성은 2016년 현재 893명으로 강원도 결혼이주여성의 13.9%가 거주하고 있음.

□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평화지역의 특성

- 전국의 산업을 종사자수로 보면 2015년 고용노동부 통계를 기준으로,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순임. 남성 종사자의 경우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건설업 순이고, 여성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도소매업, 제조업 순임.
- 강원도의 남성 종사자가 가장 많은 산업은 건설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순으로 전국에 비해 건설업의 비중이 큼. 강원도 여성의 경우에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도소매업의 순으로, 전국에 비해 숙박 및 음식점업의 비중이 크고 제조업의 비중이 여성에게서 특히 작은 것으로 나타남.
- 평화지역의 철원군과 고성군은 종사자 수에서 평화지역 내 다른 군에 비해 제조업 비중이 크고 강원도 전체와 비교해도 그 비율이 약간 높음. 여성 종사자 수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그 외에 화천, 양구, 인제는 여성의 경우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분야에 몰려 있음.
- 평화지역 중 총생산액이 가장 높은 곳은 철원으로 강원도 18개 시군 중 7위. 양구 17위, 고성 16위, 화천이 13위, 인제 10위로 철원을 제외하면 모두 10위권 밖이며 특히 양구와 고성 순위가 매우 낮음.

- 재정자립도를 볼 때 강원도는 2015년에는 전국 평균의 약 절반 정도였으나 2017년으로 올수록 다소 개선되었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자료를 보면, 평화지역의 재정자립도는 강원도의 약 절반 정도 되는데, 양구가 가장 높고 인제가 가장 낮음.
- 재정자주도를 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광역 시도 평균 재정자주도는 조금씩 높아지고 있으며 강원도 역시 개선되어 왔음. 평화지역은 인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높아졌으나 여전히 전국 평균은 물론 강원도 18개 시·군 평균보다 낮음.

4. 강원도 평화지역의 성 주류화 및 여성의 지위와 요구

□ 여성의 지위

- 여성 고용률을 보면 2017 2분기 기준, 전국은 51.6%, 강원도는 55.6%, 평화지역은 50.2%(철원군)~60.4%(고성)로, 철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으며 철원과 양구 외에는 모두 강원도보다도 높음.
- 2017년 말 기준 평화지역 5개 군 의회의 총의원 수는 총 33명이고, 여성의원 수는 6명으로 전체 여성의원 비율은 18.1%임. 고성군은 여성의원 없이, 그 밖의 다른 지역들은 1명 이상 있음. 특히 인제와 양구는 여성의원 전체 7명 중 각 2명씩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편임(양구는 2018년 5월 통계).
-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보면 2017년 말 기준 강원도 18개 시·군 위원회의 총위원수 중 여성위원 비율이 22.7.0%인데 비해, 평화지역은 철원군을 제외하고는 모두 평균보다 낮고 그 중 양구는 13.6%로 특히 여성비율이 낮음.
- 공무원의 여성비율을 살펴보면, 평화지역 전체 공무원의 약 37%가 여성 공무원임. 그 중 6급 이상(기초지자체 담당급) 공무원 중 여성비율은 평균 약 32%로, 고성군이 가장 높고, 철원은 가장 낮음. 평화지역 5급 이상 공무원 113명 중 여성은 단 8명임(2017년 12월 기준).
- 성폭력 및 가정폭력 현황을 보면, 2016년 기준 강원도 강간사건(강제추행 등 포함)은 603건이고 그 중 평화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 45건으로 강원도 전체에서 7.5%를 차지함. 그 중 발생수로는 철원이 16건, 고성이 15건으로 많으나 인구에 비하면 평화지역 중 고성이 강간사건 발생률이 높은 지역임.

- 12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발생은 평화지역이 강원도 전체의 1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강원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
- 2016년 통계로 강원도 전체에서 평화지역의 성폭행 및 가정폭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하지만, 평화지역 내에서 고성은 성폭행과 가정폭력 발생건수가 인구가 가장 많은 철원만큼 많음.
- 평화지역에는 성폭력 관련시설이 없으며 가정폭력상담소도 철원에만 한 곳 있음.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평화지역에는 없음.
- 2015년 통계로, 강원도 평화지역의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수를 살펴보면, 평화지역에는 강원도 보육아동의 10.3%가 살고 있으며 강원도 보육시설의 7.8%가 분포해 있음.
- 강원도 국공립 보육시설의 23% 가량이 평화지역에 있고 직장보육시설은 25.8%가 있어 공보육시설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철원과 양구의 경우 국공립 시설 수가 각각 2개, 1개로 적고, 철원군은 민간시설이 대부분임. 고성은 국공립 보육시설이 6개로 평화지역 중 가장 많음.
- 0~4세 유아 1,000명당 보육시설 수는 전국이 19.35개, 강원도가 그보다 높은 21.82개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평화지역은 15.61개(인제)~16.11개(화천)로 보육시설 수가 아동수에 비해 적은 상황임.
- 2016년 통계로 볼 때 도 평화지역의 보육 및 유치원 시설은 모두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철원의 정원 충족률이 낮음. 유아인구 수 대비 보육시설 및 유치원 정원 수를 주민등록상 유아 수에 비교한 것을 유치원 공급률로 보면, 철원과 고성은 공급률이 100%를 상회함. 화천, 양구, 인제는 공급이 아직 부족한 상황인데도 정원 충족률은 낮음. 이는 가족이 돌봄을 직접 담당하는 등 시설이용 외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함.
- 강원도에는 총 169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나 평화지역에는 12곳뿐으로 그 수가 상대적으로 적음. 평화지역 내에는 현재 산후조리원이 없으며, 철원과 양구에 산후조리원 설립 추진 중임.
- 보건소 1개당 담당 인구수로 보면 평화지역은 담당 인구수가 가장 적은 지역에 해당됨. 강원도 보건소 당 담당 인구수가 평균 12,000여 명인 데 비해, 평화지역은 2,000~4,000명 가량임. 그 중 고성이 가장 담당 인구수가 적고 철원

군은 약 4,000여 명으로 가장 많음. 하지만 면적으로 보면 평화지역은 보건소 1개소당 담당하는 면적이 고성을 제외하고는 강원도 다른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어 서비스 전달에 제약이 있음.

- 여성단체 현황을 보면 강원도에는 총 287개의 단체가 있고, 평화지역에는 64개가 있어 약 22.3%를 차지함. 화천군에 상대적으로 등록단체 수가 적음. 거버넌스에 등록된 여성단체를 넘어 다양한 여성단체와 모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행정체계의 성 주류화

- 평화지역에 여성친화마을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체계는 아직 없음. 여성정책 관련부서는 모두 주민복지과 등의 여성복지 또는 여성가족 계로 있음. 인원은 2명이 배치된 인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5~11명임.
- 성 주류화의 기초인 조례 현황을 보면, 화천은 양성평등기본조례와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를 모두 가지고 있고, 철원과 양구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만, 인제는 양성평등기본조례만 가지고 있음. 인제의 경우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내용을 양성평등기본조례에 담고 있음. 평화지역 5개 군 모두 관련 조례에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최근 3년 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실적을 보면, 인제는 소폭 감소하였고, 다른 4개 군은 약간 증가하였음. 전체적으로 최근으로 올수록 원안 동의를 약간 감소하였음. 개선의견이 수용된 경우는 2015년에 비해 2017년에 그 수가 증가하였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의 공무원 참여율을 보면, 강원도 시·군 합계가 28.6%인데 비해 평화지역은 철원과 고성은 훨씬 높으나 화천과 인제는 약간 낮음. 하지만 양구는 5.3%로 매우 낮음.

□ 여성의 요구 파악

- 이는 초점집단 면접조사를 통해 살펴봄. 이 조사는 2018년 4월 25일에서 5월 2일까지 실시하였고, 철원 5명, 화천 3명, 양구 4명, 인제 3명, 고성 5명으로 총 20명이 참여하였음. 대개 주무계의 담당과 여성단체 대표가 가장 적극적인 참여자였음. 참가자는 모두 여성이고 공무원 중 1인만 남성임.

- 조사 시점 현재 평화지역에는 출산을 위한 병원이 없음. 철원은 의정부로, 화천과 양구는 춘천으로, 인제와 고성은 속초로 이동하여 병원을 이용함. 또한 소아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었음. 소아과가 있는 경우에도 전문병원이거나 전문의를 갖춘 병원이 아니라 내과에서 소아진료도 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상황은 여성의 정주여건을 나쁘게 한다고 조사참여자들은 비판했음.
- 평화지역에는 관내 대중교통이 부족하여, 노인, 학생, 이주여성 등 자기 차를 소유하지 못하거나 운전이 어려운 계층은 이동에 문제가 있고 밤길에도 먼 길을 걸어야 하는 등 안전에도 문제가 있음.
- 여성을 위한 일자리는 늘어났으나 질 좋은 일자리는 부족하고, 특히 철원 같은 농촌의 경우 청년여성을 위한 일자리가 부족함. 또한 단기 일자리의 경우에도 군인가족이나 결혼이주 여성 등 외지에서 들어와 지역 내 네트워크가 약한 층에서는 일자리를 얻기가 쉽지 않음.
- 평화지역에는 공공 키즈카페가 없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에 맡기기보다 공공 키즈카페를 만들어 어린 자녀를 기르는 여성 등이 육아정보 교환과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장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평화지역에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 관련 상담 및 보호시설이 거의 없으므로(철원에 가정폭력 상담소 있음) 이의 설치가 필요하고, 더불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의식교육도 필요함. 군부대로 인해 지역문화가 다소 남성중심적이고, 노인 인구가 많아 성과 가족에 관해 전통적인 사고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임.
- 평화지역에는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없으나 철원과 양구 등 몇 개 군은 전에 시도한 적이 있으므로 여건이 되면 다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해 보임. 평화지역은 최근 문화 및 가족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돌봄과 건강, 교육을 위한 시설 투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러한 노력은 곧 여성친화적인 환경조성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음.

□ 전반적 추진 여건

- 여성친화마을 조성을 위해서는 여성단체의 참여와 역량이 중요함. 지역에 따라 민·관 협력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잘 되는 지역도 여성들이 일자리가 많

이 생겨 자원봉사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음. 성평등 제고 노력이 지역의 자원봉사와는 거리가 있으므로 여성단체들이 성평등 이슈에 집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도 필요함. 또한 여성단체의 세대교체도 필요한 상황임.

- 군의회는 대체로 양성평등 정책 이슈에 협조적인 것으로 파악됨. 특히 여성의원들은 더욱 협조적인 것으로 나타남.
- 가로등 설치를 둘러싼 주민 간 갈등, 광역교통망 개선에 대한 기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인구 유출이 지역 현안이라고 할 수 있음. 평화지역의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은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대응이 될 것임.

5. 평화지역 SWOT 분석 및 여성친화마을 조성 모델(안)

□ 평화지역 특성 종합 및 SWOT 분석

- 강점과 전략 : 조출생률 및 조혼인율 인구재생산 관련 지표가 청신호를 보여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으로 관련 인프라 확충이 필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도 높음. 생태 환경 활용을 통한 여성 일자리 창출 및 돌봄친화적 환경조성에 유리.
- 약점과 전략 : 출산 등 돌봄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약점에 대응해서는 키즈 카페 및 공동육아나눔터, 출산병원 및 산후조리원 등의 시설로 해결해야 함. 병원은 철원과 양구에 개원 예정임. 키즈카페 기능과 결합한 공동육아 나눔터를 읍면 단위에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여성 일자리 질이 낮고 젊은 여성 일자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6차 산업분야 일자리 개발 및 알선을 위한 여성취창업지원센터를 조성하고 군가족여성 및 결혼이주여성의 참여를 장려함. 여성단체의 젠더이슈 집중과 역량강화를 위해 평화지역 특성에 맞도록 생태와 평화 결합한 젠더 관점을 배양함. 이는 군사대치 지역이라는 이미지 탈피에도 도움이 됨.
- 기회와 전략 : 남북한 간 평화 무드로 인해 강원도는 평화상징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음. 평창동계올림픽의 유산인 성평등과 평화를 평화지역의 발전의 열쇠말로 활용함. 평화 무드에 따른 중앙정부와 강원도의 정책들은 평화지역에 일자리 및 산업발전을 자극할 것이고 관광객 등의 유입이 기대됨. 이에 따른 여성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질개선 노력이 바람직함.

- 위협과 전략 : 평화무드로 인한 광역교통망 발전은 인구유입과 유출을 모두 증가시킬 수 있음. 특히 여성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서 여성 일자리 및 안전, 돌봄 인프라 확충이 필요함. 인구유입으로 인한 성범죄, 성매매, 주민과 유동 인구 간 갈등도 발생할 수 있음.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은 주민참여와 협력에 기반을 두고 있어 주민갈등 해결의 창구가 될 수 있음. 성범죄와 성매매에 대응한 성평등과 여성인권 위한 서비스 및 주민의식 제고 프로그램을 확충함.

□ 평화지역 여성친화마을 조성모델(안)

- 평화지역 여성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는 아래의 표와 같음.

<표3> 여성친화도시 5대 조성목표에 따른 평화지역 정책과제

5대 목표	평화지역 정책과제
① 성 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 - 성평등정책 추진 주무부서 인력보강 - 성평등정책부서를 중심으로 한 부서 간 협력체계 강화 - 지역 여성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구축 -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
②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취·창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및 6차 산업과 연계된 직업훈련 및 취·창업 지원 - 젊은 여성, 이주여성 취업, 군가족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 여성 고용 확대 및 질적 제고 방안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젊은 여성 위한 일자리 확대 - 여성 고용 창출 및 고용 안정 목표 공시 및 지속 모니터링
③ 지역사회 안전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교통 확충 및 가로등 설치 - 범죄예방 디자인 적용 •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대상 성폭력 예방 및 성평등 교육 확대 - 여성 안전 위한 지역환경 조성 참여
④ 가족친화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 고용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경력 유지와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 여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 가족친화기업 확대 • 돌봄에 대한 지역사회 책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 서비스 내실화와 돌봄 인프라 접근성 향상 - 마을 단위 돌봄 확대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사회 여성 활동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평등, 평화, 생태를 이슈로한 여성 단체 활동 활성화 및 네트워크 확대 모든 분야의 여성 대표성 증진을 위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내 공식적인 의사결정 기구 여성참여 확대
------------------------------------	--

○ 평화지역 여성친화마을 조성 비전과 목표를 아래와 같이 제안함.

비전	모두 함께 누리는 세계적 평화·생태 마을			
가치와 목표	평화·생태·성평등	참여	돌봄·나눔	누림
	평화·생태·성평등 의 글로벌 선도	여성의 경제 및 사 회참여 양질 확대	돌봄의 네트워킹	안전과 건강
정책 과제	대과제	중과제		
	성평등·평화·생태 의식 선도	-여성단체 및 주민의 성평등·평화·생태 의식제고 및 선 도적 역량강화 -생활 속 성평등·평화·생태 문화확산		
	여성일자리 확대 및 질 제고	-젊은 여성 위한 일자리 확대 및 질 제고 -농업인 여성 지원 확대 -군가족 여성 등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여성대표성 제고 및 성평등추진체계 강화	-정치 및 공공분야 여성대표성 제고 -성평등 주무부서 인력확충 및 위상강화 -성평등 정책 관련 부서간 협력체계강화		
	돌봄친화 환경조성	-노인돌봄 및 아동 돌봄의 연계 -돌봄의 공공성 강화 -돌봄친화적 마을 문화 조성		
	젠더폭력 대응 및 여성건강증진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보호 등 젠더폭력 대응체계 -산후조리원 및 산과 의료 서비스 확대		

[그림1] 평화지역 여성친화마을 비전과 목표, 정책과제(안)

□ 추진 체계 조성

- 기초지자체 차원 :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 관련 조례제정,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 업무 담당자 배치 및 업무분장표에 명시,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 부서간 협력을 업무 평가체계에 반영, 여성친화마을 조성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및 주민욕구조사, 관련 주민 활동 예산지원 및 다양한 주민조직 발굴과 협력.

- 도 차원 :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별도 조례제정(또는 관련 조항 추가), 강원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네트워크에 평화지역 참여시키거나 평화지역만의 별도 전략회의 구성·운영, 소규모 예산지원 공모사업 실시, 시민참여단 사기 진작 위한 시민참여단 한마당 대회 개최 및 국내외 여성친화 선진지역 견학 프로그램 등 운영(담당 공무원 및 시민참여단 참가).

□ 시범사업(안) 예시

- 성평등·생태·평화문화 선도 및 관련 여성일자리 개발
 - 젠더 관점의 생태 및 평화 문화운동 활성화와 전문가 배양 : 성평등, 평화, 생태는 강원도 평화지역 여성단체 및 지도자들의 젠더 전문가로서의 역량 강화의 특징적인 방향이 될 필요가 있음. 평화지역의 문화 및 역사 해설사, 자연해설사에게 평화와 성평등 관련 의식을 제고하고, 성평등과 평화, 생태를 콘텐츠화 하도록 교육함. 젊은 귀촌여성, 결혼이주여성, 군인가족 여성을 이러한 관점의 문화해설사로 육성하고 활용함.
 - 성폭력 및 가정폭력 대응한 주민 의식화 교육 : 평화지역 5개 군 대부분에 성폭력 및 가정폭력 상담 및 피해자 보호시설이 없으므로(철원에 가정폭력 상담소 있음) 주민 대상 의식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유아용, 여성주민용, 노인용, 남성용, 여성단체 지도자용 등으로 개발하여 시행.
- 여성·평화 가치의 글로벌 선도 위한 문화사업
 - 여성과 전쟁·분단 역사박물관 건립 : 전쟁과 분단에 관한 여성의 경험과 기억을 기록하고 보관함으로써 평화의 중요성과 가치를 일깨우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 전쟁과 분단에 관한 각종 자료 및 전쟁 구술사 자료를 구축하여 보관하고 전시함. 전시뿐 아니라 국내외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한 평화교육 장소로 조성함. 박물관 조성과 운영을 위해 지역의 여성단체 등 젠더 전문조직 및 대학과 연계하여 젊은 여성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활용함.
 - ※ 참고 : 국립여성사박물관(경기도 고양시 소재), 덴마크 오르후스(Arhus) 여성박물관.
 - 남북여성평화회의 구성 및 운영 : 자칫 남북 가부장제의 통일이나 화합이 되지 않도록 여성이 참여하고 여성의 관점에서 평화의 가치를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 필요 있음. 이에 남과 북의 교류 차원에서 여성 지도자들 간 만남을 정례화함. 성평등 등 여성 이슈와 남북한 여성의 지위와 경험에 관한 공감대와 공동과제를 발견하고 상호이해를 확대하기 위한 포럼으로 조직함. 이를 남북한 여성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함. 정기회의로 개최하되 평창포럼 여성세션과 연계하여 국제행사로 확대하는 것도 가능함.

○ 지역 맞춤형 여성 일자리 확대 및 돌봄 네트워크

-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 현재 평화지역에는 양구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가 있음.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 인문교양강좌, 육아 고충상담 및 정보 제공, 육아 프로그램 운영. 농업중심적인 철원에 남북한 여성 영농기술 교류 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함.
- 농촌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설치·운영 : 평화지역에 젊은 여성의 농촌 취창업,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여성 귀농·귀촌을 지원하기 위한 농촌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설치함.
- 복합돌봄공간 운영과 돌봄 네트워크 : 키즈카페와 공동육아나눔터를 연계하여 복합공간으로 조성함. 여기에 여성취창업보육센터 또는 여성새일센터를 결합하는 것도 가능함.
- 아동-노인 돌봄연계 위한 복합공간 조성 및 서비스 : 맞벌이 가구 아동의 방과후 돌봄과 1인 가구 독거노인 돌봄을 연계하여 마을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 마을의 가운데에 공공시설 유휴 공간을 이용하여 함께 모여, 방과 후 프로그램 및 공동식사.

※ 참고 : 경기도 의정부시 ON 브릿지 사업. 아동과 노인의 공동밥상.

○ 여성 및 아동이 안전한 지역 만들기

- 여성이 걷고 싶은 길 조성 : 특히 고성 등지에 CPTED 적용. 생태와 평화를 테마로 한 심미적 요소와 결합.

※ 참고 : 대전시 대덕구 ‘도심 속 여성이 걷고 싶은 옛길’ 조성사업(여성 문학작품 스토리 텔링과 연계). 인천광역시 부평구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가로등 설치 등 CPTED 적용). 인천광역시 밤거리 노면 가로등 설치.

- 어린이 하교길 동행 프로그램 : 하굣길에 성인이 아동과 동행하여 안전 도모. 중고령 및 노인 일자리와 연계.
- ※ 참고 : 인천광역시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사업’

목 차

제 1장 서론	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선행연구의 검토	5
3. 연구의 주요용어 및 범위	9
가. 평화지역 개념	9
나. 여성친화마을의 개념	10
다. 연구의 범위	10
4. 연구의 방법 및 한계	11
가. 통계분석 및 문헌연구	11
나. 초점집단 면접조사(FGI)	11
다. 전문가 자문	12
5. 연구의 내용	12
6. 기대효과	13
7. 연구 추진절차	14
제 2장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개요와 평화지역 정책환경 변화	17
1.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목적과 범위	17
가. 여성친화도시의 목적과 성격	17
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목표와 범위	19
2. 여성친화도시의 법적 근거와 추진체계	20
가. 여성친화도시의 법적 근거	21
나.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와 현황	23
다.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최근 변화	24
3. 여성친화도시 조성여건 분석 체크리스트	25
4. 평화지역 정책환경 변화	29

제 3장 평화지역의 일반적 특성	35
1. 일반 지리적 특성	35
2. 인구사회학적 특성	38
가. 인구 밀도와 규모 변화	38
나. 성별·연령대별 인구	41
다. 성별·교육정도별 인구	43
라. 피부양 인구 규모	44
마. 출생, 사망, 혼인, 전출·전입 인구	46
바. 노인 1인가구 및 다문화가족	57
3.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평화지역 특성	60
가. 평화지역의 주요산업	61
나. 지역 재정	63
제 4장 평화지역 성 주류화 및 여성의 지위와 요구	69
1. 여성의 지위	69
가. 여성의 사회참여	69
나. 성폭력 및 가정폭력 발생률	73
다. 여성 및 돌봄 관련시설	78
라. 여성단체 현황	86
2. 행정체계의 성주류화	87
가. 주무부서의 특성	87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 정도	88
3. 여성의 요구 파악	91
가. 출산병원 및 소아과병원	93
나. 대중교통 부족에 대한 대책	94
다. 청년 및 여성 위한 질 좋은 일자리	95
라. 공공 키즈카페	96
마. 범죄예방 환경조성	98
바. 가족공원 조성	99

4. 전반적 추진여건	100
가. 여성친화도시 사업관련 행정 및 의회의 관심	100
나. 주무부서와 여성단체의 협력과 역량	103
다. 최근 지역 현안	104
제 5장 평화지역 SWOT 분석 및 여성친화마을 조성 모델(안)	111
1. 평화지역 특성종합 및 SWOT 분석	111
가. 평화지역 5개군 지역별 특성 및 여건 종합	111
나. 평화지역 SWOT 분석 및 정책전략	114
2. 평화지역 여성친화마을 조성 모델(안)	118
가. 조성의 방향	118
나. 추진체계 조성	124
다. 평화지역 여성친화마을 조성 시범사업(안) 제안	128
참 고 문 헌	142
부록1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과 연계가능한 평화지역 및 중앙부처 사업 ...	147
1. 평화지역 정책 및 사업현황	147
가. 철원군	147
나. 화천군	149
다. 인제군	153
라. 양구군	155
마. 고성군	156
2. 중앙부처 사업	159
가. 통합적 연계로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160
나. 여성친화도시 조성목표별 사업 연계	162
부록2 초점집단 면접조사 설문	190

표 목차

<표Ⅱ-1>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5대 목표	19
<표Ⅱ-2>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황('17. 12.)	24
<표Ⅱ-3>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한 지역 특성분석 체크리스트	25
<표Ⅱ-4> 평화지역 여성친화마을 조성 여건분석 체크리스트	28
<표Ⅲ-1> 평화지역 인구규모 및 인구밀도(2016)	39
<표Ⅲ-2> 전국, 강원도, 평화지역 인구변화(인구수)(2000-2015년)	39
<표Ⅲ-3> 평화지역 인구변화(비율)(2000년-2015년)	40
<표Ⅲ-4> 평화지역 인구규모 및 성별 · 연령대별 인구	42
<표Ⅲ-5> 평화지역 성별 · 교육정도별 인구	43
<표Ⅲ-6> 강원도 및 평화지역 연령대별 인구(2016년, 내국인)	45
<표Ⅲ-7> 피부양인구 및 부양인구(전국, 강원도, 평화지역)(2016)	46
<표Ⅲ-8> 철원군 출생률 및 사망률	47
<표Ⅲ-9> 철원군 혼인 및 이혼	47
<표Ⅲ-10> 철원군 성별 이동자수 (전입 및 전출인구 현황)	48
<표Ⅲ-11> 화천군 출생률 및 사망률	49
<표Ⅲ-12> 화천군 혼인 및 이혼	49
<표Ⅲ-13> 화천군 성별 이동자수 (전입 및 전출인구 현황)	49
<표Ⅲ-14> 양구군 출생률 및 사망률	50
<표Ⅲ-15> 양구군 혼인 및 이혼	51
<표Ⅲ-16> 양구군 성별 이동자수 (전입 및 전출인구 현황)	51
<표Ⅲ-17> 인제군 출생률 및 사망률	52
<표Ⅲ-18> 인제군 혼인 및 이혼	52
<표Ⅲ-19> 인제군 성별 이동자수 (전입 및 전출인구 현황)	52
<표Ⅲ-20> 고성군 출생률 및 사망률	53
<표Ⅲ-21> 고성군 혼인 및 이혼	54
<표Ⅲ-22> 고성군 성별 이동자수 (전입 및 전출인구 현황)	54
<표Ⅲ-23> 전국 및 강원도 출생률과 사망률	55
<표Ⅲ-24> 전국, 강원도, 평화지역 출산율 및 조출생률(2016)	55
<표Ⅲ-25> 전국 및 강원도 혼인 및 이혼(2014-2017)	56
<표Ⅲ-26> 평화지역 혼인 및 이혼	56
<표Ⅲ-27> 전국, 강원도, 평화지역 1인가구수(2016)	57
<표Ⅲ-28> 강원도 및 평화지역 노년 1인가구수 현황	59

<표Ⅲ-29> 강원도 시·군별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 현황(2016)	60
<표Ⅲ-30> 전국, 강원도, 평화지역 종사자수 기준 1, 2, 3위 산업	62
<표Ⅲ-31> 전국, 강원도, 평화지역 재정자립도	64
<표Ⅲ-32> 전국, 강원도, 평화지역 재정자주도	65
<표Ⅳ-1>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70
<표Ⅳ-2> 의회 및 위원회 여성비율	71
<표Ⅳ-3> 강원도 및 평화지역 위원회 여성위원 수와 비율	72
<표Ⅳ-4> 고위직 공무원 중 여성비율(4, 5, 6급)	72
<표Ⅳ-5> 강원도 및 평화지역 범죄 발생 및 검거	73
<표Ⅳ-6> 강원도 및 평화지역 5대 범죄 발생 건수	74
<표Ⅳ-7> 강원도 및 평화지역 성폭력 및 가정폭력 발생	75
<표Ⅳ-8> 전국, 강원도, 평화지역 성범죄 발생장소별 발생건수	76
<표Ⅳ-9> 전국, 강원도, 평화지역 성범죄 피해자 성별 및 연령별 발생건수	77
<표Ⅳ-10> 전국, 강원도, 평화지역 가정폭력피해자 성별 · 연령별 발생건수	78
<표Ⅳ-11> 평화지역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수 현황	81
<표Ⅳ-12> 평화지역 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	82
<표Ⅳ-13> 평화지역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공급 및 이용현황	83
<표Ⅳ-14> 지역아동센터 현황	84
<표Ⅳ-15> 연도별 공중보건 의사 배치 현황	85
<표Ⅳ-16> 평화지역 군청 가입 여성단체 현황	86
<표Ⅳ-17> 평화지역 여성정책 실무부서 현황	87
<표Ⅳ-18> 평화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법적 근거	88
<표Ⅳ-19> 평화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실적	90
<표Ⅳ-20>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참여 실적(정부합동평가 기준)	91
<표Ⅳ-21> 초점집단 면접조사(FGI) 참여자 기본정보	92
<표Ⅴ-1> 평화지역 SWOT 분석	117
<표Ⅴ-2> 여성친화도시 5대 조성목표에 따른 평화지역 정책과제	118
<표Ⅵ-1> 철원군 203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의 여성친화마을조성 연계가능 사업 · 148	
<표Ⅵ-2> 철원군 2018 주요업무추진계획의 여성친화마을조성 연계가능사업	148
<표Ⅵ-3> 화천군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중장기 계획의 여성친화마을조성 연계가능 사업	150
<표Ⅵ-4>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2018년 화천군 시행계획의 여성친화마을조성 연계가능 사업	150
<표Ⅵ-5> 화천군 2018 주요업무추진계획의 여성친화마을조성 연계가능 사업	151
<표Ⅵ-6> 인제군 종합발전계획의 여성친화마을조성 관련사업	153

<표 VI-7> 인제군 2018 군정업무계획의 여성친화마을조성 관련사업	154
<표 VI-8> 양구군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위한 「결혼·임신·출산·육아」분야별 사업 추진계획의 여성친화마을조성 관련사업	155
<표 VI-9> 양구군 2018년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여성친화마을조성 연계가능 사업 ·	155
<표 VI-10> 고성군 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및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여성친화마을조성 연계가능 사업	156
<표 VI-11> 고성군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여성친화마을조성 연계가능 사업 ···	157
<표 VI-12> 고성군 2018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의 여성친화마을조성 연계가능 사업	158
<표 VI-13> 고성군 보육발전 5개년계획의 여성친화마을조성 연계가능 사업	158

그림 목차

[그림I-1] 지역특화를 고려한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도	6
[그림I-2] 접경지역 개념도	10
[그림I-3] 연구 추진 절차	14
[그림II-1]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23
[그림III-1] 강원도 접경지역 지도	36
[그림III-2] 강원도 시군별 1인가구수 (2016)	58
[그림III-3] 강원도 시군별 지역내 총생산	63
[그림IV-1] 강원도 여성일자리 지원시설 분포도	79
[그림IV-2] 강원도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시설 분포도	80
[그림IV-3] 강원도 보건기관 1개소 당 담당 인구 및 면적	85
[그림V-1] 평화지역 여성친화마을 조성 비전과 목표, 정책과제(안)	123
[그림V-2] 평화지역 평등·평화·생태 주민 역량강화 사업 흐름도	130
[그림VI-1] 다양한 사업모델(예시)과 다섯 가지 뉴딜사업 유형	161
[그림VI-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절차	175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의 검토
3. 연구의 주요용어 및 범위
4. 연구의 방법 및 한계
5. 연구의 내용
6. 기대효과
7. 연구 추진절차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지역의 성주류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주민의 안전 등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에 매우 효과적인 사업임. 본 연구는 강원도 내 평화지역(구 접경지역)¹⁾에 이러한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할 필요와 가능성, 개략적인 방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임.
- 분단체제를 넘어서 평화체제로의 전환기에 평화지역 주민 삶의 여건개선은 강원도뿐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중요한 관심사임. 이러한 중대한 정책변화에 여성친화 관점을 개입시키는 것은 지역정책의 질을 한층 더 높이고 주민들의 다양한 정책수요를 충족시키는 데에 효과적임.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뿐 아니라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사회참여나 대표성에서 덜 가시화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임(최유진, 2017).
-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일차적으로 도시의 안전에 관한 관심에서 출발하였으나, 여성의 경험 속에서 안전에 관한 관심과 필요는 도시생활에서만 아니라 농어산촌 등 거의 모든 지역의 생활에서도 중요하므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도시를 넘어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되어 왔음.
- 또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초기에 공간 안전에 집중하였던 것에서 벗어나 점차 여성의 일자리 확대 등 사회참여 및 성주류화 정책 전반으로 확대되어 왔음(조주은, 2017).

1) 강원도는 접경지역 주민간담회를 통해 접경지역을 평화지역으로 칭하기로 정하고 실행해 오고 있음(2017. 5. 4. 내부 문서)

4 • 강원도 평화지역 여성친화마을 조성방안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도내 평화지역이 농어산촌이라는 지리적·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라는 용어 대신 ‘마을’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이러한 맥락에서 이 보고서에서 ‘여성친화마을’은 ‘여성친화도시’와 같은 개념임.
-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확대는 이 사업이 지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기초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효과를 가시화시키는 데 특히 효과적이라는 점에서도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강원도 평화지역은 강원도는 물론 전국 평균보다 출생률이 높은 지역이나 출산 및 보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임. 이러한 환경은 여성인구의 타지역 유출을 낳는 등 여성의 정주에 어려움이 있음. 이러한 점은 여성친화의 관점으로 평화지역의 사회환경 개선책을 모색해야 할 필요를 제기하고 있음.
- 여성 정주는 출산 및 보육 등 돌봄 인프라, 안전, 여성일자리 및 여성 사회참여 등과 모두 관련되는데, 이러한 항목이 바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초점임.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강원도 평화지역의 현황을 살피고 여성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
- 단기적인 인구증식에 관심을 둔 시각에서는 평화지역이 출생률은 높지만 인구 대다수가 임시 거주자인 군가족이므로 유출될 인구를 위해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을 제기할 수도 있음.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인구증감에만 관심을 둔 것일 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정책 요구를 고려하지 않은 것임.
- 평화지역의 발전은 강원도 발전의 중요한 일부일 뿐 아니라 강원도의 국내외적 이미지 제고에도 매우 상징적일 것임. 강원도는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성공리에 치러냄으로써 평화 선도지역으로서의 이미지를 획득하였음. 나아가 강원도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등 평화를 통한 번영의 비전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평화지역의 상징적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 더욱이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강원도는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4곳의 임시성폭력 상담소를 운영하여 IOC 올림픽 운영 매뉴얼에 이를 등재시키고 이를 평창동계올림픽의 유산으로 남겼음. 도 평화지역에 여성친화마을을 조성하는 것은 이러한 평화와 성평등의 유산을 계승·발전시키는 의미도 가질 것임.
-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평화지역의 인프라 부족 등 주민 불편의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적절한 해결책임. 특히 강원도의 접경지, 평화지역은 경기도의 접경지에 비해 면적이 더 넓으면서도 국비 예산투입이 적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음(김범수,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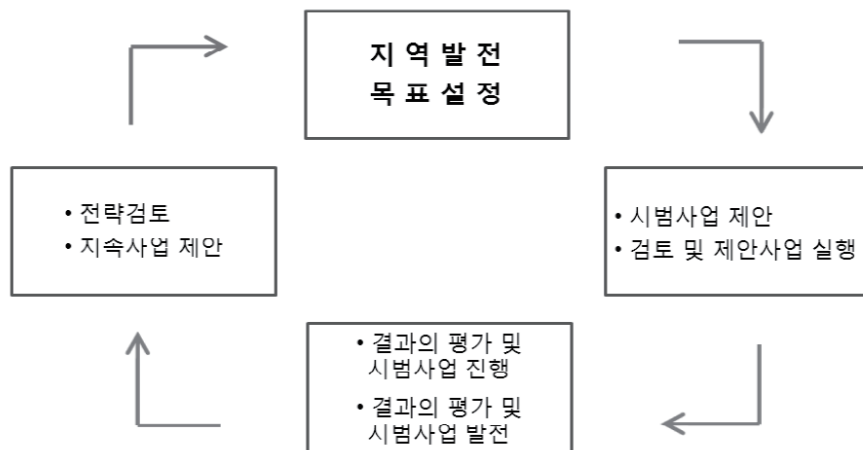
-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발전에 따라, 지역의 상황과 여건이 반영된 지역 특성화의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평화지역이라는 독특한 사회적 위치를 가진 지역에 관한 여성친화마을 조성방안 모색은 그 자체로 지역 특성화 방안 모색이기도 함.
- 본 연구를 위해서 강원도 평화지역 5개 군(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의 인구 및 사회의 일반 현황과, 정책적 환경에 관하여 사회 및 인구통계, 행정 통계, 정책자료 등을 검토하였음. 검토 대상 및 범위는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매뉴얼 및 선행연구를 참조함.
- 본 연구를 위하여 해당 5개 군의 여성정책 시행부서 및 관련 전문가 등과의 회의 및 조사를 통해 통계로 파악하기 어려운 지역 특성과 여건을 살펴보았음.
-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사업내용은 무엇보다 지역 주민이 참여한 여성친화마을조성협의체 또는 시민참여단을 통해 제안되어야 함. 여성친화마을조성사업을 위한 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사회통계보다 지역 특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사회조사 및 주민의견조사가 이루어짐. 이 연구는 이러한 계획에 비해 대략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여성친화마을 조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주요방향에 관해 제언하는 것이 중심을 이룸.
- 현재 접경지역과 관련해서는 접경지 지정범위를 축소하고자 하는 개정법 발의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2018년 6월 현재 제2차 접경지역발전기본계획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임. 이처럼 평화지역을 둘러싼 제도 및 사회변화의 와중에 있으므로, 본연구는 연구가 완료되는 2018년 6월 상황을 기준으로 함.

2. 선행연구의 검토

- 지금까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음. 첫째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거나 검토하는 연구임(이미원, 2009; 최유진, 2016; 최유진 외, 2017a; 조주은·김예성, 2017). 두 번째는 특정지역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방향을 살펴보거나(안희정·이갑숙, 2010), 여성친화도시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연구들임(최유진 외, 2017b; 오미란 외, 2017).

6 • 강원도 평화지역 여성친화마을 조성방안

- 초기 연구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도시발전에 따라 요구되고 있으며, 동등한 참여와 향유, 민주주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강조함.
- 이미원(2009)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원칙 및 평가지표를 제시하였는데, 도시기반 시설조성 원칙 및 여성친화성 평가지표, 공공 이용시설 조성원칙 및 평가지표, 주거단지 조성원칙 및 평가지표 등임.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사업계획과 평가지표를 수립할 때 참조될 수 있음.
- 이미원(2009)은 본 연구의 관심인 지역특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제안하고 있음.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한 지역개발 및 도시 마케팅 전략체계를 도입한다는 것임. 나아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브랜드 창출 모형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음.



[그림I-1] 지역특화를 고려한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도

출처: 이미원(2009) p.70 <그림7>

- 위의 모형에 따르면 지역발전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걸맞은 시범사업을 실행한 뒤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업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지속사업을 제안하고 전략을 검토한다는 것임. 이러한 과정 역시 본 연구의 수행에 시사하는 바가 크므로, 제언부분에서 사업을 예시함.
- 최유진(2016)은 전국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현황을 개괄하면서 문제와 과제를 지적하고 있음. 최유진(2016)에 따르면, 기초지자체의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주

무부서 인력은 평균 2.2명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시민참여단에 관해서는 관련된 조례 규정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 수가 적으며, 시민참여단 대다수가 50대의 여성이고 주부임. 시민참여단보다는 조성협의체가 널리 구성되어 있는데, 중간협의기구로서의 기능을 갖춘 곳은 아직 거의 없는 실정임. 여성친화도시 우수사업 공모사업 예산 규모가 1-2천으로 적어 새로운 사업발굴에 한계가 있으며 역량 있는 지자체만 연속 응모하게 되는 실정임.

- 또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위원회 여성 비율, 5급 이상 고위직의 여성비율 등에서는 성과를 보임. 하지만 지역특화 사업들의 경우 여전히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담당자들로서는 이것을 위한 매뉴얼이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고 모범사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최유진(2016)은 지역에 걸맞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해서는 지역조사, 시범사업 추진, 부서간 협력 및 연계 등에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또한 도시계획과 건축물에 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나아가 사업추진에 있어서 단기적이고 매뉴얼식의 성급한 추진을 경계하고 장기간에 걸쳐 성평등 이슈에 대한 꼼꼼한 분석을 요구함.
- 조주은과 김예성(2017)은 중앙 차원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한계와 과제를 분석하였음. 특성화와 관련해서는 선정기준이 지역의 다양성을 잘 고려하도록 수립되어 있지 않아서 사업수행 지역의 정체성을 잘 살리지 못한다고 지적함. 중앙의 법적 근거가 다소 미약하고, 여성가족부의 예산이 빈약한 점이 특히 문제로 지적됨.
- 강원도의 특성을 고려한 여성친화마을 모델 개발이 이루어진 바 있어 참조할 만함. 안희정과 이갑숙(2010)은 ‘마을’의 개념을 이용하여 강원도를 여성친화지역으로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음. 이들이 ‘마을’ 개념을 이용한 이유로 ‘도시’라는 용어가 강원도의 환경적 사회적 지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 점은(안희정·이갑숙, 2010: 14)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유사함.
- 안희정과 이갑숙(2010)은 강원도 여성친화마을 분석모형을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크게 ‘성인지적 공간조성’과 ‘평등지향적 공동체 조성’이라는 목표로 구분되며, ‘성인지적 공간조성’은 쾌적한 마을, 안전한 마을, 여유로운 마을이라는 하위목표와 연결되고, ‘평등지향적 공동체 조성’은 하위목표로서 참여의 마을, 배려의 마을, 풍요로운 마을이라는 목표와 연결짓고 있음.

8 • 강원도 평화지역 여성친화마을 조성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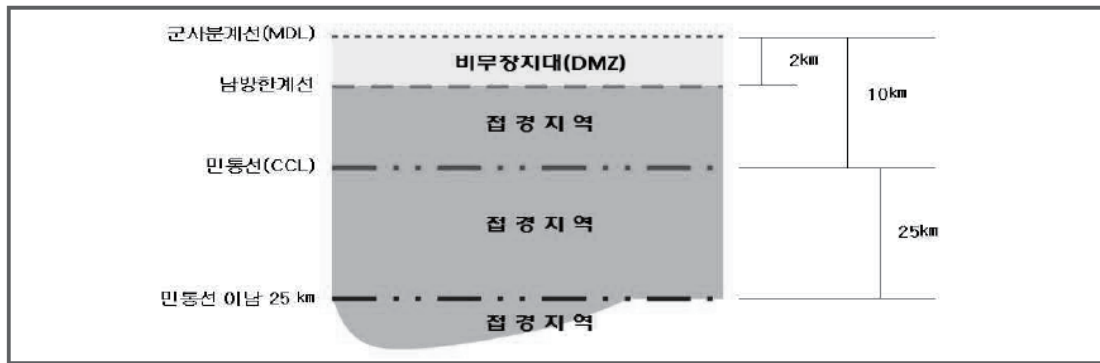
- 또한 위의 연구는 강원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5대 심화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첫번째, 여성 및 아동의 안전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농촌의 경우 도시보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경찰의 개입이 어렵기 때문에 지역의 네트워크 형성과 지역민의 인식전환이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음. 이러한 지적은 강원도의 벽지 여성 안전에 관한 연구(민소담, 2017)의 분석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서, 민소담(2017)에 따르면, 강원도 벽지 농촌지역은 친족 및 가까운 이웃관계로 인하여 성폭력 등의 범죄를 은폐하는 경향이 있음.
- 두번째, 여성센터 연계 통한 여성능력개발 효율화 관련임. 이것은 여성가족부가 요구한 것이기도 한 바, 여성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을 지역간 안배하고 네트워킹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임.
- 세 번째, 여성의 취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질의 여성 일자리 창출과 창업 프로그램의 다양화, 직업안정을 위한 계획 제시 필요를 지적하고 있음. 네 번째, 가족친화마을 조성에 관해서는 다양한 주민에게 활용될 수 있는 통합적 차원의 센터 구성을 제안하였음. 이는 특히 인프라가 부족하고 인구밀도가 낮은 접경지에서 고려할 만한 내용임.
- 위 연구에서 다섯 번째 심화과제로 제안한 것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으로, 노인인구가 많은 강원도에서는 만성질환관리를 특성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됨. 하지만 현재 의료 시스템상에서 만성질환 관리가 여전히 중요한 과제 인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노인 자살률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건강관리에 관해서는 신체적 건강의 차원을 넘어 정신적 건강까지 포함된 포괄적인 건강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강원도의 고령화 현황을 분석하고 고령친화마을 조성을 제안한 김승희(2013)는 강원도의 고령화와 함께 노인 1인 가구 증가, 이들의 빈곤가능성, 강원도 농산촌 지역의 열악한 거주환경을 고려하여, 농산촌지역 노인들을 위한 정주집중화 모델을 제안하였음. 강원도 평화지역은 고령화 정도가 심각하고 인구 밀도도 낮은 점을 고려할 때 고령친화마을 조성은 돌봄 기능 강화를 기조로 한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에서 참고할 점이라고 판단됨.
-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사업계획에 기반을 두어야 하고 그것은 사회적 인프라 조성을 포함하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되어야 함. 중장기 사업계획은 광범위한 주민 요구조사 등 정책 수요에 관한 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임.

- 본 연구는 연구기간이나 예산규모 등의 면에서 여성친화마을 조성의 가능성과 방향을 탐색해 보기 위한 시론적이고 기초적인 연구에 해당함. 이에 본 연구는 기본조사와 같은 넓은 범위의 인프라 사업에 관한 방향을 포함한 중장기기본계획만큼 포괄적이지 못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3. 연구의 주요용어 및 범위

가. 평화지역 개념

- 현재 강원도에서는 접경지역을 평화지역으로 부르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에 따르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중앙의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애초에 접경지역의 정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름. 이 법에 따르면, ‘접경지’는 다음의 세 가지 규정에 따라 정해짐.
 - 첫째,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으로 강원도에서는 철원, 인제, 화천, 양구, 고성 이에 속함.
 - 둘째, 민간인 통제선 이남의 지역 중 민간인 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정하는 시군으로서, 춘천의 사북면과 북산면이 여기에 속함.
 - 셋째, 비무장 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으로서 강원도에는 여기에 속하는 지역은 존재하지 않음.
- 이러한 접경지를 그림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그림 I-2]와 같음.



[그림1-2] 접경지역 개념도

출처: 행정안전부. (2011).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p. 7

- 강원도에서는 철원, 화천, 인제, 양구, 고성, 춘천 6개 시군이 접경지역에 해당되나 춘천시에서는 북산면과 사북면이 접경지역으로서, 이 두 개 면을 다른 평화지역 군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 춘천은 제외함.
- 기존의 강원도 접경지역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와 정책들 역시 춘천을 제외한 5개 군에 집중하고 있음.

나. 여성친화마을의 개념

- 이 연구에서 ‘여성친화마을’은 양성평등기본법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규정의 ‘여성친화도시’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함.
- 여성친화도시 사업이 도시를 모델로 시작되었으나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농촌 및 산촌 등 여러 지역까지 아우르게 된 점을 고려하여 ‘도시’에 국한하지 않은 지역 생활 단위를 토대로 하기 위하여 ‘마을’ 용어를 사용함.

다. 연구의 범위

- 본 연구는 시간적으로 장기적인 전망을 위한 분석을 담고 있지 않으므로 대략 향후 5년인 2023년까지의 시기에 관한 것으로 한정함.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면 5년간 유지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는 향후 5년 간의 변화를 고려함.

- 이 연구가 이루어지는 동안 2018 6. 13. 지방선거를 통하여 각 군정의 정책방향과 환경이 변화될 수 있으나 이 연구의 종료시점이 6월이므로 그러한 변화를 반영하지는 못함.
- 본 연구는 공간적으로 강원도 내 평화지역 중 춘천을 제외한 철원, 화천, 인제, 양구, 고성 5개 군에 한정됨.

4. 연구의 방법 및 한계

가. 통계분석 및 문헌연구

- 본 보고서에서는 평화지역의 인프라, 인구 및 사회 현황 분석을 위해 통계청 2차 자료, 강원도 및 평화지역 5개 군청의 내부 행정통계자료 등을 활용함. 사회현황 및 시설 인프라 등 현황은 행정 자료를 참고하였음.
- 기존의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들은 지역현황에 관한 별도의 세밀한 조사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하나, 본 연구의 지역현황 파악은 2차 통계에 한정되므로 지역 실태 파악에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음.
- 기존 통계자료의 항목은 여성가족부의 2017년 여성친화도시 매뉴얼에 실린 체크리스트를 참조하되, 연구의 기간과 예산 등의 한계를 고려하여 필수적인 항목에 관해서만 자료를 수집하였음.
- 부록에 평화지역 5개 군이 각기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 및 2018년도 시행계획 등 기존의 지역정책계획, 중앙부처의 사업들 중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들을 제시하고, 가능한 사업목록도 제시하였음. 이것을 참조하면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예산을 어떤 사업과 연계하면 받을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나. 초점집단 면접조사(FGI)

- 본 보고서에서는 평화지역 거주여성, 여성 및 가족정책부서 실무자, 여성단체지도자가 참여하는 초점집단 면접조사(FGI)를 통해 해당 지역 여성친화 인프라 및 정책을 위한 과제와 문제, 정책 요구를 조사하였음.

- 이 조사는 2018년 4월 25일에서 5월 2일까지 이루어졌음. 조사는 1회당 대략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조사 뒤에 가능하면 식사나 차를 함께 하면서 지역에 관한 이야기를 더 들었음. 이 조사를 통해 지역의 문화적 특성, 인프라, 정책 요구, 여성단체의 참여도 등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였음.
- 초점집단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설문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설문의 내용은 여성가족부의 2017년 여성친화도시 매뉴얼에 실린 체크 리스트가 반영되도록 구성하였음. 설문내용은 <부록2> 참조.
- 조사 내용은 전량 녹음하여 한글로 변환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였음.

다. 전문가 자문

- 본 연구를 위해 3 회의 전문가 자문회의가 이루어짐. 첫 번째는 연구의 방향 및 방법 등 전반에 관한 자문회의로서 연구 착수보고 단계에서 이루어짐. 두 번째는 연구 진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중간 자문회의임. 세 번째는 연구 마지막 단계에서의 최종자문회의임.
- 자문회의에는 관련 부서 공무원, 도내외 젠더 전문 연구자 및 여성친화도시 전문가 등이 참여하였음.

5. 연구의 내용

- 이 보고서는 전체 5개의 장으로 이루어짐.
-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연구 추진절차, 선행연구 검토 관련 내용을 담음.
- 제2장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목적과 개요, 평화지역의 최근 정책변화를 설명함.
- 제3장과 4장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제시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여건 체크리스트를 평화지역 상황에 맞게 응용하여 이 리스트를 따라 평화지역 현황을 제시함. 우선 3장에서는 사회통계 및 행정 통계를 기반으로 지리와 인구 등 일반사회학적 현황을 살펴봄.

- 4장에서는 평화지역의 성 주류화 현황과 여성의 요구과약에 관해 살펴봄. 이 장에서는 주로 FGI 조사결과를 활용함.
- 5장에서는 평화지역의 특성을 종합하고 SWOT 분석과 전략을 제시함. 또한 평화지역 여성친화마을 조성모델(안)을 제시하고, 강원도와 기초지자체의 추진체계 조성방향을 제안함. 나아가 평화지역 상황에 걸맞은 몇 가지 주요 시범사업을 제안함.
- 부록에는 평화지역 군 단위 중장기계획에서 제시된 사업, 그리고 중앙부처의 사업 중 평화지역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이 가능한 사업들을 간단히 정리한 내용을 담아 연계를 위한 사업을 메뉴처럼 찾아볼 수 있게 하였음.

6. 기대효과

- 이 연구는 돌봄 환경 및 서비스 개선, 일·생활의 균형, 여성의 참여와 지위제고를 통해 자녀를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일자리 등 사회참여와 지위 제고를 위한 사업과 프로그램 개발 여건을 조성하는 등 여성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음.
- 나아가 이 연구는 여성뿐 아니라 아동 및 노인,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사회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7. 연구 추진절차

단 계	주요 내용	
연구설계	연구 목적 및 방법, 주요내용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목적 및 방법, 내용 전반 설계 ○ 선행연구 검토
↓ 연구설계 자문	착수자문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연구자 및 실무 담당자 참여 ○ 연구방법 및 방향 관련 의견자문
↓ 현황분석	인구 및 사회현황 통계·문헌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및 사회 현황 통계자료 검토 ○ 정책 및 서비스 관련 행정 통계 및 자료 검토
↓ 현장 조사 및 FGI	관련자 의견조사 및 현장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자 및 거주여성 FGI ○ 지역 탐방
↓ 연구 중간점검	중간자문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 토론·자문
↓ SWOT 분석	조성방안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 및 지역별 정책연계 가능성 검토 ○ 지역별 여건 및 특성분석
↓ 최종자문 및 최종심의	최종자문 및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 최종 자문 ○ 외부 전문가 최종심의
↓ 발간심의	발간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서 인쇄 결정

[그림1-3] 연구 추진 절차

제2장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개요와 평화지역 정책환경 변화

1.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목적과 범위
2. 여성친화도시의 법적 근거와 조성체계
3. 여성친화도시 조성여건 분석 체크리스트
4. 평화지역 정책환경 변화

제2장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개요와 평화지역 정책환경 변화

1.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목적과 범위

가. 여성친화도시의 목적과 성격

- 여성친화도시의 목적과 성격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설명은 여성친화도시는 젠더 관점(gender perspective)에서 사회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젠더 관점이란 남성이나 여성은 사회적으로 주어진 위치(position)로서 이 위치에 따라 사회를 경험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러한 시각에서 사회를 인식하는 것을 말함. 이러한 젠더 관점은 남녀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차이가 차별의 구실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만드는 데에 기초적인 것임.
-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운영지침(2018)에는 여성친화도시 개념을 “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 이라고 정의하고 기존 도시정책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여성가족부, 2018a).

기존의 도시 정책

- ◆ 정책과정에서 여성 소외
- ◆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제도적 차원의 성 차별 해소 중심정책
- ◆ 여성일반에 체감되지 않는 여성정책

여성친화도시 조성

- ◆ 양성이 함께 만드는 지역정책
- ◆ 여성정책의 지평 확대
(지역정책의 성 주류화 실현)
- ◆ 일상적 삶에서 체감하는 정책효과
(지역민의 행복감 고양)

-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첫째, 지역의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하는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둘째, 모든 부서 사업에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여 개선하여, 셋째, 궁극적으로 지역정책 전반이 성평등하게 전환되도록 추진” 하는 사업임(여성가족부, 2018a)
- 여성친화도시 개념은 1970년대 북미 여성운동가들에 의해 처음 생겨난 것으로 이들은 도시가 안정성, 접근성, 편리성, 쾌적성을 갖출 것을 요구했음(이미원, 2009).
- 이러한 요구는 중립적인 관점에서 모두를 위해 편리하게 조성되었다고 여겨지는 도시 공간과 사회적 시스템이 여성에게는 사회적 배제 또는 폭력피해의 환경이 될 수 있다는 성찰에 기반을 두고 있음.
- 여성에게 위험한 물리적·사회적 도시환경은 여성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아동의 삶에도 제약을 가할 뿐 아니라 이들에게도 역시 위험한 환경임. 여성은 사회적으로 모성 역할이 기대되기 때문에 자녀를 동반한 채로 이동하는 경우가 남성에 비해 많아, 공간에 대한 경험과 요구가 남성과는 다름. 돌봄자를 위한 고려는 여성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지역의 다양한 가족들에게도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일이 됨. 남성의 돌봄 참여 증가뿐 아니라 가족 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돌봄은 여성들 외에도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하기 때문임.
- 이러한 움직임에 의한 여성의 도시권은 국제사회의 의제로 상정되기에 이르러, 1992년 UNCED 리우 환경선언에서 장애인과 아동을 포함한 여성의 주거권 확보가 언급되고, 1994년 ‘도시여성을 위한 유럽선언’, 1996년 이스탄불의 제2차 유엔정주회의(Habitat 2)에서 인간 정주에서 성평등이 천명되고 관련정책의 성분석 및 지표개발의 필요가 강조되었음.
- 한국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2009년부터 익산시와 여수시를 시작으로 여성가족부가 인증하고 주로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진행되어 왔음.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5년을 단위로 지정되고, 여성가족부는 심사를 거쳐 매해 말 여성친화도시 신규 또는 재지정 지역을 선정하여 발표함.
-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의의가 “지역정책의 성주류화를 의미” (2017년 여성친화도시 조성매뉴얼)한다고 할 정도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특히 시·군 등의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성주류화를 위한 전략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최유진, 2016). 이러한 효과 때문에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확대는 특히 지역 정책에서 기대되고 있음.

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목표와 범위

○ 여성가족부는 다음과 같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5대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

<표II-1>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5대 목표

5대 목표	내 용
① 성 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부서에서 성 평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 성평등정책 추진 부서 설치 - 성평등정책부서를 중심으로 한 부서 간 협력 - 지역 여성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구축 -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활성화와 성인지 통계 구축 -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
②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취·창업 활성화 - 지역 산업과 연계된 직업훈련 및 취·창업 지원 - 근거리 일자리 발굴과 여성의 사회적 경제 활동 촉진 • 여성 고용 안정을 위한 지역사회 책무성 확대 -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 여성 고용 창출 및 고용 안정 목표 공시 및 지속 모니터링
③ 지역사회 안전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 - 여성 및 사회적 약자의 통행 특성 반영한 이동 여건 조성 -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단지에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 •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 역량 강화 - 지역사회 위협에 대한 여성의 대처능력 향상 - 여성의 지역 안전 유지 역량 강화
④ 가족친화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 고용환경 조성 - 여성의 경력 유지와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 여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 가족친화기업 확대 • 돌봄에 대한 지역사회 책임 강화 - 돌봄 서비스 내실화와 돌봄 인프라 접근성 향상 - 마을 단위 돌봄 확대
⑤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사회 여성 활동 확산 - 다양한 분야의 마을 여성 모임 활성화와 커뮤니티 활동 공간 확대 - 지역 사회 여성 활동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 모든 분야의 여성 대표성 증진을 위한 조치 - 단체 및 자원활동 등 지역사회 여성 활동의 사회적 가치 인정 - 지역사회 내 공식적인 의사결정 기구 참여 확대

- 위에서 보듯이 여성친화도시사업은 양성평등정책 전반을 포괄할 정도로 넓어 기초지자체의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은 곧 해당지역의 양성평등기본계획이기도 함.
-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비전과 가치, 목표, 추진과제는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함. 여성친화도시 비전에서 보듯이, 여성친화도시의 목적은 성평등 및 지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리는 것임.
- 이 사업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관 주도의 삶의 질 개선이 아니라 시민의 참여를 통한 개선임. 이에 이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시민과 실무부서의 소통이 매우 중요함.
- 삶의 질을 따지는 기준으로는 얼마나 돌봄친화적인 환경인지 여부와 형평성 문제임. 이것은 남녀 간뿐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주민, 아동 등 여러 사회적 위치에 따라 인프라 접근성 및 서비스 수혜의 차이를 줄이고자 노력하는 것임.
- 이처럼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의 열악한 사회적 지위와 상황에 착목하여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도달하고자 하는 지점은 모든 시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서 사회구성원 모두를 위한 비전을 가지고 있음.

2. 여성친화도시의 법적 근거와 추진체계

-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양성평등기본법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하지만 별도의 법규를 가지고 있지 않고, 여성가족부로부터 예산지원은 소규모 공모사업이 전부임.
- 이러한 사정은 광역 시·도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제주시와 세종시를 제외하면 현재까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거의 대부분 기초 시·군 예산에 기반한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기초단체장의 의지와 실무부서의 노력, 주민의 협력으로 이루어져 왔음.

가. 여성친화도시의 법적 근거

-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법적 근거는 양성평등기본법 제 39조로서, 이 조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여성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여성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해당사업은 공간조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양성평등한 참여, 여성의 역량과 복지, 권익 증진방안이 포함됨. 더불어 여성의 생활안전이 포함되어 있음.
- 돌봄과 안전 관련 내용은 공간 안전만 아니라 범죄로부터의 안전 등 사회적인 차원의 안전도 포함하고 있음.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4조(여성친화도시 지정)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이하 "여성친화도시"로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여성친화도시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형성과 발전과정에 여성의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 방안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의 복지 및 생활안전 강화 방안
4.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의 권익 증진 방안

- 강원도 차원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조례는 없고, 강원도양성평등기본조례 제19조에 ‘여성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에 관한 규정이 있음. 이 규정에 따르면, 공간이나 시설 조성의 경우, 여성의 안전과 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여성친화적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음.

강원도 양성평등기본조례

제19조(여성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공간이나 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여성의 안전과 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여성친화적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인프라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22 • 강원도 평화지역 여성친화마을 조성방안

- 하지만, 위의 제19조는 그 내용에서 공간 및 시설에 관련된 내용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근거로서는 그 내용이 협소함.
- 현재 도내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기초 시·군의 경우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이에 평화지역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초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마련하는 것이 사업의 안정성에 유리함.
- 그 외에도 강원도 양성평등기본조례에는 일과 가정의 양립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고, 그 내용에서는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규정하고 있음. 이 내용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과 밀접한 연관을 가짐.

<강원도 양성평등기본조례>

제12조(일·가족 양립 지원) ① 도지사는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 활성화
4. 육아휴직제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6. 일·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 친화 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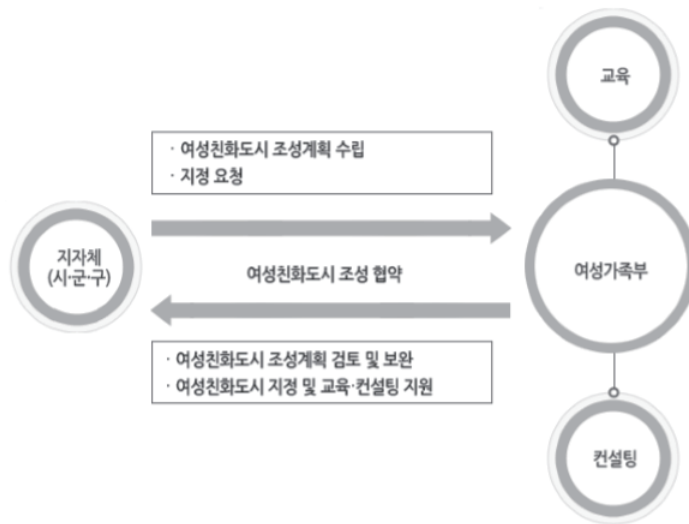
② 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통한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업·지역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1. 가족친화 직장 및 마을 환경 개선사업
2. 가족친화 시설 조성 지원
3. 가족친화 문화조성 및 확산
4. 가족친화제도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5.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및 역량강화 사업
6. 가족친화 교육 실시 및 강사양성
7. 가족친화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③ 도지사는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은 도 소재 기업 등에 대하여 각종 사업 및 선정에서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나.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와 현황

-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가족부의 컨설팅 지원,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를 통한 지정과 평가 등의 체계로 이루어짐. 여성가족부가 컨설팅트를 위촉하여 지자체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도록 하고, 지자체의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평가 및 지정함.



[그림II-1]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www.mogef.go.kr)

- 여성친화도시는 선정 후 5년간 사업을 수행한 뒤 재지정 신청과 심사를 통하여 그 자격을 연장할 수 있음.
- 2017년 말 현재 전국의 여성친화도시는 86개 자치지역이며, 강원도에서는 6개 기초 시·군으로서 강릉, 동해, 영월, 원주, 횡성, 정선 등임.
- 여성친화도시의 수에서, 강원도는 경기, 부산, 서울, 충남에 이어 전남과 함께 5번째로 여성친화도시가 많은 광역시도임.
- 여성가족부는 매년 여성친화도시 신규 및 재지정 심사를 통하여 지정현황을 밝히고 있음. 여성친화도시 지정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II-2>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황('17. 12.)

지역	계	'09 지정 14 재지정	'10 지정 15 재지정	'11 지정 16 재지정	'12 지정 17 재지정	'13 지정	'14 지정	'15 지정	'16 지정	'17 지정
계	86	2	7	17	7	11	7	11	16	8
서울	10			도봉구	서대문구 마포구			성동구 은평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부산	11			사상구	연제구	중구 남구	북구 금정구 영도구	사하구 수영구 부산진구	동구	
대구	3		중구 달서구		수성구					
인천	3			부평구		연수구			남구	
광주	5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	4					서구		동구 대덕구	유성구	
울산	1								중구	
경기	12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의정부 시	용인시	고양시 김포시	부천시	성남시 화성시 양주시	
강원	6		강릉시	동해시	영월군	원주시			횡성군	정선군
충북	4		청주시						충주시 증평군	음성군
충남	9		*당진시	아산시		보령시 태안군	홍성군	논산시	서산시	금산군 부여군
전북	3	익산시		김제시		남원시				
전남	6	여수시		*장흥군				강진군	순천시	광양시 장성군
경북	4				포항시	구미시 경산시		철곡군		
경남	3			양산시 *김해시			거창군			
제주	1			제주시						
세종	1								세종시	

* 신규지정기간(5년) 만료 후 재지정심사 2회 이상 신청하여 '17년 재지정

다.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최근 변화

- 최근 여성가족부가 여성친화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새로운 정책환경이 만들어졌음. 또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확대되고 있음.

- 여성가족부가 제시하고 있는 여성친화형 도시재생 뉴딜 모델(안)은 ‘돌봄-일자리 순환형 도시재생’ 모델과 ‘여성친화산업 특화형 도시재생’으로 구분됨.
- 돌봄-일자리 순환형 도시재생 모델은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등 지역의 여성공동체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성 일자리와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모델임.
- 여성친화산업 특화형 도시재생은 패션봉제산업 등 여성특화가 가능한 산업이 집중된 지역에 여성의 취업 및 창업 지원, 돌봄서비스 기능 통합을 통해 생활밀착형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모델임.
- 또한 도새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소규모 주민제안사업이 있는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이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가능함. 여성가족부의 소규모 주민제안 사업으로는 ‘청소년시설 확충’ 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있음.

3. 여성친화도시 조성여건 분석 체크리스트

-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이 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해당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살펴보아야 함.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 특성분석 체크 리스트 제공을 통해 지역 여건 분석 항목을 안내하고 있음.

<표II-3>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한 지역 특성분석 체크리스트

구분	체크리스트	세부 내용
전반적 추진 여건	단체장의 관심과 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장의 역점시책은 무엇인가 • 단체장의 공약 중에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이 있는가
	의회의 관심과 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 질의에서 성별영향평가 등 성인지 정책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표명되는가 • 성인지 정책에 대해 관심 있는 의원들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가
	지방자치단체와 여성단체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단체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떠한 방식으로 협력하는가 • 협력 관계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26 • 강원도 평화지역 여성친화마을 조성방안

구분	체크리스트	세부 내용
	여성친화도시 관련 분야별 인적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친화도시에 관심 있는 전문가가 있는가 •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위한 교육, 아이디어 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지역 내에서 찾을 수 있는가
	최근 지역 현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주민의 주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현안은 무엇인가
행정 체계의 성 주류화	주무부서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무부서는 어떠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가 • 실무자는 몇 명인가 • 여성친화도시 업무를 전담할 인력이 있는가
	공무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 교육 추진 직급별·성별 교육시간 현황
	성별영향평가의 활성화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3년간 어떤 사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가 수행되었나 • 도시개발, 산업정책 등 주요 지역개발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가 활성화되어 있는가, 환류결과가 있는가
	성별 분리 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 가능한 성별 분리 자료와 통계 목록의 정리
지역의 일반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규모, 연령대별 인구구조, 학력구조, 직업구조 등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지역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구조, 지역경제 발전 수준 •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 문화시설, 공원 등 여가시설 •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공부방,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여성의 지위	여성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취업(경제활동 참가율, 취업분야, 소득수준 등)의 특성 • 정치 및 행정기구 내 여성 비율 • 성폭력, 가정폭력 등 발생률 • 성매매 관련 현황(집결지 등)
	여성 및 돌봄 관련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회관, 여성발전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여성교육기관 현황 • 보육시설 현황(수, 운영주체, 보육률, 공보육율, 취약아동 보육시설 등) • 장애인, 노인 복지시설 현황
여성의 요구 파악	여성단체의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단체가 자치단체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항은 무엇인가
	시민 욕구 및 만족도 관련 조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삶의 질 만족도나 시민 욕구 관련 조사가 있는가 • 조사를 통해 표출된 여성들의 지역정책에 대한 요구는 무엇인가 • 지역정책 관련 수요조사 중 성별 정책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가 있는가 • 정책 수요의 차이는 무엇인가

출처 : 여성가족부, 2018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운영지침

- 위의 체크 리스트를 토대로 강원도 평화지역 여성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지역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되, 별도의 사회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기존의 사회통계, 군청 행정통계, 경찰청 통계 등을 이용함. 또한 통계 자료의 한계를 보충하기 위하여 초접집단 면접조사(FGI) 내용을 추가하였음.
- 강원도 평화지역의 조성여건 분석을 위해서는 여성가족부의 체크 리스트를 토대로 위의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항목들로 재구성함. 이때 여성가족부 체크 리스트에는 없는 몇 가지 항목을 추가하여 평화지역의 특성을 더욱 깊이 있게 파악하는 데 참고가 되도록 하였음.
- 강원도 평화지역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여성가족부 체크리스트에는 없는 다음의 사항들을 추가하였음.
 - 우선, 강원도 평화지역은 인구소멸의 위험이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지만 출생률이 높다는 이율배반적인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점을 드러내기 위하여 인구규모와 변화뿐 아니라 출생률과 혼인율 등 인구 재생산과 관련된 통계를 제시하였음.
 - 또한 인구감소의 위험은 인구유출이 큰 요인이기도 하고, 이는 특히 여성의 정주여건과 관계되기 때문에 전출입 인구를 제시하였음.
 - 여성 내부의 다양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수를 다문화가족 지표로 제시하였음.
 - 심각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돌봄의 필요가 있는 지역이므로 노인 1인가구 비율을 제시하였음.
 - 소년 및 노년 피부양인구비를 제시하여 고출생률, 고령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지역 특성을 부각시키고자 하였음.
 - 지역 특성에는 강원도가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열악한 지역인데 평화지역은 더욱 그러한 점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지역 재정을 다루고,
 - 대도시와 다른 상황으로서 인근 도시로의 소비 및 인구유출 문제를 제시하였음.
 - 여성의 요구파악에는 이번 FGI를 통해 파악된 정책요구를 제시하였음.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강원도 평화지역 여성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여건파악을 위해 적용한 체크리스트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음.
- 항목별로 내용은 통계자료뿐 아니라 관련된 FGI 자료를 제시하여 지역 상황을 보다 충분히 드러내고자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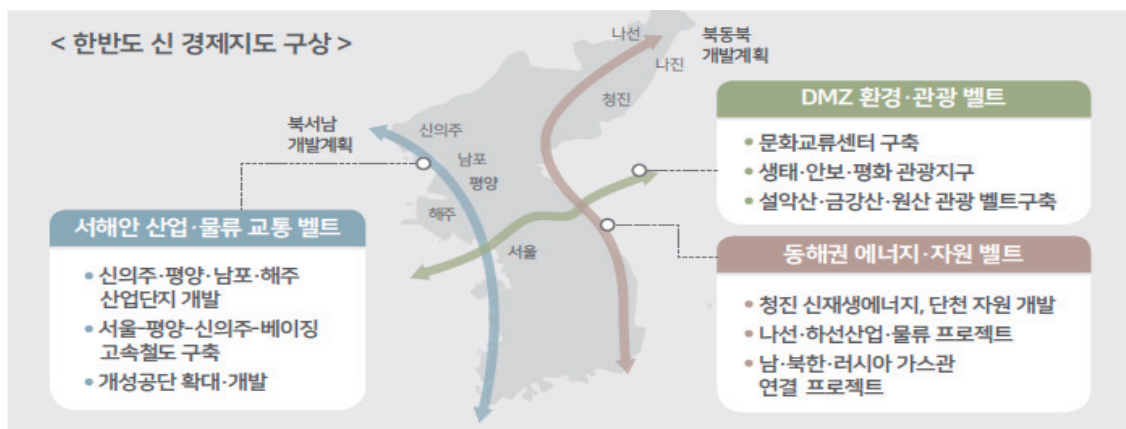
<표II-4> 평화지역 여성친화마을 조성 여건분석 체크리스트

구분	체크리스트	세부 내용	자료
전반적 추진 여건	단체장 및 의회의 관심과 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정에서 여성친화와 관련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되어 왔는가 • 군의회에서 여성친화 관련 의제에 관심이 있는가? 	FGI
	지방자치단체와 여성단체의 관계와 인적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역량 	FGI
	최근 지역 현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주민의 주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현안은 무엇인가 	FGI
행정 체계의 성 주류화	주무부서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무부서는 어떠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가 • 실무자는 몇 명인가 • 여성친화도시 업무를 전담할 인력이 있는가 	행정통계
	성별영향평가의 활성화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한 조례 및 위원회 등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행정자료
지역의 일반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규모, 연령대별 인구구조, 출산율, 혼인율, 피부양인구비율, 노인 1인가구 비율, 결혼이주여성 수 	사회통계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지역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 수로 본 주요 산업, • 문화시설, 공원 등 여가시설 •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공부방,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사회통계, FGI
여성의 지위	여성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취업(경제활동 참가율, 취업분야 특성) • 정치 및 행정기구 내 여성 비율 • 성폭력, 가정폭력 등 발생률 	사회통계
	여성 및 돌봄 관련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회관, 여성발전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여성교육기관 현황 • 보육시설 현황(수, 운영주체, 보육률, 공보육율 등) 	행정통계
여성의 요구 파악	여성단체 또는 주민의 욕구 및 만족도 관련 조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단체 또는 주민의 정책 요구 (FGI 조사 결과) 	FGI

- 위의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강원도 평화지역의 현황을 살펴보되, 순서와 장의 길이를 고려하여 지역의 일반적 특성과 나머지 항목을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이에 다음 3장은 위의 체크 리스트의 지역의 일반적 특성 항목으로서 지리, 인구 및 사회현황을 다룸. 4장은 성주류화 및 여성의 지위와 요구를 다룸. 4장에서는 위의 체크 리스트의 여성의 지위, 행정체계의 성주류화, 전반적인 추진여건, 여성의 요구과약의 항목 순으로 제시함.

4. 평화지역 정책환경 변화

- 강원도 평화지역에 여성친화마을을 조성하는 것은 현재 중앙정부 및 강원도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평화지역 조성정책에 잘 부합할 뿐 아니라 상승작용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 강원도는 평화 이슈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평화지역발전 추진 TF 팀과 남북 교류협력 TF 팀을 조직하여 운영하는 등 남북한 관계변화를 강원도 변화발전의 중요한 계기로 활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
- 강원도의 신경제지도 구상에 따르면 강원도는 동해권 에너지 및 자원벨트 조성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계획은 고성지역을 물류 중심지로 성장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임. 또한 DMZ 환경-관광벨트는 강원도 평화지역 전역을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됨.



출처 :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사업 기본계획(2018)

- 세부적으로 보면, 철원에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2016~2019), 철원에 공예 태봉국 테마파크(2017~2020) 조성, 화천 백암산 남북물길 조망지구(2013~ 2018), 양구 박수근 미술체험마을(2017~2019), 인제 소양호 빙어체험마을(2017~2020), 고성 해돋이 통일전망타워(2014~ 2018)을 연결하는 사업이 있음.

금강산선(철원~유곡~내금강역) 철도 건설

- 철원~유곡 간 32.5km 철도 건설, 장래 TCR, TSR 연계 교통망 구축, 사업비 6,922억원
- *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2025년) 추가검토대상사업 반영: '16. 6. 27. 확정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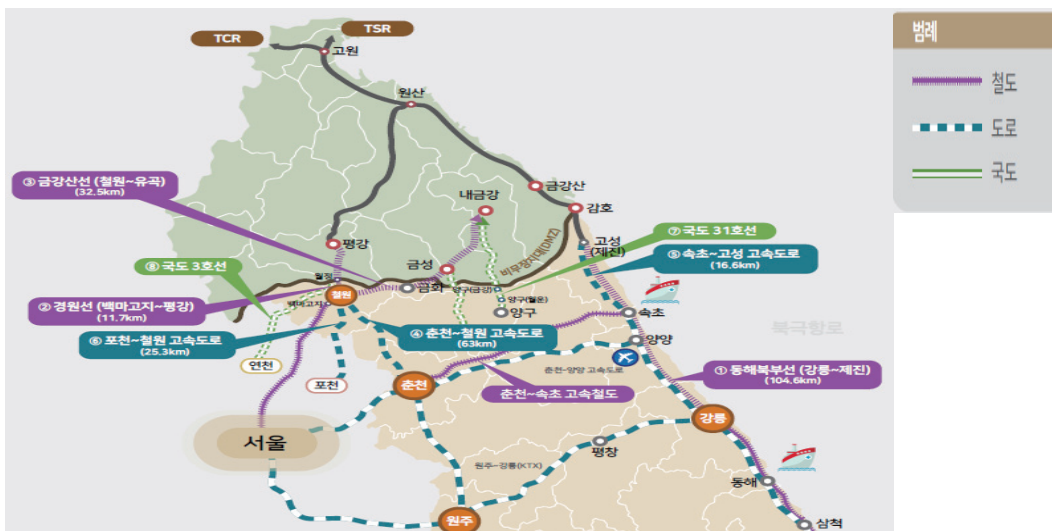
▶ 남북교류와 북방경제시대를 대비한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추진





출처 :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사업 기본계획(2018)

- 신경제지도에 따라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는 고성 지역의 교통 및 관광산업 발달, 인구유입 등의 변화를 불러올 것임.
- 더불어 강원도 전역에 철도 및 도로 건설 계획에 따르면, 특히 철원과 고성은 철도 연결로 광역 교통망은 물론 도내 교통 환경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출처 :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사업 기본계획(2018)

- 강원도는 이러한 계획에 따라 도 평화지역에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중임. 이러한 정책환경은 평화지역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에 매우 유리한 여건임.
- 또한 2017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약칭 지방 분권 법)의 제정에 따라, 강원도 평화지역에 여성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에서 강원도와 기초 지자체의 권한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 위 법에 따르면, 지방분권의 기본이념은 “지방분권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 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고 되어 있음(제1절 7조).
-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법에서는 제2절 15조에서 주민자치를 강조하고 있어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에서 핵심적인 주민참여와 민관협력의 추진방식에 유익한 정책환경을 제공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지방분권법 위 조항 ②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참여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음.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 기존에 해 오던 활동을 강하게 뒷받침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동기 부여 효과를 가질 수 있음.
- 또한 세부적으로는 도의 기능도 변화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의 조성 등 정책추진환경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
- 강원도는 이와 관련하여 평화특별자치도의 위상을 갖기 위해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강원도 평화지역의 여성친화마을 조성에 유리한 여건이자, 이러한 정책의 성주류화를 위해서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음.

제3장

강원도 평화지역의 일반적 특성

1. 일반 지리적 특성
2. 인구사회학적 특성
3.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평화지역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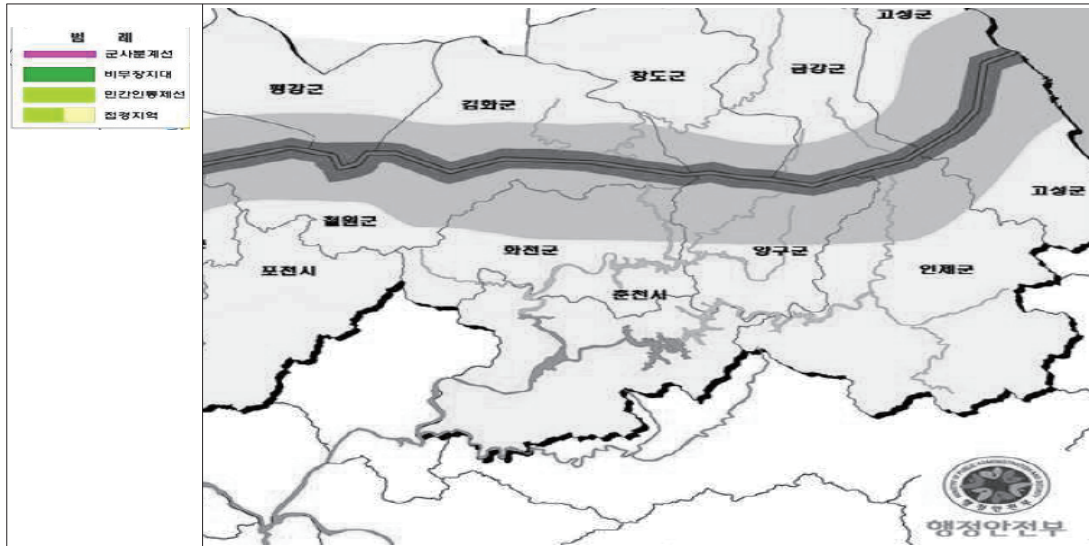
제3장

평화지역의 일반적 특성

1. 일반 지리적 특성

-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평화지역은 구 접경지역으로서 접경지역은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과 민간인 통제선 이남의 지역 중 민간인 통제선과의 거리와 지리적 여건을 기준으로 정하는 시·군,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임.
- 비무장지대는 강원도 고성에서 경기도 파주까지 육상으로 총 248km의 구간임. 비무장지대의 토지이용률은 산림이 가장 넓어 75.5%이고 농경지는 2.8%, 나머지는 초지 및 기타지역임.
- 접경지역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1등급 지역은 개발이 제한됨. 접경지역의 약 22.0%가 1등급 지역에 해당되며, 강원도에서는 인제군에 1등급 지역의 약 52.3%가 분포되어 있음. 접경지역의 1등급과 2등급 지역을 합친 55.6%의 지역이 환경보전에 적합한 토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3등급은 11.9%를 차지함. 3등급 지역 역시 환경보전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접경지발전종합계획, 2011)
- 평화지역은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지역으로 군사시설 보호 및 수도권 정비 등의 목적으로 개발에 제한을 받아 왔으며, 북방이 가로막힌 지역으로서 광역교통망과 생활 인프라 부족으로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겪어 온 곳임.
- 접경지역의 개발 및 제한에 관해서는 「군사시설 및 군사기지 보호법률안」이 있음. 이 법은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계류 중이어서 접경지역의 설정 및 군사기지 보호에 관하여 일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라 강원도 접경지역을 지도로 보면 아래와 같음.



[그림III-1] 강원도 접경지역 지도

출처: 행정안전부 (2011).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p. 3 그림 중 강원도 부분 발췌.

-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 있는 강원도의 평화지역은 강원 영서와 영동의 북부에 위치한 5개군,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을 말함. 도내 평화지역 5개 군은 전국 국토면적의 4.8%를 차지하고, 강원도 18개 시·군 면적의 28.5%를 차지하는 넓은 지역임.
- 강원도 평화지역은 전국 접경지역의 64%에 이르는 지역으로서 면적은 가장 넓지만, 인구밀도가 낮아 평화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에서 주변적인 위치에 있음.
- 세부적으로 보면, 철원은 임야가 약 67%이고, 전답이 약 24%(209.49km²), 대지비율은 1% 정도로 평화지역 중에 전답 비율이 가장 높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임. 전체 4읍 7면으로 구성되어 평화지역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임.
- 화천은 지목별로는 대부분이 임야(84%, 767.4km²)와 전답(6.5%, 59.1km²)이고, 대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0.5%(4.6km²)에 불과함. 전체 1읍 4면으로 구성됨.
- 양구는 대부분이 임야(75.5%, 530.44km²)와 전답(10.6%, 74.57km²)이어서 화천보다는 전답의 크기나 비율이 높음. 대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0.5%(3.66km²)로 전체 1읍 4면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인제는 약 90% 가량이 임야(89.5%, 1,472.5km²)로 산이 가장 많은 지역이고 전답은 4.5%(74.2km²)로 크기는 화천보다 넓음. 대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0.4%(6.4km²)로 대지 비율이 가장 낮으나 대지 면적은 양구나 화천보다 넓음. 전체 1읍 5면으로 구성됨.
- 고성은 상당 부분이 임야(82.6%, 548.89km²)와 전답(8.4%, 56.07km²)으로 구성되어, 평화지역 중에 전답 면적이 가장 좁음. 대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0.9%(5.87km²)로 인제보다 약간 작고 화천과 양구보다는 대지가 좀 더 넓음. 전체 2읍 4면으로 구성됨.
- 이처럼 강원도 평화지역의 토지는 대부분 임야와 전답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지 비율이 낮고 인구 밀도도 낮음. 강원도 평화지역은 타시도 접경지역에 비해 인구 밀도가 특히 낮은 지역임(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 2011).
- 평화지역 면적의 절반 가량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철원군은 전체의 95%, 화천군은 64%, 고성군은 62%가 해당됨.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민간인 출입이 제한되어 농사나 방문 등을 위한 출입을 위해서는 출입증이 있어야 함. 최근 제한은 다소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민통선 안에 가옥은 여전히 드물.
- 평화지역의 개발제한과 민간인 출입통제로 인해 이 지역은 자연생태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 되었음. 산림청 지정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면적의 41.2%가 강원도 5개 군에 소재함(박종필, 2015; 3).
- 평화지역 5개 군은 읍면 간에 거리가 짧게는 차로 수 분에서 길게는 수 십 분까지 떨어져 있음. 이에 지역 내에서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급이 다소 어려워 자동차를 소유하지 못한 주민들은 이동에 제약이 있음.
-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국비 지원이 면적이 아니라 인구에 비례하여 지원되기 때문에 강원도의 평화지역은 국비 예산투입이 적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 왔음(김범수, 2013).
- 국가에서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오고 있음. 1차계획(2011)에서도 접경지역의 생태자원과 세계 유일의 분단지역이라는 상징성을 활용한 “한반도 중심의 생태평화벨트(Eco-Peace Belt) 육성” 계획이 포함되어 사업이 추진되어 왔음. 이를 위해 세부적으로 비무장지대를 국제적 평화거점센터로 육성하고자 하였음.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신성장의 동력으로 한다는 계획이 수립되었음. 하지만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1차 종합계획의 추진은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됨.

- 최근 남북한 평화회담 등 정세변화는 접경지역 전체는 물론 강원도 평화지역에 변화를 불러오고 있음. 강원도는 평화지역의 생태자원 보존과 활용을 통한 발전과 국제 평화 상징지역으로서의 위상 도약을 위한 정책추진을 강화시키고 있음. 중앙정부 차원에서 평화지역 변화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이 접경지역 발전 2차 종합계획에 담길 것으로 보임.

2.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 인구 밀도와 규모 변화

- 2016년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한 강원도청 통계로 평화지역 5개 군(철원, 화천, 인제, 양구, 고성)의 인구는 전체 강원도 인구의 대략 10.42%를 차지함. 성별 구성을 보면 남성은 87,706명 가량, 여성은 75,556 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12,000여 명 더 많음. 비율로 보면 여성인구 비율은 46.2% 정도임. 강원도 전체 인구에서 남성이 더 많고, 평화지역 인구는 특히 더 남초 구조임.
- 통계청 자료에 근거하여 2015년 평화지역 인구규모를 보면 2000년에 비해 감소하였음. 하지만 2010년과 2015년 사이에는 약간 증가를 나타냈음. 하지만 인구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려면 조심스러운 관찰이 필요함. 평화지역을 인구 규모 순으로 보면 철원, 인제, 고성, 화천, 양구 순임.
- 인구밀도를 보면 평화지역 전체의 인구밀도는 36.9%로, 강원도 전체 인구밀도 92.8%의 거의 39% 정도로, 평화지역은 인구밀도가 특히 낮음.
- 평화지역 평균보다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은 철원, 고성이고 화천, 양구, 인제는 평균보다 낮음. 인구의 수로 보면 철원, 고성, 인제, 화천, 양구 순이고, 인구 밀도 순으로 보면 철원, 고성, 양구, 화천, 인제 순임.
- 이처럼 평화지역은 인구가 소규모 저밀도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구체적으로 보면 규모와 밀도 면에서 화천과 양구는 유사하고 나머지 지역은 서로 차이가 있음.

<표III-1> 평화지역 인구규모 및 인구밀도(2016)

(단위: 명, %)

	인구수(명)			인구밀도 (%)
	계	남	여	
강원도 전체	1,566,639	789,251	777,388	92.8
강원도 평화지역	163,262	87,706	75,556	36.9*※
철원	48,699	25,848	22,851	54.8
화천	26,489	14,642	11,847	29.1
양구	24,264	13,004	11,260	34.3
인제	33,061	17,860	15,201	20.1
고성	30,749	16,352	14,397	46.3

출처 : 강원도청 홈페이지 강원도 시군별 세대 및 인구(2016)

※ 평화지역 인구밀도 평균임.

http://stat.kosis.kr/statHtml_host/statHtml.do?orgId=211&tblId=DT_A21&dbUser=NSI_IN_211

<표III-2> 전국, 강원도, 평화지역 인구변화(인구수)(2000-2015년)

(단위: 명, %)

행정 구역별	성별	2000	2005	2010	2015
전국	계	45,985,289	47,041,434	47,990,761	49,705,663
	남자	23,068,181 (50.2%)	23,465,650 (49.9%)	23,840,896 (49.7%)	21,819,839 (49.39%)
	여자	22,917,108 (49.8%)	23,575,784 (50.1%)	24,149,865 (50.3%)	24,885,824 (50.1%)
강원도	계	1,484,536	1,460,770	1,463,650	1,499,734
	남자	746,162 (50.3%)	733,266 (50.2%)	735,075 (50.2%)	758,601 (50.6%)
	여자	738,374 (49.7%)	727,504 (49.8%)	728,575 (49.8%)	741,133 (49.4%)
평화 지역 합계	계	154,723	144,013	139,425	151,382
	남자	78,201 (50.5%)	73,526 (51.1%)	73,562 (52.8%)	81,844 (54.1%)
	여자	76,522 (49.5%)	70,487 (48.9%)	65,863 (47.2%)	69,538 (45.9%)
철원군	계	47,901	43,469	43,109	45,201
	남자	24,283 (50.7%)	21,924 (50.4%)	22,246 (51.6%)	24,194 (53.5%)
	여자	23,618 (49.3%)	21,545 (49.6%)	20,863 (48.4%)	21,007 (46.5%)

40 • 강원도 평화지역 여성친화마을 조성방안

화천군	계	22,726	21,686	22,015	25,075
	남자	11,468 (50.5%)	10,981 (50.6%)	12,422 (56.4%)	14,050 (56.0%)
	여자	11,258 (49.5%)	10,705 (49.4%)	9,593 (43.6%)	11,025 (44.0%)
양구군	계	21,118	19,385	19,252	22,162
	남자	10,666 (50.5%)	10,208 (52.7%)	10,163 (52.8%)	11,897 (53.7%)
	여자	10,452 (49.5%)	9,177 (47.3%)	9,089 (47.2%)	10,265 (46.3%)
인제군	계	30,771	30,424	28,591	30,780
	남자	15,742 (51.2%)	15,681 (51.5%)	15,230 (53.3%)	16,690 (54.2%)
	여자	15,029 (48.8%)	14,743 (48.5%)	13,361 (46.7%)	14,090 (45.8%)
고성군	계	32,207	29,049	26,458	28,164
	남자	16,042 (49.8%)	14,732 (50.7%)	13,501 (51.0%)	15,013 (53.3%)
	여자	16,165 (50.2%)	14,317 (49.3%)	12,957 (49.0%)	13,151 (46.7%)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2000~2015)

통계표 :

주1) 내국인(특별 조사구, 집단 가구(집단 시설 가구 포함) 포함)을 대상으로 집계 (단, 외국인 제외)

주2) 평균연령: $\sum(\text{특정 연령} \times \text{특정 인구 수}) / \text{총인구}$

중위연령: 총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할 때 중앙에 있는 사람의 연령

<표Ⅲ-3> 평화지역 인구변화(비율)(2000년-2015년)

(단위: 명, %)

행정구역별		2000	2005	2010	2015
전국	인구수	45,985,289	47,041,434	47,990,761	49,705,663
	증감률		2.3%	2.0%	3.6%
강원도	인구수	1,484,536	1,460,770	1,463,650	1,499,734
	증감률		-1.6%	0.2%	2.5%
	비율	3.2%	3.1%	3.0%	3.0%
평화지역	인구수	154,723	144,013	139,425	151,382
	증감률		-6.9%	-3.2%	8.6%
	비율	10.4%	9.9%	9.5%	10.1%
철원군	인구수	47,901	43,469	43,109	45,201
	증감률		-9.3%	-0.83%	4.9%
	비율	3.2%	3.0%	2.9%	3.0%
화천군	인구수	22,726	21,686	22,015	25,075
	증감률		-4.6%	1.5%	13.9%
	비율	1.5%	1.5%	1.5%	1.7%

양구군	인구수	21,118	19,385	19,252	22,162
	증감률		-8.2%	-0.7%	15.1%
	비율	1.4%	1.3%	1.3%	1.5%
인제군	인구수	30,771	30,424	28,591	30,780
	증감률		-1.1%	-6.0%	7.7%
	비율	2.1%	2.1%	2.0%	2.1%
고성군	인구수	32,207	29,049	26,458	28,164
	증감률		-9.8%	-8.9%	6.4%
	비율	2.2%	2.0%	1.8%	1.9%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2000~2015).

통계표 : 내국인(특별 조사구, 집단 가구(집단 시설 가구 포함) 포함)을 대상으로 집계 (단, 외국인 제외)

평균연령: $\sum(\text{특정 연령} \times \text{특정 인구 수}) / \text{총인구}$

중위연령: 총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할 때 중앙에 있는 사람의 연령

나. 성별 · 연령대별 인구

- 2016년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할 때, 철원군은 8세 미만 아동 수가 2,974명으로 약 6.7% 가량 되고,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약 19.4%로 나타남. 19세까지 인구비율은 총 18%로 65세 이상 인구비율보다 약간 낮음. 20-64세 연령대는 남성이 훨씬 많고, 65세 이상 인구는 여성이 훨씬 많음.
- 화천군의 인구를 보면 철원군보다 훨씬 작은 규모로 8세 미만은 약 7.5%로 철원군보다 높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약 19%로 철원군보다 약간 비율이 낮음. 19세까지의 인구 비율은 약 17%로 철원군보다 약간 낮음.
- 이에 화천군은 철원군에 비해 8세 미만 인구비율과 20-64세까지의 인구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양구군은 8세 미만 인구 비율은 7.3%, 19세 미만 인구 비율은 19%,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약 18%임.
- 인제군은 8세 미만 아동 비율이 7.8%, 19세까지의 인구 비율은 약 18%,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도 약 18%로 양구와 유사함.
- 고성군은 8세 미만의 아동 비율이 3.9%로 매우 낮음. 19세 이하 인구 비율은 13.5%이고,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약 24%로 평화지역 내에서 가장 심각한 고령사회임.

<표Ⅲ-4> 평화지역 인구규모 및 성별·연령대별 인구

(단위: 명)

연령별	지역	인구(내국인)	남자	여자	성비
합계	철원	44,527	23,706	20,821	113.9
	화천	24,517	13,665	10,852	125.9
	양구	22,111	11,907	10,204	116.7
	인제	30,298	16,390	13,908	117.8
	고성	28,249	15,076	13,173	114.4
8세 미만	철원	2,974	1,531	1,443	106.1
	화천	1,830	905	925	97.8
	양구	1,620	814	806	101.0
	인제	2,367	1,228	1,139	107.8
	고성	1,094	576	518	111.2
8~19세	철원	5,032	2,617	2,415	108.4
	화천	2,314	1,206	1,108	108.8
	양구	2,623	1,319	1,304	101.2
	인제	2,948	1,556	1,392	111.8
	고성	2,721	1,565	1,156	135.4
20~29세	철원	6,218	4,490	1,728	259.8
	화천	4,428	3,364	1,064	316.2
	양구	3,432	2,500	932	268.2
	인제	3,858	2,697	1,161	232.3
	고성	5,171	3,460	1,711	202.2
30~64세	철원	21,651	11,420	10,231	111.6
	화천	11,359	6,302	5,057	124.6
	양구	10,499	5,691	4,808	118.4
	인제	15,723	8,584	7,139	120.2
	고성	12,549	6,745	5,804	116.2
65~84세	철원	7,872	3,430	4,442	77.2
	화천	4,162	1,762	2,400	73.4
	양구	3,547	1,478	2,069	71.4
	인제	4,861	2,169	2,692	80.6
	고성	5,983	2,548	3,435	74.2
85세 이상	철원	780	218	562	38.8
	화천	424	126	298	42.3
	양구	390	105	285	36.8
	인제	541	156	385	40.5
	고성	731	182	549	33.2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2016)

주1) 내국인(특별 조사구, 집단 가구(집단 시설 가구 포함) 포함)을 대상으로 집계 단, 외국인 제외

주2) 평균연령: $\Sigma(\text{특정 연령} \times \text{특정 인구 수}) / \text{총인구}$

중위연령: 총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할 때 중앙에 있는 사람의 연령

다. 성별 · 교육정도별 인구

- 철원군의 인구 특성을 교육 정도별로 살펴봄. 초졸을 제외하고는 모든 학력집단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많음.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은 5.3% 가량이며 여성이 남성의 약 3배 가까이 됨. 전반적으로 여성의 교육 수준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음.
-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소유자는 약 19% 가량 됨. 여성 중에는 4년제 대졸 이상 학력자는 약 12%임.
- 화천군 인구의 교육 정도를 보면 무학력이 6.5%로 철원군보다 무학력자 비율이 높음. 4년제 대졸 이상 학력자 비율은 22%로 철원보다 월등히 높음. 여성 중 대졸 이상 학력자 비율은 14%임. 화천은 철원에 비해 교육에 관심이 많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음.
- 양구군 인구 중 4년제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자 비율은 21%로 매우 높음. 여성 중에서는 16% 가량 되어 화천에 비해 여성 대졸자 비율이 높음.
- 인제군민의 교육 수준을 보면 4년제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자 비율이 23%로 높음. 여성 중 대졸 이상 학력자 비율은 17%로 평화지역 내 다른 군보다 여성 고학력자 비율이 높음.
- 고성군 인구의 교육 정도를 보면 4년제 대학졸업 이상 학력자가 24%로 평화지역 중 대졸자 비율이 가장 높음. 여성 대졸자 비율도 높아 16%로 인제군에 이어 두 번째로 여성 대졸자 비율이 높음.

<표Ⅲ-5> 평화지역 성별 · 교육정도별 인구

(단위: 명, %)

교육정도별		인구(내국인)	남자	여자
내국인(15세이상) 계	철원	39,061	21,025	18,036
	화천	21,798	12,439	9,359
	양구	19,059	10,307	8,752
	인제	26,505	14,486	12,019
	고성	25,687	13,715	11,972
초·중등학교-계	철원	10,910(27.9%)	4,507	6,403
	화천	5,300(24.3%)	2,268	3,032
	양구	4,724(24.8%)	2,093	2,631
	인제	6,913(26.1%)	3,114	3,799
	고성	8,300(32.3%)	3,313	4,987

44 • 강원도 평화지역 여성친화마을 조성방안

고등학교-계	철원	13,794(35.3%)	7,847	5,947
	화천	6,905(31.7%)	4,103	2,802
	양구	6,588(34.6%)	3,787	2,801
	인제	8,413(31.7%)	4,875	3,538
	고성	7,364(28.7%)	4,414	2,950
대학(4년제 미만)-계	철원	5,045(12.9%)	3,162	1,883
	화천	3,333(15.3%)	2,275	1,058
	양구	2,534(13.3%)	1,615	919
	인제	3,557(12.7%)	2,125	1,432
	고성	2,358(9.2%)	1,455	903
대학교(4년제 이상)-계	철원	6,364(16.3%)	4,462	1,902
	화천	4,171(19.1%)	2,975	1,196
	양구	3,391(17.8%)	2,219	1,172
	인제	5,125(19.3%)	3,409	1,716
	고성	5,702(22.2%)	3,929	1,773
대학원(석사이상)-계	철원	897(2.3%)	611	286
	화천	670(3.1%)	527	143
	양구	565(2.9%)	380	182
	인제	1,039(3.9%)	716	323
	고성	470(1.8%)	376	94
안받았음(미취학 포함)	철원	2,051(5.3%)	436	1,615
	화천	1,419(6.5%)	291	1,128
	양구	1,260(6.6%)	213	1,047
	인제	1,458(5.5%)	247	1,211
	고성	1,493(5.8%)	228	1,265

출처: KOSIS(통계청, 인구총조사),(2015)

통계표 : 주1) 15세 이상 내국인“

-일반가구, 집단가구, 집단시설가구, 특별조사구(외국인 제외)“

라. 피부양 인구 규모

- 평화지역의 피부양 인구 규모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령별로 구분하여 봄. 학령 전 아동기인 8세 미만 인구비율을 보면 전국 평균이 7.1%인데 비해 강원도는 그보다 낮은 6.2%임. 평화지역은 6.6%로서 전국 평균보다 낮으나 강원도보다 높음.
- 세부적으로 보면, 고성을 제외한 평화지역의 8세 미만 인구비율은 강원도보다 훨씬 높고, 특히 화천, 양구, 인제는 전국 평균보다도 높음. 고성은 8세 미만 인구비율이 3.9%로 매우 낮음.
-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보면, 전국은 13.6%로 거의 고령사회(aged society) 기준인 14%에 육박하고 있음. 강원도는 17.1%로 이미 고령사회 기준을 훨씬 넘었음. 강원도 평화지역 모두 고령사회로 전국은 물론 강원도보다 65세 이상 인구비

율이 높아 더욱 심각한 상황임. 특히 고성은 그 비율이 23.8%로 기준이 20%인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에 해당함.

- 8세 미만 인구비율이 높은 상황은 인구 평균 연령을 낮출 수 있지만,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현실에서는 부양해야 하는 인구가 많음을 의미함.

<표Ⅲ-6> 강원도 및 평화지역 연령대별 인구(2016년, 내국인)

(단위: %)

연령별	전국	강원도 인구(비율)	평화지역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8세 미만	7.1	6.2	6.6	6.7	7.5	7.3	7.8	3.9
8~19세	12.6	12.5	10.4	11.3	9.4	11.9	9.7	9.6
20~29세	13.0	12.3	15.4	14.0	18.1	15.5	12.7	18.3
30~64세	53.7	52.0	47.9	49.0	46.3	47.5	51.9	44.4
65~84세	12.5	15.5	17.7	17.7	17.0	16.0	16.0	21.2
85세 이상	1.1	1.6	1.9	1.8	1.7	1.7	1.8	2.6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2016)

주: 내국인(특별 조사구, 집단 가구(집단 시설 가구 포함) 포함)를 대상으로 집계. 단, 외국인 제외

- 이에 피부양인구의 수와 비율을 파악해 봄. 피부양인구는 15세 미만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로 구성됨.
- 전국 평균을 보면 15세 미만인 소년 피부양인구 비율과 65세 이상인 노년 피부양인구비율은 유사하고 그 둘을 합친 피부양인구비율은 37.3%임. 강원도는 소년 피부양 인구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고, 노년피부양 인구비율은 42.1%로 전국 평균보다 5%p 가까이 높음.
- 이에 비해 평화지역은 소년 피부양인구비율이 고성을 제외하고는 강원도평균과는 달리 전국평균보다 높음. 노년 피부양인구비율 역시 전국은 물론 강원도보다 모두 훨씬 높음.
- 이처럼 강원도 평화지역은 전국 및 강원도보다 피부양 인구비율이 훨씬 높아 부양부담이 훨씬 높음. 특히 철원은 48.1%로 거의 인구의 절반이 피부양인구로 인구 1명이 다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구조임.
- 높은 피부양 인구비율은 단지 경제적인 부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 인프라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 아동과 노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안전과 배려에 대한 정책수요가 더 많음을 의미함.

<표Ⅲ-7> 피부양인구 및 부양인구(전국, 강원도, 평화지역)(2016)

(단위: 명, %)

	전국	강원도	평화지역					
			계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소년피부양인구 (15세 미만)	6,768,338 (18.6%)	187,142 (17.7%)	18,301 (17.9%)	5,804 (19.3%)	3,136 (18.7%)	2,935 (19.3%)	4,173 (20.1%)	2,253 (11.7%)
노인피부양인구 (65세 이상)	3,775,118 (18.7)	257,668 (24.4)	29,291 (28.7%)	8,652 (28.8%)	4,586 (27.3%)	3,937 (25.8%)	5,402 (26.1%)	6,714 (34.8%)
부양인구 (15~64세)	36,312,340 (37.3)	1,057,577 (42.1)	102,110 (46.6%)	30,071 (48.1%)	16,795 (46.0%)	15,239 (45.1%)	20,723 (46.2%)	19,282 (46.5%)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6)

통계표 :

주1) 내국인(특별 조사구, 집단 가구(집단 시설 가구 포함) 포함)를 대상으로 집계 (단, 외국인 제외)

주2) 평균연령: $\Sigma(\text{특정 연령} \times \text{특정 인구 수}) / \text{총인구}$

중위연령: 총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할 때 중앙에 있는 사람의 연령

주3) 파주시 진동면(3120021)의 (인구/가구/주택)은 파주시 군내면(3120038)에 포함

주4) 개인정보 보호와 자료 노출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5미만 자료는 x로 표기함

마. 출생, 사망, 혼인, 전출·전입 인구

- 인구규모가 작고 밀도도 낮은 평화지역은 지역 소멸에 대한 우려를 낳음. 하지만 출생률이 높고 8세 미만 인구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속단하기보다 장기적인 전망을 해 보는 것이 필요함.
- 이에 저출산 현상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통계를 제시함. 그것은 출생, 사망, 혼인 및 이혼 통계임. 하지만 전출 및 전입 등 인구이동도 중요함. 평화지역은 군부대로 인해 전입 및 전출 인구가 많으며, 특히 남성 이동이 많음.

1) 평화지역 상황

(1) 철원

- 철원군 인구의 자연증가를 보기 위해 출산율과 사망률을 살펴봄. 출생건수보다 사망건수가 높아 자연증가율은 최근 2016년의 경우 음의 값으로 나타남. 이것은 고령인구 비율이 높기 때문임. 이에 인구의 자연감소가 나타나고 있음.

<표III-8> 철원군 출생률 및 사망률

(단위: 명)

년도	출생건수 (명)	조출생률 (천명당)	사망건수 (명)	조사망률 (천명당)	자연증가건 수 (명)	자연증가율 (천명당)
2016	377	7.9	405	8.4	-28	-0.6
2015	402	8.4	366	7.7	36	0.8
2014	433	9.2	410	8.7	23	0.5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4~2016)

통계표 : 이 통계표는 수치가 확정되는 시점에 공개됨. 출생(다음해 8월), 사망(다음해 9월),

□ 출생 및 사망통계

- 총 출생아수와 총 사망자수는 국내 거주 출생아수, 사망자수만을 집계

- 지연신고된 자료 집계 및 사망률, 출산율 산출시 반영

- 출생통계(1981~1996) 및 사망통계(1983~1996)의 자료는 10년간의 지연신고 누적분이 포함된 결과이며, 이후 연도는 동일한 기준으로 시계열을 비교하기 위해 해당연도 다음해 4월 신고분까지 집계한 결과임

- 철원군의 혼인과 이혼은 인구 천 명당 건수로 보는 조혼인율과 조이혼율에서 조혼인율은 2015-2016년은 약간 높아지다가 2017년에 다시 낮아졌음. 조이혼율은 비슷하나 2014년에 비해 낮아짐. 건수도 유사해서 혼인율이 높아지는 변화는 관찰되지 않음.

<표III-9> 철원군 혼인 및 이혼

(단위: 건, 명)

년도	혼인건수 (건)	조혼인율 (천명당)	이혼건수 (건)	조이혼율 (천명당)
2017	272	5.8	96	2.0
2016	295	6.1	88	1.8
2015	289	6.0	106	2.2
2014	274	5.8	114	2.4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4~2017)

통계표 :

○ 이 통계표는 수치가 확정되는 시점에 공개됨. 혼인·이혼(다음해 3월)

□ 혼인 및 이혼통계

- 신고기준 집계

- 남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행정구역 집계

- 1998년 이후 해외 주소 자료 제외

- 철원군의 인구이동을 보면 2016년부터 전출인구가 전입인구보다 많아 인구유출이 많음. 남성은 여성에 비해 전출자 수 및 전입자 수 모두 많지만, 전출자 수가 훨씬 많아 남성 인구유출이 더 많음. 2007년과 2017년을 비교하면 순이동의 수가 유사함. 남성은 10년 전에 비해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많이 늘었고 여성은 그 규모가 약간 줄었음.

<표Ⅲ-10> 철원군 성별 이동자수 (전입 및 전출인구 현황)

(단위: 명)

성별	년도	총전입 (명)	총전출 (명)	순이동 (명)
계	2018. 02	462	588	-126
	2017	4,951	5,720	-769
	2016	5,072	5,842	-770
	2015	7,393	6,234	1,159
	2014	5,595	5,507	88
	2007	6,016	6,793	-777
남자	2018. 02	231	308	-77
	2017	2,862	3,341	-479
	2016	2,903	3,399	-496
	2015	4,700	3,408	1,292
	2014	3,143	2,864	279
	2007	3,051	3,505	-454
여자	2018. 02	231	280	-49
	2017	2,089	2,379	-290
	2016	2,169	2,443	-274
	2015	2,693	2,826	-133
	2014	2,452	2,643	-191
	2007	2,965	3,288	-323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항목: 순이동=전입-전출

(2) 화천

- 화천군 인구의 자연증가율은 양의 값으로 조금씩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출생건수가 사망건수보다 많고 조출생률도 조사망률보다 높음.
- 자연증가가 양의 값으로 나타나는 것은 반가운 일이나 2014년과 2015년에 비해 2016년은 증가율이 크게 줄었음. 내용적으로 보면 출생건수가 약간 줄고 사망건수는 약간 늘었음.

<표Ⅲ-11> 화천군 출생률 및 사망률

(단위: 명)

년도	출생건수 (명)	조출생률 (천명당)	사망건수 (명)	조사망률 (천명당)	자연증가건 수 (명)	자연증가율 (천명당)
2016	221	8.4	201	7.6	20	0.8
2015	267	9.9	189	7.0	78	2.9
2014	248	9.6	176	6.8	72	2.8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4~2016)

○ 화천군의 혼인과 이혼 건수를 보면 2014년에 비해 2017년에 모두 줄었음.

<표Ⅲ-12> 화천군 혼인 및 이혼

(단위: 건, 명)

년도	혼인건수 (건)	조혼인율 (천명당)	이혼건수 (건)	조이혼율 (천명당)
2017	196	7.5	49	1.9
2016	190	7.2	69	2.6
2015	236	8.8	46	1.7
2014	212	8.2	57	2.2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4~2017)

○ 화천군 인구이동을 보면 총전입보다 전출이 많아 인구유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2007년과 2017년을 비교하면 전출 규모가 절반 규모로 줄었음. 성별로 보면 남성은 전출이 더 늘었고, 여성은 전출이 줄어 순이동 규모가 거의 11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음.

<표Ⅲ-13> 화천군 성별 이동자수 (전입 및 전출인구 현황)

(단위: 명)

성별	년도	총전입 (명)	총전출 (명)	순이동 (명)
계	2018. 02	315	492	-177
	2017	4,338	4,594	-256
	2016	4,095	4,877	-782
	2015	4,513	4,718	-205
	2014	6,193	4,215	1,978
	2007	4,056	4,578	-522

남자	2018. 02	155	243	-88
	2017	2,517	2,751	-234
	2016	2,372	2,968	-596
	2015	2,750	2,771	-21
	2014	3,994	2,370	1,624
	2007	2,265	2,455	-190
여자	2018. 02	160	249	-89
	2017	1,821	1,843	-22
	2016	1,723	1,909	-186
	2015	1,763	1,947	-184
	2014	2,199	1,845	354
	2007	1,791	2,123	-332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항목: 순이동=전입-전출

(3) 양구

- 양구군의 인구 자연증가를 보면 다른 지역보다 자연증가율이 높는데, 조출생률이 조사망률보다 월등히 높음.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출생건수는 비슷하나 사망건수가 약간 줄었기 때문임.

<표Ⅲ-14> 양구군 출생률 및 사망률

(단위: 명)

년도	출생건수 (명)	조출생률 (천명당)	사망건수 (명)	조사망률 (천명당)	자연증가건 수 (명)	자연증가율 (천명당)
2016	208	8.7	167	7.0	41	1.7
2015	228	9.6	203	8.5	25	1.0
2014	208	8.8	175	7.4	33	1.4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4~2016)

- 양구군의 혼인과 이혼을 보면 조혼인율이 2014년에 비해 2017년에 약간 더 높음. 혼인건수도 약간 더 많아졌음. 이에 비해 이혼건수나 이혼율 모두 약간 낮아져 결혼 안정성이 조금 높아졌음.

<표Ⅲ-15> 양구군 혼인 및 이혼

(단위: 건, 명)

년도	혼인건수 (건)	조혼인율 (천명당)	이혼건수 (건)	조이혼율 (천명당)
2017	172	7.2	44	1.9
2016	168	7.0	48	2.0
2015	185	7.8	47	2.0
2014	156	6.6	57	2.4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4~2017)

- 양구군의 전입 및 전출 인구를 보면 2016년 이래 전출인구가 더 많아 인구유출이 되고 있음. 특히 여성인구는 2014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음.

<표Ⅲ-16> 양구군 성별 이동자수 (전입 및 전출인구 현황)

(단위: 명)

성별	년도	총전입 (명)	총전출 (명)	순이동 (명)
계	2018. 02	284	443	-159
	2017	3,204	3,409	-205
	2016	3,242	3,384	-142
	2015	3,478	3,302	176
	2014	3,379	3,124	255
	2007	3,624	3,564	60
남자	2018. 02	146	247	-101
	2017	1,860	2,000	-140
	2016	1,897	1,930	-33
	2015	2,079	1,878	201
	2014	1,904	1,720	184
	2007	2,063	1,927	136
여자	2018. 02	138	196	-58
	2017	1,344	1,409	-65
	2016	1,345	1,454	-109
	2015	1,399	1,424	-25
	2014	1,475	1,404	71
	2007	1,561	1,637	-76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항목: 순이동=전입-전출

(4) 인제

- 인제군 인구의 자연증가율을 보면 조출생률이 조사망률을 크게 앞서며 2014년부터 최근 통계인 2016년까지 줄곧 양의 값으로 인구가 자연증가 해 왔음.

<표Ⅲ-17> 인제군 출생률 및 사망률

(단위: 명)

년도	출생건수 (명)	조출생률 (천명당)	사망건수 (명)	조사망률 (천명당)	자연증가건 수 (명)	자연증가율 (천명당)
2016	335	10.2	256	7.8	79	2.4
2015	379	11.6	272	8.3	107	3.3
2014	322	10.0	241	7.5	81	2.5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4~2016)

-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인제군의 혼인건수와 조혼인율은 감소세임. 2014년에 비해 2017년에 이혼수와 조이혼율도 감소했음.

<표Ⅲ-18> 인제군 혼인 및 이혼

(단위: 건, 명)

년도	혼인건수 (건)	조혼인율 (천명당)	이혼건수 (건)	조이혼율 (천명당)
2017	210	6.5	71	2.2
2016	232	7.1	81	2.5
2015	246	7.5	62	1.9
2014	235	7.3	90	2.8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4~2017)

- 인제군의 인구이동을 보면 인구가 유출되고 있으나 2007년에 비해 2017년에는 그 규모가 훨씬 작음. 인구유출 규모는 남녀 모두 줄었지만 여성의 감소 폭이 더욱 큼.

<표Ⅲ-19> 인제군 성별 이동자수 (전입 및 전출인구 현황)

(단위: 명)

성별	년도	총전입 (명)	총전출 (명)	순이동 (명)
계	2018. 02	433	528	-95
	2017	4,400	4,618	-218

	2016	4,022	4,647	-625
	2015	5,264	4,608	656
	2014	4,403	4,534	-131
	2007	4,739	5,323	-584
남자	2018. 02	237	286	-49
	2017	2,534	2,656	-122
	2016	2,243	2,612	-369
	2015	3,288	2,583	705
	2014	2,379	2,464	-85
	2007	2,562	2,772	-210
여자	2018. 02	196	242	-46
	2017	1,866	1,962	-96
	2016	1,779	2,035	-256
	2015	1,976	2,025	-49
	2014	2,024	2,070	-46
	2007	2,177	2,551	-374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항목: 순이동=전입-전출

(5) 고성

- 고성군 인구의 자연증가를 보면 조사망률이 조출생률을 크게 앞지르는 사회임. 이에 인구는 감소세를 나타내는데 그 비율 또한 -5.3으로 매우 큼. 이러한 현상은 고성군이 평화지역 다른 군에 비해 노인인구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표Ⅲ-20> 고성군 출생률 및 사망률

(단위: 명)

년도	출생건수 (명)	조출생률 (천명당)	사망건수 (명)	조사망률 (천명당)	자연증가건 수 (명)	자연증가율 (천명당)
2016	147	4.9	304	10.2	-157	-5.3
2015	148	4.9	314	10.5	-166	-5.5
2014	158	5.2	281	9.3	-123	-4.1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4~2016)

- 혼인과 이혼을 보면 고성군은 혼인건수와 조혼인율, 이혼건수와 조이혼율 모두 줄고 있음. 이는 인구감소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표Ⅲ-21> 고성군 혼인 및 이혼

(단위: 건, 명)

년도	혼인건수 (건)	조혼인율 (천명당)	이혼건수 (건)	조이혼율 (천명당)
2017	137	4.6	54	1.8
2016	178	6.0	68	2.3
2015	171	5.7	71	2.4
2014	149	4.9	85	2.8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4~2017)

- 고성군의 인구이동을 보면 최근 2-3년간 전입인구가 전출인구보다 약간 많은 상황임. 여성의 인구유출 감소 폭이 남성에 비해 매우 큼.

<표Ⅲ-22> 고성군 성별 이동자수 (전입 및 전출인구 현황)

(단위: 명)

성별	년도	총전입 (명)	총전출 (명)	순이동 (명)
계	2018. 02	319	517	-198
	2017	5,540	5,435	105
	2016	5,011	4,816	195
	2015	4,803	4,862	-59
	2014	4,192	4,200	-8
	2007	3,752	4,604	-852
남자	2018. 02	173	276	-103
	2017	3,094	3,045	49
	2016	2,770	2,755	15
	2015	2,815	2,872	-57
	2014	2,447	2,434	13
	2007	2,027	2,393	-366
여자	2018. 02	146	241	-95
	2017	2,446	2,390	56
	2016	2,241	2,061	180
	2015	1,988	1,990	-2
	2014	1,745	1,766	-21
	2007	1,725	2,211	-486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항목: 순이동=전입-전출

2) 강원도와의 비교 : 전출전입 인구, 결혼율, 출산율

- 평화지역의 조출생률은 전국 및 강원도보다 약간 높으나(고성 제외) 조사망률이 전국보다는 매우 높고 강원도보다도 약간 높은 상황임. 조출생률이 높음에도 조사망률이 높아 인구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음.
- 평화지역의 조출생률이 타지역에 비해 높다는 사실은 돌봄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함.

<표Ⅲ-23> 전국 및 강원도 출생률과 사망률

(단위: 명)

	년도	출생아수 (명)	조출생률 (천명당)	사망자수 (명)	조사망률 (천명당)	자연증가 건수 (명)	자연증가율 (천명당)
전국	2017(잠정치)	357,700	7.0	285,600	5.6	72,000	1.4
	2016	406,243	7.9	280,827	5.5	125	-
	2015	438,420	8.6	275,895	5.4	162,525	-
	2014	435,435	8.6	267,692	5.3	167,743	-
강원도	2017(잠정치)	9,000	5.8	11,500	7.5	-2,500	-1.7
	2016	10,058	6.5	11,437	7.4	-1,379	-
	2015	10,929	7.1	11,301	7.4	-372	-
	2014	10,662	7.0	11,004	7.2	-342	-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4~2017)

- 2016년을 기준으로 전국 및 강원도 전체, 평화지역 5개 군의 출생률과 조출생률을 비교하면 전국은 7.0, 강원도 6.5, 평화지역 5개 군 평균은 8.0으로 평화지역의 출생률이 단연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표Ⅲ-24> 전국, 강원도, 평화지역 출산율 및 조출생률(2016)

(단위: 명)

	전국	강원도	평화지역					
			계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출생아수 (명)	406,243	10,058	1,288	377	221	208	335	147
조출생률 (천명당)	7.0	6.5	8.0	7.9	8.4	8.7	10.2	4.9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4~2017)

- 혼인 및 이혼에서도 전국 및 강원도에 비해 평화지역은 조혼인율이 높고, 조이혼율이 낮아 결혼이 타지역에 비해 안정적임.

<표Ⅲ-25> 전국 및 강원도 혼인 및 이혼(2014-2017)

(단위: 건, 명)

년도	전국				강원도			
	혼인건수	조혼인율	이혼건수	조이혼율	혼인건수 (건)	조혼인율 (천명당)	이혼건수 (건)	조이혼율 (천명당)
2017	264,455	5.2	106,032	2.1	7,295	4.7	3,263	2.1
2016	281,635	5.5	107,328	2.1	7,468	4.9	3,482	2.3
2015	302,828	5.9	109,153	2.1	7,876	5.1	3,484	2.3
2014	305,507	6.0	115,510	2.3	7,785	5.1	3,630	2.4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4~2017). 2017년은 잠정치.

<표Ⅲ-26> 평화지역 혼인 및 이혼

(단위: 건, 명)

지역		2014	2015	2016	2017
철원군	혼인건수 (건)	274	289	295	272
	조혼인율 (천명당)	5.8	6.0	6.1	5.8
	이혼건수 (건)	114	106	88	96
	조이혼율 (천명당)	2.4	2.2	1.8	2.0
화천군	혼인건수 (건)	212	236	190	196
	조혼인율 (천명당)	8.2	8.8	7.2	7.5
	이혼건수 (건)	57	46	69	49
	조이혼율 (천명당)	2.2	1.7	2.6	1.9
양구군	혼인건수 (건)	156	185	168	172
	조혼인율 (천명당)	6.6	7.8	7.0	7.2
	이혼건수 (건)	57	47	48	44
	조이혼율 (천명당)	2.4	2.0	2.0	1.9
인제군	혼인건수 (건)	235	246	232	210
	조혼인율 (천명당)	7.3	7.5	7.1	6.5
	이혼건수 (건)	90	62	81	71
	조이혼율 (천명당)	2.8	1.9	2.5	2.2
고성군	혼인건수 (건)	149	171	178	137
	조혼인율 (천명당)	4.9	5.7	6.0	4.6
	이혼건수 (건)	85	71	68	54
	조이혼율 (천명당)	2.8	2.4	2.3	1.8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4~2017)

- 이처럼 강원도 평화지역은 인구의 자연증가 면에서나 인구이동의 면에서 모두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그 감소 폭이 약간 줄고 있음.
- 조혼인율과 조출생률이 전국 및 강원도보다 높아 신혼부부 등 젊은 부부를 위한 임신·출산 및 양육 관련 서비스 수요가 상대적으로 클 수 있음.
- 이 지역의 젊은 인구는 군이동에 따라 이동하는 단기 거주층이므로 이들 인구를 위해 인프라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시각은 현재 주민의 실질적 정책수요보다는 정주민구 규모증가에만 초점을 둔 접근임.
- 인간의 지리적 이동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사회에서 정주의 개념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현존하는 정책 수요에 대응하는 서비스가 필요함.

바. 노인 1인가구 및 다문화가족

- 여성친화마을 조성은 다양한 가구 및 가족 형태에 있는 주민들의 정책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우리 사회는 점차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평화지역에는 강원도 전체 1인가구의 12.5%가 분포해 있음. 특히 평화지역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이 높은 지역으로서 노인 1인 가구 비율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표Ⅲ-27> 전국, 강원도, 평화지역 1인가구수(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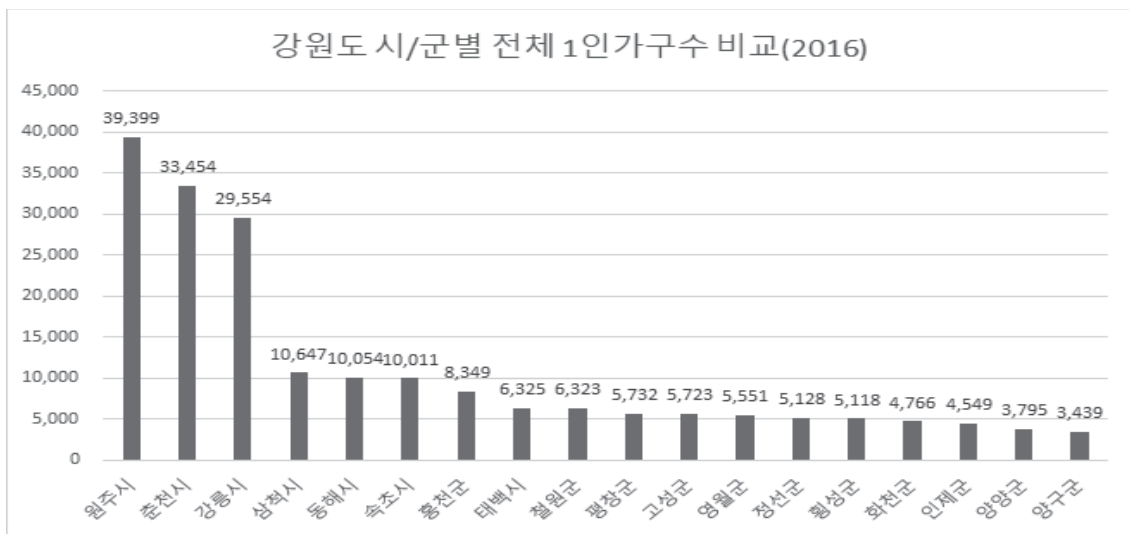
(단위: 개, %)

분류		가구수	비율(%)
전국		5,397,615	-
강원도		197,917	100.0 %
평화지역	소계	24,800	12.5%
	철원군	6,323	3.2%
	화천군	4,766	2.4%
	양구군	3,439	1.7%
	인제군	4,549	2.3%
	고성군	5,723	2.9%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4~2017)

- 전국과 강원도의 1인가구 통계를 가구주의 성별 및 연령대별(20세 미만, 20-39세, 40-64세, 65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봄. 성별로 보면 1인 가구는 전국은 여성 가구주 가구가 약간 많으나 강원도는 남성 1인가구가 더 많음.

- 강원도의 1인 가구 비율 중 여성가구주 비율이 낮은 것은 강원도가 여성 정주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이어서 약간 남초 인구구조인 것과 연관된 것으로 보임.
- 전국적으로 남성 1인 가구는 20-64세 연령 구간에 걸쳐 있으나, 여성 1인 가구는 40세 이상 연령층에 몰려 있음. 강원도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뚜렷함. 전국과 강원도의 1인 가구 연령대별 분포의 차이는 고령인구는 여성이 더 많은데 강원도가 이러한 고령인구가 전국보다 많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됨.



[그림III-2] 강원도 시군별 1인가구수 (2016)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4~2017)

- 평화지역의 고령인구 중 노인1인가구 비율을 보면 평화지역 중 화천과 인제는 노인 중 홀로 사는 노인인구 비율이 20~25%에 이르고, 철원, 양구, 고성은 상대적으로 독거노인 비율이 낮아 15% 이내에 속하는 지역으로 나타남(김승희, 2014: 169).
- 평화지역의 노인1인가구 규모를 보면 2000년에는 고성군이 가장 많았으나 2016년에는 철원군이 더 많아졌음. 증가율로 보면 철원군의 노인 1인가구는 16년 사이에 259.2% 증가했음. 고성군의 증가율은 가장 낮아 174.0%의 증가를 보였음. 그 외 지역은 모두 200% 이상으로 16년 사이에 노인 1인가구 비율이 2배 이상인 경우임.

- 강원도 전체의 노인1인가구 증가율이 같은 시기에 232% 가량 되므로 철원은 강원도 평균보다 증가율이 높고, 평화지역 내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은 강원도 평균보다는 증가율이 낮음.

<표Ⅲ-28> 강원도 및 평화지역 노년 1인가구수 현황

(단위: 명, %)

분류	2,000년	2,016년	증가수	증가율(%)	
강원도	23,733	55,212	31,479	232.6	
평화지역	소계	3,027	6,443	3,416	212.9
	철원군	677	1,755	1,078	259.2
	화천군	474	1,032	558	217.7
	양구군	381	794	413	208.4
	인제군	548	1,214	666	221.5
	고성군	947	1,648	701	174.0

출처: 국가통계포털, 인구총조사(2000,2016)

- 여성 내부도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여성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령, 사회계층 등에 따라 다양한 여성들의 삶을 고려해야 함. 결혼이주 여성은 한국여성 정책에서 민족(ethnicity)을 고려해야 할 필요를 제기함.
- 이에 평화지역의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 현황을 살펴봄. 이주의 여성화라고 할 만큼 여성의 지구적 이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구적 계급체계 속에서 이주여성이 최하위를 차지한다는 데에 연구자들이 주목하고 있음(파레냐스, 2009). 이에 결혼이주자를 위한 정책은 여성친화적 시각을 필요로 함.
- 2016년을 기준으로 볼 때 강원도에는 총 6,700여 명의 결혼이주자가 있고 그 중 절반 가량은 혼인귀화자이며 절반은 아직 그 이전의 상태에 있는 이주자들임.
- 평화지역 내에는 2016년 현재 총 893명의 결혼이주자가 있고, 그 중 여성이 869명으로 대부분이 여성임. 강원도 전체 결혼이주여성 중에 평화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3.9%로 그 비율은 작은 편임. 하지만 이것은 평화지역 전체 인구수가 작은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이해됨.
- 평화지역 중에서 결혼이주 여성이 가장 많은 지역은 철원이고, 그 다음은 고성임. 국제결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들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정책이 관심을 둘 필요가 있음.

<표Ⅲ-29> 강원도 시·군별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 현황(2016)

(단위: 명)

구분	합계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강원도	6,768	517	6,251	3,547	265	3,282	3,221	252	2,969
평화지역	893	-	869	476	-	467	417	-	402
철원군	256	-	249	148	-	145	108	-	104
화천군	125	-	124	68	-	68	57	-	56
양구군	171	-	167	106	-	104	65	-	63
인제군	178	-	173	87	-	86	91	-	87
고성군	163	-	156	67	-	64	96	-	92

자료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2016.

- 현재 평화지역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센터의 통합센터가 모두 운영 중임. 결혼이주 여성들이 이러한 시설 외의 다른 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함.

3.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평화지역 특성

- 여성가족부의 체크리스트에 따르면 이 항에서는 산업구조 및 시설 등에 관한 것임. 본 연구에서는 이 절에서 평화지역의 산업과 재정 여건을 살펴보고자 함. 재정 여건이 평화지역의 오랫동안의 저발전과 불이익을 대변해 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임.
- 또한 강원도 평화지역은 농산촌지역으로서 관내 대중교통망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이 점은 도시 중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모델과는 다른 여성친화마을 조성방안을 필요로 함.
- 또한 평화지역은 군사적 상황으로 인해 북방이 막혀 있는 지역으로서 광역교통망이 발달하지 않은 고립된 지역임. 이에 교통 발달이 요구되고, DMZ 등 생태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이라는 특성이 있음.

가. 평화지역의 주요산업

- 평화지역의 주요산업을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전국 및 강원도의 상황을 봄. 자영업자 및 자영업자와 가족이 종사하는 사업체 수와 종사자, 그리고 공무원 수는 제외하였음.
- 전국의 산업을 살펴보면 사업체 수로는 도매 및 소매업이 가장 많고, 숙박 및 음식점업, 제조업의 순임. 종사자수로는 제조업이 가장 많고,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순임.
- 남성 종사자의 경우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건설업 순으로 많이 분포하고, 여성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도소매업, 제조업 순으로 많이 종사하고 있음.
- 강원도의 사업체를 보면 사업체수가 가장 많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순으로 전국 평균과는 달리 제조업 비율이 낮음.
- 강원도의 성별 종사자수로 보면 남성의 경우 종사자가 가장 많은 산업은 건설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순임. 이 순서 역시 전국의 상황과 달라 건설업의 비중이 큼.
- 강원도 여성의 경우에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도소매업의 순으로, 전국에 비해 숙박 및 음식점업의 비중이 크고 제조업의 비중이 여성에게서 특히 작은 것으로 나타남.
- 철원군과 고성군은 전체 종사자 수에서 평화지역 내 다른 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조업 비중이 크고 강원도 전체와 비교해도 그 비율이 약간 높음. 이러한 이유로 철원과 고성군은 여성 종사자수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그 외에 화천, 양구, 인제는 여성의 경우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분야에 몰려 있는데 구체적인 순위는 지역간 다소 다름. 여성들은 가사노동과 유사한 돌봄 노동 분야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가 많은데 이 분야는 고된 노동에 저임인 경우가 많아 여성들의 고용상의 지위가 낮음을 미루어 알 수 있음.

<표Ⅲ-30> 전국, 강원도, 평화지역 종사자수 기준 1, 2, 3위 산업

(단위: %)

행정구역별	성별	1순위	2순위	3순위
전국	계	제조업(22.7%)	도매 및 소매업(14.0%)	제조업(14.8%)
	남자	제조업(28.5%)	도매 및 소매업(13.2%)	건설업(11.1%)
	여자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7.0%)	도매 및 소매업(15.2%)	제조업(14.3%)
강원도	계	숙박 및 음식점업(13.6%)	도매 및 소매업(13.5%)	제조업(12.2%)
	남자	건설업(17.7%)	제조업(14.0%)	도매 및 소매업(12.9%)
	여자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0.1%)	숙박 및 음식점업(19.7%)	도매 및 소매업(14.3%)
철원군	계	보건·사회복지 (16.4%)	건설업 (15.1%)	제조업 (13.8%)
	남자	건설업 (24.2%)	제조업 (15.1%)	도매및소매업 (13.7%)
	여자	보건·사회복지 (29.3%)	숙박및음식점업 (19.6%)	제조업 (12.2%)
화천군	계	건설업 (21.7%)	숙박및음식점업 (14.2%)	도매및소매업 (11.7%)
	남자	건설업 (32.9%)	도매및소매업 (10.6%)	제조업 (9.7%)
	여자	숙박및음식점업 (23.2%)	보건·사회복지 (21.4%)	도매및소매업 (13.3%)
양구군	계	숙박및음식점업 (17.3%)	건설업 (16.8%)	도매및소매업 (12.9%)
	남자	건설업 (26.7%)	도매및소매업 (13.6%)	제조업 (13.0%)
	여자	숙박및음식점업 (27.6%)	보건·사회복지 (23.4%)	도매및소매업 (12.0%)
인제군	계	건설업 (17.3%)	도매및소매업 (15.9%)	숙박및음식점업 (14.4%)
	남자	건설업 (26.2%)	도매및소매업 (14.1%)	제조업 (11.1%)
	여자	숙박및음식점업 (24.2%)	보건·사회복지 (20.5%)	도매및소매업 (18.5%)
고성군	계	숙박및음식점업 (22.5%)	제조업 (13.2%)	건설업 (12.8%)
	남자	건설업 (20.7%)	숙박및음식점업 (17.5%)	제조업 (12.8%)
	여자	숙박및음식점업 (28.9%)	보건·사회복지 (17.1%)	제조업 (13.7%)

출처: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현황 (2015년)을 기초로 계산함.

통계 작성대상 범위: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자료 중 자영업자 또는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로만 구성된 사업체, 공무원 재직기관을 제외하여 작성

(상용근로자 또는 임시 및 일용근로자 또는 기타 종사자가 1인 이상인 사업체를 집계)

- 재정자립도 산식은 이러함. (지방세 + 세외 수입) × 100 / 일반회계 예산규모
- 재정자립도를 볼 때 강원도는 2015년에는 전국 평균의 약 절반 정도였으나 2017년으로 올수록 다소 개선되었음.
-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자료를 보면, 평화지역의 재정자립도는 강원도의 약 절반 정도 되고 양구가 가장 높음. 양구, 인제, 고성은 재정자립도가 개선되고 있고, 철원군과 화천군은 일관된 경향을 찾기 어려우나 2015년에 비해 2017년의 수치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이처럼 강원도의 세입 징수기반은 전국보다 열악하며, 평화지역은 강원도보다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인제군이며, 가장 높은 지역은 양구군임.

<표Ⅲ-31> 전국, 강원도, 평화지역 재정자립도

(단위: %)

행정구역별	2015	2016	2017
전국 평균	50.6	52.5	53.7
강원도	25.9	27.1	29.1
18개시군 평균	18.4	20.0	19.9
평화지역 평균	13.2	14.4	14.2
철원군	12.1	13.1	12.8
화천군	12.1	17.3	13.7
양구군	17.0	17.2	17.5
인제군	11.5	10.7	12.0
고성군	13.4	13.7	14.9

자료: 통계청 e-지방지표

원출처: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통계표 : - 재정자립도 = (지방세+세외수입)/자치단체예산규모*100

- 일반회계 순계예산 규모로 산출함

- 2014년부터 세입과목 개편 전 기준으로 산정한 자료임

-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 중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 등을 지표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자치단체의 재원 활용능력을 나타냄.

- 재정 자주도의 산식은 이러함. (자체수입(지방세 + 세외수입) + 자주재원(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100 / 일반회계 총예산규모
- 재정자주도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보면, 전국의 18개 광역시도의 평균 재정자주도는 조금씩 높아지고 있으며 강원도 역시 개선되어 왔음. 평화지역은 인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높아졌음. 하지만 평화지역 5개군의 재정자주도는 전국은 물론 강원도보다 낮음.

<표Ⅲ-32> 전국, 강원도, 평화지역 재정자주도

(단위: %)

행정구역별	2015	2016	2017
전국 평균	73.4	74.2	74.9
강원도	69.1	68.8	73.0
18개시군 평균	66.9	66.5	68.1
평화지역 평균	66.8	65.9	67.7
철원군	63.7	64.9	65.1
화천군	71.4	71.5	72.9
양구군	66.0	64.9	69.3
인제군	71.0	71.2	68.9
고성군	61.7	57.2	62.2

자료: e-지방지표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원출처: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통계표 : - 재정자주도 = (자체수입+자주재원)/자치단체 예산규모*100

- 일반회계 순계예산 규모로 산출함

- 2014년부터 세입과목 개편 전 기준으로 산정한 자료임

제4장

평화지역 성 주류화 및 여성의 지위와 요구

1. 여성의 지위
2. 행정체계의 성 주류화
3. 여성의 요구 파악
4. 전반적 추진여건

제4장

평화지역 성 주류화 및 여성의 지위와 요구

1. 여성의 지위

가. 여성의 사회참여

1) 여성의 취업 특성 :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 여성의 일자리 참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중요한 목표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을 통해 평화지역 여성 일자리 참여 정도를 살펴봄.
- 2017년 하반기 기준으로, 전국의 평균 경제활동참가율은 63.4%, 고용률은 61.4%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3.2%로 남성보다 21%p 가량 낮고, 고용률도 20%p 낮음. 강원도는 경제활동참가율이 전국보다 높아 65.1%, 고용률도 63.2%임. 강원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모두 전국보다 높아 57.2%, 55.6%임.
- 평화지역은 철원과 양구를 제외하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모두 강원도보다 높고 고성은 매우 높음. 평화지역 여성의 고용률 역시 같은 경향임.
- 철원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51.0%, 50.2%로 강원도는 물론,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고, 평화지역에서 가장 낮음. 철원 남성의 경제활동인구비율과 고용률은 전국 및 강원도보다 높아, 철원은 경제활동에서 성차이가 큰 지역임.
- 양구는 전국보다는 약간 높고 강원도 평균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임.
- 화천, 인제, 고성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전국은 물론 강원도보다 훨씬 높은 지역임. 특히 고성은 두 지표 모두 60%가 넘어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비경제활동인구비율을 보면 철원이 13,000여명 가까운 숫자로 가장 많고, 고성인 9,300명으로 그 다음임. 고성의 비경제활동인구비율이 높은 것은 고령인구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되는데, 철원의 상황은 심층 분석이 필요함.

<표IV-1>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단위: %, 천명)

행정구 역별	성별	15세이상 인구 (천명)	경제활동 인구 (천명)	취업자 (천명)	비경제활 동인구 (천명)	경제활동 참가율 (%)	고용률 (%)	15~64세 고용률 (%)
전국	계	44,015	27,920	27,026	16,095	63.4	61.4	-
	남자	21,626	16,015	15,469	5,602	74.1	71.6	-
	여자	22,398	11,905	11,558	10,493	53.2	51.6	-
강원도	계	1,297	845	819	452	65.1	63.2	-
	남자	634	466	451	168	73.4	71.1	-
	여자	662	379	368	283	57.2	55.6	-
철원군	계	35.2	22.4	22.0	12.8	63.7	62.5	67.1
	남자	17.2	13.2	13.0	4.0	76.9	75.3	78.3
	여자	18.0	9.2	9.0	8.8	51.0	50.2	55.3
화천군	계	18.2	12.5	12.1	5.7	68.7	66.4	68.9
	남자	8.8	6.9	6.6	1.9	78.7	75.1	79.2
	여자	9.4	5.6	5.5	3.8	59.3	58.4	58.3
양구군	계	17.3	10.9	10.8	6.4	63.2	62.7	67.5
	남자	8.5	6.1	6.1	2.3	72.3	71.8	74.9
	여자	8.8	4.8	4.7	4.0	54.4	53.9	59.5
인제군	계	23.0	15.8	15.2	7.2	68.8	66.2	70.9
	남자	11.1	8.9	8.5	2.2	80.3	76.8	81.2
	여자	11.9	6.9	6.7	5.0	58.1	56.3	60.6
고성군	계	25.9	16.5	16.5	9.3	63.9	63.7	65.3
	남자	13.4	9.0	8.9	4.4	67.0	66.7	67.5
	여자	12.5	7.6	7.5	4.9	60.6	60.4	62.6

출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7년 2분기 기준

통계표 :

- 경제활동참가율 : 만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15세이상인구)*100
- 고용률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 고용률(%) = (취업자/15세이상인구)*100
- 2015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소급작성된 추계인구의 변경을 반영하여 2008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의 자료를 변경하였음

2) 정치 및 행정기구 여성 비율

- 평화지역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 즉 정치 대표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의회 의원수 및 고위직 여성 공무원 수를 파악해 보았음.
- 평화지역 5개 군 의회의 총의원 수는 총 33명이고, 여성의원 수는 6명으로 전체 여성의원 비율은 18.1%임.
- 군별로 보면 고성군은 의회 의원 5명 중 여성의원은 한 명도 없으며, 그 밖의 다른 지역들은 1명 이상 있음. 특히 인제와 양구는 여성의원이 전체 7명 중 각 2명 씩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편임.

<표IV-2> 의회 및 위원회 여성비율

(단위: 명, %)

구분	군의회 의원수	군의회 여성의원 수	여성의원 비율
소계	33	6	18.1%
접경지역	철원군	1	14.3%
	화천군	1	14.3%
	양구군	2	28.5%
	인제군	2	28.5%
	고성군	0	0.0%

출처: 각군청 내부자료(2017.12.31.현재, 양구군 2018년 5월 현재)

-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보면 2017년 말 기준 강원도 18개 시·군 위원회의 총위원수 중 여성위원 비율이 22.7.0%인데 비해, 평화지역은 철원군을 제외하고는 모두 평균보다 낮고 그 중 양구는 13.6%로 특히 여성비율이 낮음.
- 철원군을 제외하고 도 평화지역은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늘이기 위한 노력을 특별히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위원 비율을 평가지표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역은 이 지표를 관리해야 하므로 평화지역에 여성친화마을을 조성하게 되면 여성위원 비율을 높이고자 하는 주무부서의 노력에 여러 부서가 협력할 필요가 있음.

구분	강원 도청	18개시군 평균	평화지역					
			소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5급	304	37.2	113	28	19	20	25	21
5급여성공무원	38	5.3	8	3	0	3	1	1
5급여성공무원 비율	12.5%	14.2%	7.1%	10.7%	0.0%	15%	0.4%	0.5%
6급	558	223.9	807	208	160	127	162	150
6급여성공무원	134	79.5	277	61	54	46	54	62
6급여성공무원 비율	24.0%	35.5%	34.3%	29.3%	33.8%	36.2%	33.3%	41.3%

출처: 강원도청 및 각군청 내부자료(2017년 12월 말 현재, 인제와 양구는 2018년 5월 현재).

나. 성폭력 및 가정폭력 발생률

1) 범죄발생

- 범죄 발생의 피해를 여성만 입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지역의 범죄발생률이 높다면 상대적으로 여성이나 아동, 장애인에게 더 위험한 상황이 될 것임.
- 이에, 2016년도 지역별 인구수(내국인) 대비 범죄 발생건수를 비교하여 이것을 범죄율로 보았음. 이에 따르면 평화지역의 범죄율은 2.5%로 강원도 전체 3.9%에 비해 낮고 평화지역 5개 군 각각의 범죄율 역시 강원도 전체에 비해 낮음. 평화지역 중 고성과 인제는 다소 높으나 강원도 전체의 범죄율에는 미치지 못함. 고성은 평화지역 내에서 범죄율이 가장 높고, 화천과 양구는 가장 낮음.

<표IV-5> 강원도 및 평화지역 범죄 발생 및 검거

(단위: 건, %)

	발생(건)	전체인구(범죄율)	검거(건)	검거율(%)
강원도 전체	58,814	1,502,387(3.9)	49,509	84.2
평화지역 계	3,809 (6.5)	149,702(2.5)	3,350 (6.8)	87.9
철원	972	44,527(2.2)	851	87.6
화천	517	24,517(2.1)	447	86.5
양구	466	22,111(2.1)	415	89.1
인제	869	30,298(2.9)	784	90.2
고성	985	28,249(3.5)	853	86.6

출처: 강원도지방경찰청 내부자료(2016)

-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등 형법상의 5대 범죄 발생건수를 보면 평화지역은 살인은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고 강간, 절도, 폭력은 낮음. 절도의 경우 철원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은 강간의 경우 철원과 고성에서 많이 발생함. 인구수를 감안하면, 고성이 평화지역 내에서 성범죄 관련하여 여성이 가장 안전하지 않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음.

<표IV-6> 강원도 및 평화지역 5대 범죄 발생 건수

(단위: 건, %)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강원도 전체	28	28	603	5,164	10,854
평화지역 계	5 (17.9)	-	45 (7.5)	303 (5.9)	547 (5.0)
철원	1	-	16	101	125
화천	-	-	4	43	92
양구	1	-	6	56	66
인제	1	-	4	50	133
고성	2	-	15	53	131

출처: 강원도지방경찰청 내부자료(2016)

* 강간은 강간(강간, 유사강간 등) 및 강제추행을 포함. 비율은 강원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2) 성폭력·가정폭력

-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여건 체크 리스트에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발생률이 포함되어 있음. 성폭력과 가정폭력은 특히 남성 가해, 여성 피해의 경우가 많은 범죄로서 이 지표가 나쁘면 여성에게 위험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음. 2016년 기준 평화지역 전반적으로 범죄 발생건수가 적은 가운데, 철원과 고성에서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음. 인구를 고려한다면 고성이 상대적으로 발생률이 가장 높음.
- 가정폭력의 경우 양구군이 가장 발생건수가 적고 다른 지역들은 서로 유사한 가운데 인제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음. 화천군은 인구규모가 작음에 비해 가정폭력 발생건수가 인제 다음으로 많아 고성과 같은 14건임.

- 종합하면, 고성군은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31건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철원의 29건보다 많아,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임을 알 수 있음. 고성군은 평화지역 중 범죄발생률도 가장 높아 평화지역 중에 범죄로부터 안전을 위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한 지역임.
- 평화지역에 성폭력 및 가정폭력 상담소가 부족하여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이 아쉬운 상황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범죄예방 디자인(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 적용,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상담소 설치 또는 상담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등 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대응한 대책 수립 수단을 가지고 있음. 이에 평화지역은 여성친화마을 조성을 통해 관련 인프라와 서비스를 갖추는 노력을 더 기울일 수 있을 것임.

<표IV-7> 강원도 및 평화지역 성폭력 및 가정폭력 발생

(단위: 건, %)

		강원도	평화지역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성폭력	강간·강제추행	603	45 (7.5)	16	4	6	4	15
	카메라등 이용촬영	84	4 (4.8)	1	-	-	1	2
	통신매체이용음란	41	2 (4.9)	-	-	2	-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5	-	-	-	-	-	-
가정폭력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 에관한특례법위반	1,352	64 (4.7)	12	14	8	16	14

출처: 강원도지방경찰청 내부자료(2016)

* 성범죄는 발생건수 기준, 가정폭력은 검거건수 기준

- 성범죄 발생장소를 살펴보았음. 아래의 표는 2016년 한 해의 자료이고 작은 수라 분석이 조심스러우나, 고성지역에서 숙박업소·목욕탕에서 발생한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남.

<표IV-8> 전국, 강원도, 평화지역 성범죄 발생장소별 발생건수

(단위: 건)

	전국	강원도전체	평화지역*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아파트, 연립주택	5,106	94	5 (5.3)	2	-	2	1	-
단독주택		107	9 (8.4)	4	1	1	2	1
고속도로	-	2	-	-	-	-	-	-
노상	3,973	89	4 (4.5)	2	-	-	1	1
상점	684	17	1 (5.9)	-	-	-	-	1
시장 노점		3	1 (33.3)	-	1	-	-	-
숙박업소목욕탕	2,187	93	8 (8.6)	1	-	1	-	6
유흥접객업소	1,878	58	3 (5.2)	-	-	2	1	-
사무실	-	8	-	-	-	-	-	-
공장	-	-	-	-	-	-	-	-
공사장, 광산	-	2	-	-	-	-	-	-
창고	-	-	-	-	-	-	-	-
역, 대합실	1,062	-	-	-	-	-	-	-
지하철	1,292	-	-	-	-	-	-	-
기타 교통수단 내	968	12	1 (8.3)	-	-	-	-	1
흥행장	-	9	-	-	-	-	-	-
유원지	-	9	1 (11.1)	-	-	1	-	-
학교	424	26	2 (7.7)	1	-	1	-	-
금융기관	-	2	-	-	-	-	-	-
의료기관	-	6	-	-	-	-	-	-
종교기관	-	5	2 (40.0)	1	-	-	-	1
산야	-	-	-	-	-	-	-	-
해상	-	-	-	-	-	-	-	-
부대	-	2	-	-	-	-	-	-
구금장소	-	-	-	-	-	-	-	-
공지	-	-	-	-	-	-	-	-
기타	11,419	189	14 (7.4)	6	2	-	-	6

출처: 경찰청 및 강원도지방경찰청 내부자료(2016)

통계표: 상점은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대형할인마트 포함

* 비율은 강원도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 성범죄 피해 건수를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별로 살펴보았음. 2016년도의 자료를 기준으로 할 때 평화지역에서 성범죄에 의한 남성 피해건은 통계에 나타나 있지 않음. 사건 피해자는 모두 여성으로 그 연령층은 12세 이하부터 60세 이하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남. 여성 대상 성범죄는 모든 연령대에 걸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한 대응책이 필요함.
- 특히 철원, 화천, 양구에서 12세 이하 여아의 성범죄 피해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 표에 나타난 수자는 사건 건수로서 피해자는 사건 건수보다 많을 수 있음. 특히 12세 이하 아동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표IV-9> 전국, 강원도, 평화지역 성범죄 피해자 성별 및 연령별 발생건수

(단위: 건, %)

	전국	강원도	평화지역**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피해자수 계	28,993	733	51 (7.0%)	17	4	8	5	17
불상	1,719	18	-	-	-	-	-	-
여성	25,833	674	51 (7.6%)	17	4	8	5	17
남성	1,441	41	-	-	-	-	-	-
6세이하	162	4	-	-	-	-	-	-
12세 이하	921	37	5 (13.5%)	2	1	2	-	-
15세 이하	1,750	67	4 (6.0%)	1	1	-	-	2
20세 이하	5,507	166	9 (5.4%)	3	1	1	2	4
30세 이하	10,042	189	14 (7.4%)	5	-	2	1	6
40세 이하	3,487	92	7 (7.6%)	4	-	-	1	2
50세 이하	2,574	69	5 (7.2%)	-	1	2	1	1
60세 이하	1,707	64	4 (6.3%)	1	-	1	-	2
60세 초과	599	21	-	-	-	-	-	-
미상	525	6	1(16.7%)	1	-	-	-	-

출처: 경찰청 및 강원도지방경찰청 내부자료(2016)

* 통계표: 피해자 성별·연령에 따른 사건 수임 피해자 수 아님.

** 비율은 강원도 사건 수 전체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

- 위의 표에서는 평화지역 성범죄발생 수가 강원도 범죄발생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보여주고 있음. 다른 항목은 모두 미미하나 12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성

범죄 발생은 평화지역이 강원도 전체의 1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강원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

- 평화지역 내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남성피해 건도 발생하였음. 15세 이하 피해자의 경우 아동학대로 추측되는데 양구, 인제, 고성에서 60세 초과한 경우의 피해자도 있음. 이 경우는 노인 간 가정폭력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의 가능성 모두 있음. 도 평화지역의 노인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노인학대 발생률도 높을 가능성이 있음.

<표IV-10> 전국, 강원도, 평화지역 가정폭력피해자 성별 · 연령별 발생건수

(단위: 건, %)

	전국	강원도	평화지역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피해자수 계	45,438	1,345	65 (4.8%)	10	15	8	16	16
불상	4997	123	8 (6.5%)	-	5	-	3	-
여성	33,919	1,023	51 (5.0%)	10	9	8	11	13
남성	6,512	199	6 (3.0%)	-	1	-	2	3
6세이하		7	-	-	-	-	-	-
12세 이하		28	-	-	-	-	-	-
15세 이하		25	3 (12.0%)	1	-	1	1	-
20세 이하		47	-	-	-	-	-	-
30세 이하	5,196	111	4 (3.6%)	1	-	1	-	2
40세 이하	9,725	274	18 (6.6%)	3	2	2	4	7
50세 이하	10,841	347	11 (3.2%)	3	3	1	3	1
60세 이하	7,397	218	10 (4.6%)	2	4	-	2	2
60세 초과	3,906	165	11 (6.7%)	-	1	3	3	4

출처: 경찰청 및 강원도지방경찰청 내부자료(2016)

* 통계표: 검거된 사건의 수, 피해자 수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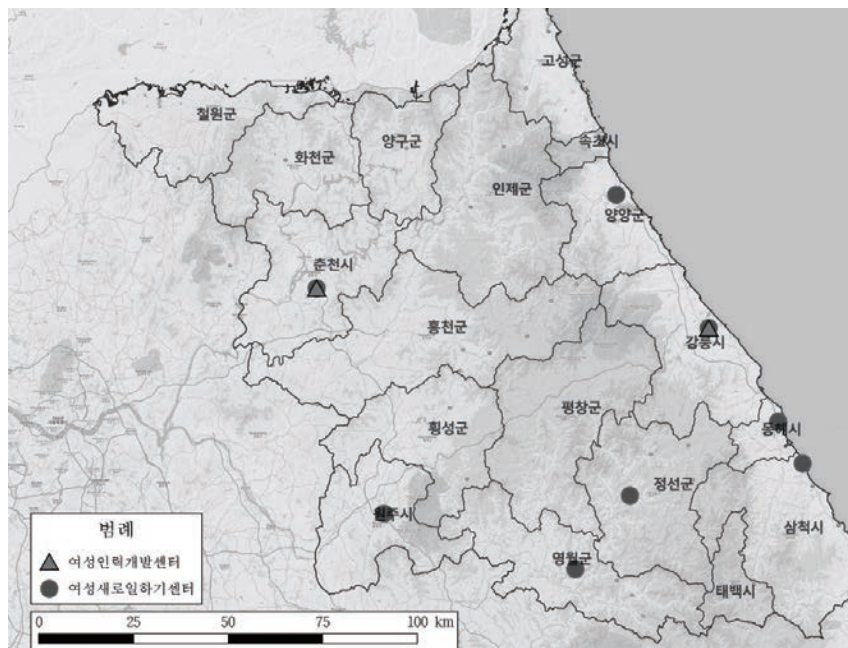
다. 여성 및 돌봄 관련시설

1) 여성 일자리 및 사회교육시설

- 강원도 평화지역에는 여성 일자리 관련 지원시설인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여성새

로일하기센터가 한 곳도 없음. 도내에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춘천과 강릉에 2곳,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총 8곳으로, 춘천, 강릉, 원주, 동해, 양양, 삼척, 정선, 영월이 소재지임.

- 이에 평화지역 여성들에게 화천의 경우에는 춘천으로, 고성과 인제에서는 양양에 있는 일자리 지원센터가 가장 가까운 곳임. 철원지역은 관련 서비스 접근에 가장 큰 제약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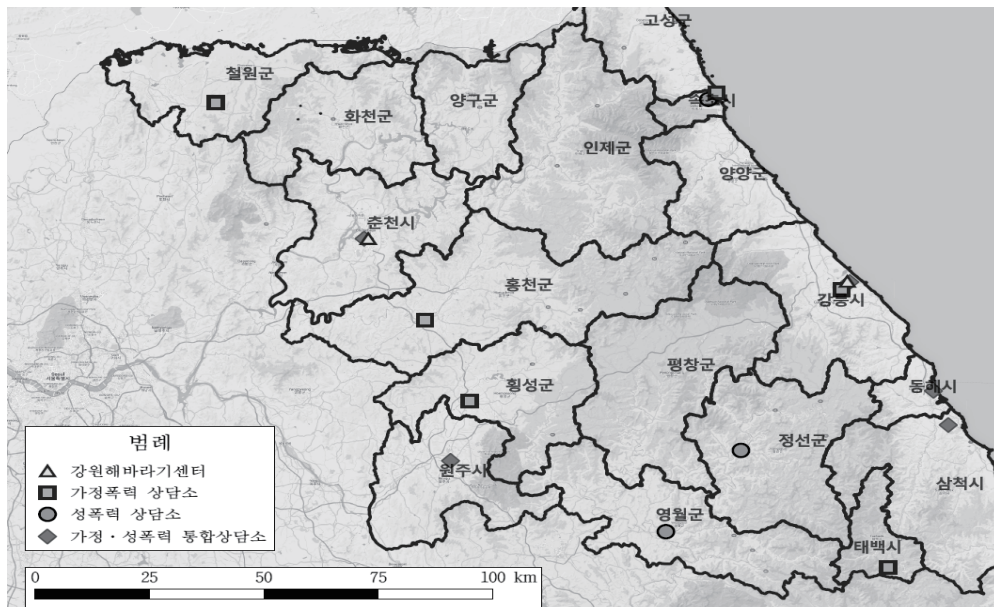


[그림IV-1] 강원도 여성일자리 지원시설 분포도

- 여성문화교실 등 다양한 여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여성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되기도 하는 여성문화회관의 기능은 모든 평화지역 군에서 담당하는 시설이 있으나 여성문화회관의 형태로 있는 곳은 철원, 양구, 고성이고, 화천과 인제에는 여성회관이 없음. 화천과 인제의 문화 및 주민복지시설에서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과 강좌는 열리고 있으나 여성 주민의 필요에 충분히 부응하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임.
- 여성만 이용할 수 있는 사회문화 시설보다는 성평등한 지역문화 형성을 위해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 및 상담 현황

- 강원도에는 가정폭력 및 성폭력 통합상담소는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삼척 5곳에 있고, 속초와 정선에는 성폭력상담소가 있음. 평화지역 중에서는 유일하게 철원에 가정폭력 상담소가 있음.
- 고성과 인제 주민들에게 가장 가까운 여성상담시설은 속초의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 상담소임. 화천과 양구의 주민들은 춘천의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나 강원해바라기센터를 이용해야 함.



[그림Ⅳ-2] 강원도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시설 분포도

- 성폭력 및 가정폭력 상담소는 피해여성이 위기상황에 찾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담소가 없는 지역의 피해여성들은 적절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임.
- 상담시설 외에 강원도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1개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5개소 있고, 여성폭력피해자 그룹홈도 1개소 있음. 하지만 모두 시에 위치하고 있어 평화지역 주민들에게는 상담시설만큼 접근에 제약이 있음.
- 이주여성을 위한 이주여성쉼터는 강원도에 1개소 있고 성매매피해상담소 1개소,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도 1개소 있으나 이들 역시 평화지역으로부터 거리가 있

는 시에 위치함.

- 특히 철원지역에는 가정폭력상담소만 있고 도내 타시군으로부터 거리가 멀기 때문에 성폭력상담이나 쉼터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 접근이 가장 어려움.

3) 보육시설 현황

- 2015년 통계로, 강원도 평화지역의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수를 살펴봄. 평화지역에는 강원도 보육아동의 10.3%가 살고 있으며 강원도 보육시설의 7.8%가 분포해 있음.
- 강원도 국공립 보육시설의 23% 가량이 평화지역에 있고 직장보육시설은 25.8%가 있음. 철원과 양구의 경우 국공립 시설 수가 각각 2개, 1개로 평화지역의 다른 군에 비해 국공립 시설이 적음. 철원군의 경우 민간시설이 대부분임. 고성은 국공립 보육시설이 6개로 평화지역 중 가장 많음.

<표IV-11> 평화지역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수 현황

(단위: 개소, 명, %)

지역	시설수 및 아동수	합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민간	법인, 단체 등	부모협동조합	직장	기정보육
강원도	시설수	1,227	87	113	402	45	4	31	545
	보육아동수	42,238	5,424	6,594	18,339	2,050	81	1,473	8,277
평화지역	시설수	96 (7.8)	20 (23.0)	13 (11.5)	37 (9.2)	7 (15.6)	0 (0.0)	8 (25.8)	11 (2.0)
	보육아동수	4,335 (10.3)	1,045 (19.3)	698 (10.6)	1,831 (10.0)	255 (12.4)	0 (0.0)	322 (21.9)	184 (2.2)
철원	시설수	28	2	2	17	2	0	3	2
	보육아동수	1,448	145	88	1,027	52	0	105	31
화천	시설수	18	6	2	8	0	0	0	2
	보육아동수	726	256	109	321	0	0	0	40
양구	시설수	17	1	7	3	2	0	2	2
	보육아동수	755	75	360	137	69	0	97	17
인제	시설수	21	5	2	4	3	0	3	4
	보육아동수	850	264	141	115	134	0	120	76
고성	시설수	12	6	0	5	0	0	0	1
	보육아동수	556	305	0	231	0	0	0	20

출처: 강원기본통계(2015)

- 0~4세 유아 1,000명당 보육시설 수를 보면 전국은 19.35개인데 비해 강원도는 21.82개로 전국보다 유아인구 대비 보육시설 수가 많음. 하지만 도 평화지역은 강원도는 물론 전국 평균보다 보육시설 수가 유아 수에 비해 적음.
- 고성은 최근으로 올수록 유아 수 1,000명당 보육시설 수가 조금 줄고 있어 환경이 다소 악화되고 있고, 다른 지역은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임.

<표IV-12> 평화지역 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

(단위: 개)

행정구역별	2015	2016	2017
전국	18.76	18.64	19.35
강원도	20.98	20.99	21.82
철원군	14.46	15.02	15.97
화천군	14.55	15.01	16.11
양구군	15.70	15.09	15.98
인제군	13.41	14.48	15.61
고성군	15.65	15.98	15.58

자료: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원출처: 보건복지부(보육통계), 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

통계표:

- 유아 : 0~4세

- 보육시설수는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포함

- 강원도 평화지역 영유아에 대한 보육 서비스 및 유치원 공급과 이용실태를 살펴봄. 2016년 통계로 볼 때 도 평화지역의 보육 및 유치원 시설은 모두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철원 지역의 정원 충족률이 낮음.
- 유치원 공급률은 주민등록상의 유아인구 수 대비 보육시설 및 유치원 정원 수를 비교하여 본 것임. 이에 따르면 철원과 고성은 공급률이 100%를 상회함. 화천, 양구, 인제는 공급이 아직 부족한 상황임.
- 화천, 양구, 인제 등의 경우 공급이 부족한 데도 정원 충족률이 낮음. 이것은 가족이 돌봄을 직접 담당하는 등 시설이용 외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함. 기존 서비스의 질과 공급방식이 주민들의 요구에 걸맞도록 변화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구체적인 정책요구 조사에 기반한 서비스의 다양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표IV-13> 평화지역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공급 및 이용현황

(단위: %)

시군	정원충족률	공급률	이용률
철원군	75.3	108.9	82.0
화천군	83.7	93.9	78.6
양구군	84.1	85.4	71.8
인제군	80.2	91.4	73.4
고성군	79.4	103.6	82.3

- 주 1: 정원충족률= 정원대비 현원
 2: 공급률=주민등록인구대비 총공급(어린이집 총정원+유치원 총현원)
 3: 이용률=주민등록인구대비 총이용(어린이집 총현원+유치원 총현원)
 4: 유치원 정원에 대한 통계가 부재하여, 유치원 현원을 정원으로 간주함.
- 자료: 1.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3~2016.
 2.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각년도 4월 1일 기준.
 3.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각년도

-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현황을 살펴봄.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위한 교육, 보호, 놀이의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임. 중위소득 100% 이하의 경우에 이용할 수 있으나 이외에도 불가피하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경우 예외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강원도에는 총 169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평화지역에는 총 12개가 있어 상대적으로 평화지역에는 시설이 적음. 양구는 1개로 시설 수가 가장 적고, 고성군 4개로 가장 많음. 그 외 지역은 2개 이상 있으나 철원은 인구대비 그 수가 적음.

<표IV-14> 지역아동센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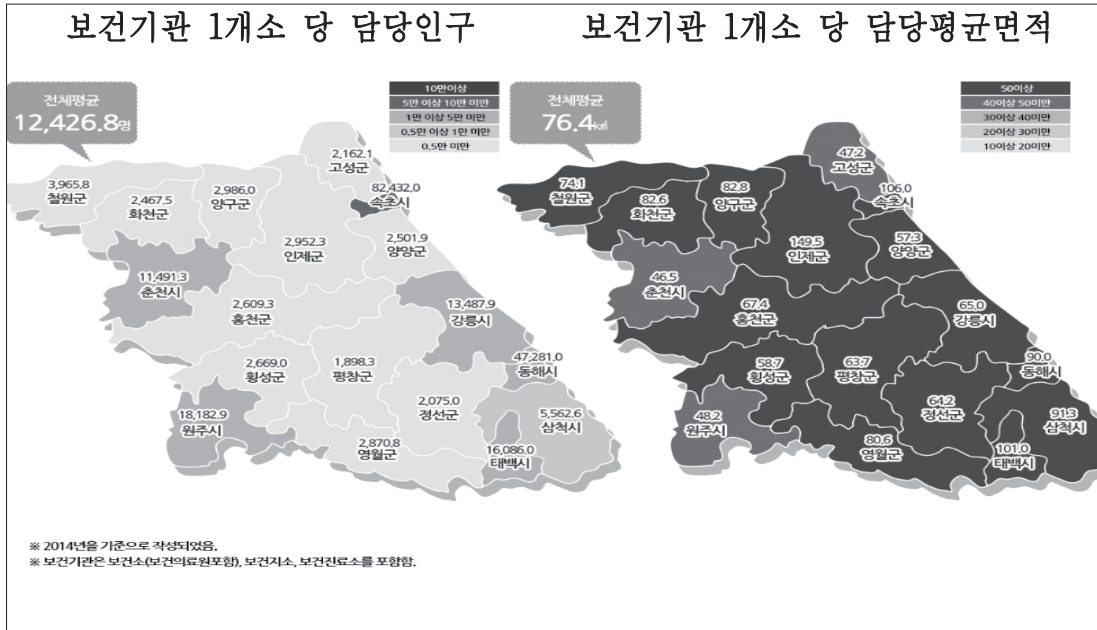
(단위: 개소, 명, %)

구분	시설 수 (개소)	이용 아동 수	종사자 현황(명)			
			계	시설장	생활복지사	아동복지교사
강원도총계	169	4398	551	169	214	164
소계	12	287	40	12	13	15
강원 총계 대비 접경지역 비율	7.1	6.5	7.3	7.1	6.1	9.1
접경지역						
철원군	3	72	10	3	3	4
화천군	2	55	7	2	2	3
양구군	1	20	3	1	1	1
인제군	2	52	7	2	3	2
고성군	4	88	13	4	4	5

출처: 강원도청 내부자료(2017.12.31. 기준)

4) 출산 및 보건

- 여성가족부의 체크리스트에는 없으나 평화지역은 출산 및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어서 그 실태를 알아봄.
- 도 평화지역 내에는 현재 산후조리원이 없으며, 철원과 양구에 산후조리원 설립 추진 중임. 이들 지역에는 산후조리원이 기존의 대형병원에 설립되는데, 산후조리원과 함께 병원에서 출산 진료도 이루어질 예정임.
- 다음은 보건소 시설과 담당 인구수를 살펴봄. 보건소 1개당 담당 인구수로 보면 강원도 평화지역은 담당 인구수가 가장 적은 지역에 해당됨. 강원도 보건소 당 담당 인구수가 평균 12,000여 명인 데 비해, 평화지역은 2,000~4,000명 가량임. 그 중 고성군이 가장 담당 인구수가 적고 철원군은 약 4,000여 명으로 가장 많음.
- 면적으로 보면 도 평화지역은 보건소 1개소당 담당하는 면적이 고성을 제외하고는 넓은 지역에 속함. 강원도 평균이 76.4km²인데, 화천, 양구, 인제는 그 면적이 평균 이상이고, 특히 인제는 강원도 평균의 2배 정도 됨.
- 보건소 1개소 당 담당 인구수가 큰 철원이나, 담당면적이 넓은 인제는 특히 서비스 접근성에 제약이 클 수 있음.



[그림IV-3] 강원도 보건기관 1개소 당 담당 인구 및 면적

자료: 인구와 면적으로 본 강원도 보건기관 현황. 강원연구원 편 그림으로 보는 강원도 세상.
http://www.rig.re.kr/hb/main/sub02_06?articleSeq=17872&mode=readForm&curPage=2&boardCode=BDAABB11016(년)

- 공중보건의사 배치 현황을 보면 평화지역에는 강원도 공중보건의사의 대략 25%가 배치되어 있음. 평화지역 내에서 비교해 보면 철원과 고성이가 그 수가 적음. 화천을 제외하고는 그 수가 줄고 있음.

<표IV-15> 연도별 공중보건의사 배치 현황

		(단위: 명,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강원도 총계		330	323	312	304	313	309
소계		83	81	74	76	76	77
접경지역	강원 총계 대비 접경지역 비율	25.2%	25.1%	23.7%	25.0%	24.3%	24.9%
	철원군	14	13	12	13	13	13
	화천군	19	19	19	19	19	21
	양구군	20	20	16	16	16	16
	인제군	17	17	16	16	16	16
	고성군	13	12	11	12	12	11

출처: 강원도청 내부자료(2017.12.31.기준)

라. 여성단체 현황

- 강원도 평화지역에 대학이나 여성연구소가 없어, 이 지역의 젠더 전문가는 주로 여성단체 지도자 및 활동가들일 것으로 판단됨. 이에 여성단체 현황 자료는 젠더 전문가 현황을 시사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음.
-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은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으로서 특히 여성단체가 주축이 되는 경우가 많음.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지도자와 전문가들이 여성친화마을조성협의체나 시민참여단을 조직하고 사업을 끌어감. 이에 사업의 조직적인 기초인 평화지역의 여성단체 현황을 살펴봄.
- 일단 등록된 여성단체 수를 보면 아래와 같음. 평화지역 군마다 대략 13개~14개의 여성단체들이 등록되어 있으나 화천군만 9개로 등록단체 수가 적음. 군과 여성단체 협력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화천군은 참여할 수 있는 단체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환경임.
- 하지만, 등록하지 않은 채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조직들도 있으며, 이러한 조직들과의 거버넌스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함.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은 거버넌스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그것을 확대시킬 수 있는 기회도 됨. 이 사업은 여성단체들의 역량에서 시작되고 그것을 더욱 육성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음.
- 등록된 여성단체들의 협조와 등록되지 않은 다양한 여성조직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주무부서의 의지와 실행력이 매우 중요함.

<표IV-16> 평화지역 군청 가입 여성단체 현황

(단위: 개소, %)

시군	회원수	가입 단체 수
강원도 총계	69,257	287
소계	16,017	64
비율	23.1	22.3
접경지역		
철원군	7,302	14
화천군	225	9
양구군	3,078	14
인제군	2,646	14
고성군	2,766	13

출처: 강원도청 내부자료(2017.12.31.)

2. 행정체계의 성주류화

가. 주무부서의 특성

1) 주무부서의 현황

- 평화지역에서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을 한다면 그 실무인력이 어느 정도 될지 파악하기 위하여 평화지역 5개 군의 여성정책 업무부서 인력 현황을 살펴봄.
- 여기에는 여성 및 가족, 아동·보육 업무를 포함함. 아동·보육 업무는 복지부서 업무인 경우도 있으나, 여성친화도시 업무로서 중요한 부분이어서 통합하여 보았음. 또한 기초지자체에 따라서는 여성청소년과의 업무인 경우도 있어 이를 통합하여 보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봄.
- 아래 표에 의하면 평화지역의 여성정책 실무부서는 독립된 “과”로 있는 경우는 없음. 주민생활 또는 주민복지 과의 계로 있음. 인력은 인제가 가장 적어 담당 포함 2명, 양구가 가장 많아서 모두 11명이었고, 다른 지역은 담당 포함 총 5명임. 아동 및 보육 업무를 통합한 경우가 많지만 양구는 복지 업무와 겸한 경우 많아 11명이 모두 여성정책 전담인력은 아님.
- 평화지역에서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을 시작한다면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는 것이므로 업무분장 또는 인력증원이 필요함. 특히 인제군은 인력증원이 매우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인제군은 전체 공무원 수가 철원군 다음으로 많은 지역인데 여성·가족업무 부서 인력은 가장 적어 여성·가족정책의 위상이 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됨.

<표IV-17> 평화지역 여성정책 실무부서 현황

(단위 : 명)

군	주무부서	주무계	인원수(명)	비고
철원	주민생활지원과	여성복지	5	
화천	주민복지과	여성가족	5	
양구	주민생활지원실	여성아동	11	일부인력 복지업무 겸함
인제	주민복지과	여성가족	2	
고성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	5	

출처 : 각 군청 홈페이지 2018. 6. 12. 현황(공무직 제외)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 정도

1)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체계

-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체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그 기반이 되는 조례 제정 여부를 살펴봄.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및 관련 교육실적을 통해 활성화 정도를 살펴봄.
- 고성과 화천은 양성평등기본조례와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를 모두 가지고 있음. , 철원, 양구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만, 인제는 양성평등기본조례만 가지고 있음. 인제의 경우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내용을 양성평등기본조례에 담고 있음. 평화지역 5개 군 모두 관련 조례에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표IV-18> 평화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법적 근거

기관명	조례명	조례 내용
철원군	철원군 성별영향분석 평가 조례(2014.12.29. 제정)	분석평가 대상·시기, 분석평가서 작성, 분석평가결과의 반영, 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분석평가책임관 지정, 분석평가 교육
화천군	화천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2016.08.16. 제정)	분석평가 대상·시기, 분석평가서 작성, 분석평가결과의 반영,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분석평가책임관 지정, 분석평가 교육
	화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2004.11.16. 제정, 2016.11.08. 개정)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제6조)
양구군	양구군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2017.09.15. 제정)	분석평가 대상·시기, 분석평가서 작성, 분석평가결과의 반영,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 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회의운영, 분석평가책임관 등의 지정 , 분석평가교육,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지원
인제군	인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2006.10.18.제정, 2017.10.27. 개정)	-성별영향분석평가(제13조)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제14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제

기관명	조례명	조례내용
		15조) -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등(제16조)
고성군	고성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2014.12.31. 제정, 2015.12.22. 개정)	분석평가 대상·시기, 분석평가서 작성, 분석평가결과의 반영, 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분석평가책임관 지정, 분석평가 교육,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지원
	고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2015.12.22. 제정)	-성별영향분석평가(제23조)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사항 심의·조정(제29조)

2)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실적

- 강원도 평화지역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실적을 살펴보았음.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모든 부서 사업담당자들이 사업안(계획, 법령 등)을 제출하면 여성정책 실무 부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문관이 그것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내고 그것을 사업담당자가 반영하여 계획이나 법령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이에 아래 표에서 “원안동의”는 사업담당자가 낸 원안 그대로 수정없이 추진된 경우, “자체개선안 동의”는 사업담당자가 자체적으로 개선안을 제시하고 사업안을 수정한 경우, “개선의견”은 지자체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문관의 개선의견이 제출된 경우임.
- 최근 3년 간의 추세를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실적은 인제는 소폭 감소한 가운데 대체로 유사하고, 다른 4개 군은 약간 증가하였음. 2017년의 경우에는 고성군이 가장 실적이 많고 인제가 가장 적음. 전체적으로 최근으로 올수록 원안 동의를 약간 감소하였음. 개선의견이 수용된 경우는 2015년에 비해 2017년에 그 수가 증가하였음.

<표IV-19> 평화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실적

(단위: 건(%))

	연도	전체	원안동의	자체개선안동의	개선의견		기타*
					개선의견	개선의견 수용	
철원	2017	91 (100.0)	39 (42.9)	18(19.8)	26(28.6)	18(69.2)	8(8.8)
	2016	66 (100.0)	20 (30.3)	13(19.7)	28(42.4)	21(75.0)	5(7.6)
	2015	71 (100.0)	63 (88.7)	0(0.0)	7(9.9)	6(85.7)	1(1.4)
화천	2017	107 (100.0)	54 (50.5)	17(15.9)	7(6.5)	5(71.4)	29(27.1)
	2016	91 (100.0)	61 (67.0)	0(0.0)	5(5.5)	5(100.0)	25(27.5)
	2015	97 (100.0)	88 (90.7)	0(0.0)	2(2.1)	2(100.0)	7(7.2)
양구	2017	90 (100.0)	56 (62.2)	0(0.0)	6(6.7)	6(100.0)	28(31.1)
	2016	70 (100.0)	54 (77.1)	0(0.0)	2(2.9)	1(50.0)	14(20.0)
	2015	86 (100.0)	66 (76.7)	0(0.0)	0(0.0)	0(0.0)	20(23.3)
인제	2017	70 (100.0)	32 (45.7)	1(1.4)	7(10.0)	5(71.4)	30(42.9)
	2016	71 (100.0)	17 (23.9)	4(5.6)	11(15.5)	7(63.6)	39(54.9)
	2015	76 (100.0)	36 (47.4)	0(0.0)	8(10.5)	1(12.5)	32(42.1)
고성	2017	117 (100.0)	42 (35.9)	31(26.5)	29(24.8)	25(86.2)	15(12.8)
	2016	122 (100.0)	54 (44.3)	29(23.8)	22(18.0)	17(77.3)	17(13.9)
	2015	107 (100.0)	90 (84.1)	0(0.0)	7(6.5)	6(85.7)	10(9.3)

출처 : 강원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내부자료

3)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실적

- 강원도 평화지역 5개 군의 공무원 대상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의 공무원 참여실적을 살펴봄.
- 교육참여율은 강원도 시·군 합계가 28.6%인데 비해 강원도 평화지역의 교육참여율은 군별로 상당히 상이하게 나타남. 강원도 시·군 합계 교육참여율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평화지역은 양구를 제외한 4개 군은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철원과 고성의 상승폭이 매우 큼.
- 양구군만 최근 3년 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7년 그 비율이 5.3%로 평화지역 다른 군에 비해 유난히 낮은 참여율을 보임.

<표IV-20>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참여 실적(정부합동평가 기준)

(단위 : 명(%))

기관명	2015년 교육참여자 수 (교육참여율)	2016 교육참여자 수 (교육참여율)	2017	
			공무원 수*	교육참여자 수 (교육참여율)
강원도 전체	2,074(10.6)	4,300(29.0)	14,863	4,330**(29.1)
강원도청	374(3.8)	1,200(58.4)	2,054	606(29.5)
강원도 시군합계	1,700(18.7)	3,100(24.3)	12,809	3,724(28.6)
철원군	13(2.8)	118(20.1)	586	215(36.7)
화천군	50(13.3)	87(18.5)	471	124(26.3)
양구군	56(16.3)	68(14.9)	455	24(5.3)
인제군	55(13.3)	113(21.6)	522	133(25.5)
고성군	58(15.2)	83(17.5)	475	148(31.2)

* 2017년 12월 말 기준. 강원도 내부자료.

** 정부합동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실적 지표 기준 ①5급 이상 공무원 교육인원×2 ②회당 참여자 인정기준(70명) 적용에 따른 조정 인원

3. 여성의 요구 파악

- 위의 사회통계 및 행정통계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 외의 ‘여성의 요구 파악’ 항목과 ‘전반적추진여건’ 항목에 관해서는 초점집단 면접조사(FGI)를 통해 파악함.
- 본 연구가 추진되기 전에 평화지역에서 여성친화도시 및 양성평등 정책에 관해서 여성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특별히 조사를 실시한 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사업 추진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여성의 요구 파악을 위한 별도의 설문조사가 필요함. 본 연구에서는 기초적인 이해를 위하여 초점집단 면접조사를 통해 파악된 내용을 분석하였음.
- 이 조사는 기초적인 현황파악을 위한 것으로 여성친화도시 사업이 시작된다면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될 부서의 담당 및 주사, 여성단체 대표, 해당 군의 성별 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 또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였음.

- FGI는 2018년 4월 25일에서 5월 2일까지 실시하였고, 조사는 해당 군의 회의실이나 여성회관 회의실 등 조용하고 방해를 받지 않는 장소에서 이루어졌음. 조사 시간은 지역별로 각각 1시간 30분 정도였고, 몇 개 군은 조사 후에 식사나 차 마시는 시간을 통하여 지역에 관한 이야기를 보충적으로 더 들었음.
- 조사참여자는 철원 5명, 화천 3명, 양구 4명, 인제 3명, 고성 5명으로 총 20명이었음. 대개 주무계의 담당과 여성단체 대표가 가장 적극적인 참여자였음. 참가자는 모두 여성이고 공무원 중 1인만 남성임.
- 공무원들 중 활발하게 참여하는 이들은 담당이고 다른 공무원들은 배석하여 부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로 참여하였음.
- 지역별 조사대상 중 여성단체는 여성정책부서를 통해서 모집을 의뢰하였음. 이에 정책부서와 여성단체 사이에 협조관계가 아직 미흡한 지역에서는 조사에 단체가 참여하지 못했음.
- 조사에 참여한 여성단체들은 부서와의 협조관계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둘 간에 갈등이 있더라도 그것을 드러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하지만 본 조사는 지역 전반의 상황을 기초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집단조사로 실시하였음.
- 정책부서와 인구가 적고 관내 대학이 없는 평화지역의 특성상 젠더 전문가 수가 적어 지역 현안을 잘 아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를 가능한 한 포함시킴.
- 조사 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음.

<표IV-21> 초점집단 면접조사(FGI) 참여자 기본정보

사례번호	지역	소속 및 직위
1	철원	공무원
2		여성단체 지도자 A
3		여성단체 지도자 B, 군인가족
4		여성단체 지도자 C, 문화해설사
5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
6	화천	공무원 A
7		공무원 B
8		지역주민(여성)

사례번호	지역	소속 및 직위
9	양구	공무원
10		도의회 의원
11		여성단체지도자
12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 지역주민
13	인제	공무원
14		여성단체 지도자
15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 공공기관 직원
16	고성	공무원 A
17		공무원 B
18		공무원 C
19		여성단체지도자 A
20		여성단체지도자 B, 성교육강사

가. 출산병원 및 소아과병원

- 여성친화 관점에서 평화지역에 관해서 여성들이 어려움을 제기하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문제들 중에서 가장 공통적인 것은 출산 인프라에 관한 것임.
- 평화지역에는 출산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없고, 있더라도 임상경험이 많은 큰 병원을 여성들이 선호해서 병원이 잘 운영되기 어렵다고 함.

아무래도 나가기 힘든 분들은, 생활이 만약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 지역에서 이용을 하고 싶어 하니까(연구자 : 나가시면 산과 병원 제일 가까운 데 어딜 가시나요?) : 대부분 춘천으로 가요. (연구자 : 아, 춘천으로요. 그러면 한 시간 45분?) 네, 대부분이 그런데 여기 산부인과 있을 때도 여기는 잘 이용을 안 하시려고 하시더라구요. 신뢰감의 문제로... 이게 진찰 횟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자 : 임상 경험이 많은 병원을 찾아간다?) 그렇죠. 임상 경험이 많고 이런 데, 아이들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내 자녀는 안전하게, 조금 거리가 멀어도 다니고 싶다, 라는 그게 있죠.(양구군 공무원)

- 현실적으로 철원은 의정부로, 화천과 양구는 춘천에 있는 병원과 시설로, 인제와 고성은 속초의 인프라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산과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출산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환경은 여성의 생활과

태아 및 산모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이러한 상황은 여성의 정주여건을 나쁘게 한다고 조사참여자들은 비판했음.

- 나아가 출산병원뿐 아니라 소아과 병원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었음. 소아과가 있는 경우에도 전문병원이거나 전문의를 갖춘 병원이 아니라 내과에서 소아진료도 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

예전에 아산 병원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개인 병원도 그렇죠, 사실은 있었는데, 운영 상황이, 원통에도 있었고 그런데 의원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제 산부인과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 번 들어왔지 않나. 지금 여기 고려병원에 산부인과 선생님은 계시는데 출산은 안 하시고, 그냥 여성 질환, 여성 관련만 봐 주시죠. 그러니까 부인과 질환만, 산부인과가 없는 거죠. (연구자 : 산과 병원이 없는 거죠?). 네. (연구자 : 아 그러면 어디로, 출산은 어디로 가서 하나요?) 춘천, 속초도 가고. 그런 게 좀 안타깝죠. 출산에 대한 지원이(인제군 공무원).

- 평화지역 여성들은 산과병원과 소아과병원 부족을 평화지역의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더불어 종합병원의 부족을 지적하기도 하였음.

나. 대중교통 부족에 대한 대책

- 평화지역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또 하나의 문제는 관내 대중교통 부족 문제임. 평화지역은 마을과 마을 사이에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음. 이러한 상황은 도내 농산촌 지역과 공통적이나, 평화지역은 인구밀도가 더욱 낮은 지역으로서 이동에 어려움이 더 심각할 것으로 보임.
- 이동 거리가 멀기 때문에 평화지역의 초중고 학교들은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체로 학교 버스를 운행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주민들은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음.
- 하지만 학교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청소년들은 걸어야 하는데 저녁 시간에는 먼 길을 걷는 것이 위험한 상황이라고 함. 이것은 가로등 설치 부족과도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됨.

어른들은 대부분 자차가 있잖아, 자기 차가. 그래서 어른들이 다니기 불편한 게 아니고, 늦

은 시간에 애들이 학교 갔다가 오거나 학원 갔다가 오거나 이럴 때에는 걸어 다니는데 무지 위험하다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구요.(중략) 우리 애는 학원 끝나고 10시가 넘어서 오는데 그게 어두운 거예요 그 쪽이. (고성군 여성단체지도자 B)

- 성폭력 범죄 실태 통계에서 평화지역에 12세 미만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이러한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이에 운전을 하지 못하거나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못하는 젊은 층, 이주여성, 노인은 이동에 제약을 경험하는 상황임.
- 이주여성들을 위한 운전교육은 가장 우선시되는 교육 중의 하나로 대부분이 운전면허를 갖는다고 함. 하지만 현실적으로 운전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하는데, 자기 자동차를 소유할 정도의 경제력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임.

(이주여성들을 위해서 : 연구자 주) 요즘은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운전면허증을 1순위로 거의 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에서 말하는 거는 웬만하면 거의 취득을 거의 많이 하는 상태라고 들긴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실질적으로 운전하는 사람들은 뭐 면허증이 있지만 실제 운전할 수 있는 여건은 뭐 잘 갖춰져 있지 않은 부분이라서. (고성 여성단체지도자 A)

- 이에 평화지역 여성들은 평화지역에 대중교통을 확충하거나 대중교통 부족에 대응하는 조치 강화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다. 청년 및 여성 위한 질 좋은 일자리

- 평화지역 여성 일자리에 관해서 조사 참여자들은 단기 일자리는 매우 많아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하지만 젊은 여성을 위한 일자리나 질 좋은 일자리는 부족하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하였음.
- 조사 참여자들은 여성의 인구유출이 주로 일자리 부족 때문이라고 보았음. 특히 철원과 같은 농촌은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였음.

농사하고, 공무원들 아니면 장사하지 않으면 없어요.(중략) 젊은 층이 귀농을 할 수 있고 귀촌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그게 인제 6차 산업을...(철원군 여성단체지도자 C)

- 고성의 경우에는 명태잡이가 어려워지면서 인구유출이 많이 일어났다고 함. 이에 인구유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를 대체할 일자리가 필요한 상황임.

진짜 명태 나는 철에 그러니까 여기 인구가 거진 한 육만? 그 인구가 다 빠져나간 거잖아요, 명태가 안 나서. 그러니까 거기에 유흥업소라든가 엄청 인구도 많고 유흥업소부터 시작해서 뭐 정말 잘 살았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이제 거의 다 빠져나가니까. (고성군 여성단체지도자 A)

- 외지에서 유입해 온 주민들은 지역 내 네트워크가 약해서 일자리를 소개 받기 어렵기 때문에 취업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되었음. 군가족 여성과 같이 이동이 잦은 경우에 이러한 문제에 처하는 것으로 보임.

사실은 연계가 잘 안 돼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는 분과 아는 분의 이렇게 하는데, 하여간 유동 인구 같은 경우에는 늘 살던 분이 아니고 3년 4년 있다가 이동하기 때문에 그 자체의 연결 네트워크가 조금 (어려워요 : 연구자 주). (양구 공무원)

- 이에 지역 내 네트워크가 약한 군인가족 여성들이나 결혼이주 여성을 위한 일자리 사업이 중요한 것으로 보임. 조사 참여자들은 평화지역 내에 군가족 여성들의 사회참여 및 일자리 지원이 필요하고, 다문화 여성들도 이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일 자리를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군인 가족 같은 경우...(중략)...능력이 되잖아요. 바리스타라든지 아니면, 저는 강원도 같은 경우, 특히 속초나 고성 같은 경우는 저는 바다가 있고 산이 있기 때문에, ...(중략)...상당 쪽이나 이런 쪽으로 개발을 해 드려서, ...(중략)...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폐교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바꿔주면. (고성군 여성단체지도자 B)

라. 공공 키즈카페

- 여성가족부에서는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강원도 평화지역에는 공동육아나눔터가 없음. 양구여성회관에 육아정보나눔터가 있으나 시설규모가 너무 작아 여성가족부로부터 공동육아나눔터로 인가 받지 못했음.

- 어린 자녀를 기르는 여성들은 자녀를 동반하고 모여 육아정보를 나누고 사회적 유대를 갖기 위한 장소를 필요로 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키즈카페가 선호됨..
- 평화지역 내에는 공공이 운영하는 키즈카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양구와 철원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키즈카페가 있다고 함. 화천에는 키즈카페는 없으나 도서관에 유사한 기능이 있다고 함. 인제와 고성에는 키즈카페나 그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설이 없음.

지금 어린이 도서관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는 거죠.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없어요, 키즈카페로요.(화천군 공무원 A)

- 키즈카페는 민간시설보다 공공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있었음. 어린 자녀를 동반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사고가 일어났을 때 개인사업자의 경제적 타격이 크기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키즈카페 운영사업을 하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임.

안전사고가 났을 때 그게 너무 과하더라, 합의 보는 과정에, 그래서 그게 참 불편하다....(중략)...폐쇄를 했어요. (철원군 여성단체지도자 A)

- 이러한 경우를 고려할 때 키즈카페는 시장에 맡기기보다 공공시설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평화지역처럼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특히 그러함.
- 군가족 여성들이 대개 자녀를 기르는 전업주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키즈카페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남.

네, 되게 갈급해 하시는 것. (그러니까 임부 건강 교육이었나요?) 네, 육아 교육 같은 것. 많이 하면 모유 수유에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고성군 공무원 A)

- 인제군에는 여성회관도 없어서 젊은 여성들이 갈 만한 곳이 더욱 부족할 것으로 보임. 인제군은 문화원을 신축 중인데, 거기에서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됨.

(여성들이 : 연구자 주) 갈 데가 없을 것 같아요. 갈 데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보면은. (연구자 : 여성회관 있나요?) 여성회관이 없어요. 인제군에 여성회관이 없는데, (아까 말씀 드린) 거기다. 우리 문화원을 다시 이제 (신축하고 있어요) (그런 데 요청하시면 돼요) (인제군 공무원)

- 여성회관 등을 통해서 평화지역에 거주 중인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공공 키즈카페를 통해 육아기에 있는 여성 및 가족들을 위한 육아정보 교환 및 사회적 유대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음.

마. 범죄예방 환경조성

- CPTED는 인구밀도가 낮고 마을간 거리가 떨어져 있는 평화지역에 매우 필요한 것으로 보임. 특히 고성군처럼 범죄발생률이 높고 여성대상 성폭력 및 가정폭력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여성안전을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함.

문제되는 거는 가정폭력이나 이런 쪽이 되게 안 되어 있어요. (쉼터?) 쉼터도 없고, 상담소도 없고. (쉼터는 있지) 이분들이 속초까지 오시는데 (임시 쉼터라서) 힘들죠, 거기까지 오시기가. (임시 쉼터는 공개하지 않잖아요, 원래) (네, 공개하진 않아요) (모텔 같은 데 라면서요?) 네, 힘들어요. (그게 아파트일 수도 있구요, 그거는 이제 거기 가쪽 거기서 정확하게) 그런데 누가 관리해주는 분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연구자 주 : 더 위험하다고).(고성 여성단체지도자 B)

- 특히 고성에서는 어두운 길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음. 어두운 길이 많은 것은 범죄, 특히 여성대상 범죄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음.

요쪽은 안전한데 이제 말한 대로 분포도가 너무 넓다 보니까, 마을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거기 가로등이 너무 어둡다거나 없거나 CCTV는 아예 하나도 없고 (고성 여성단체지도자 B)

- 평화지역에는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위한 시설과 전문기관이 없어 더욱 상황이 어려움.

- 안전을 위한 정책은 시설 중심적인 접근에 치중하기보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서비스와 의식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
- 평화지역은 노인인구가 많고, 군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남성중심적인 문화가 일상화되어 있기 쉬운 지역이기에 여성의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의식이 높지 않을 수 있음.
- 이에 평화지역의 여성안전을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주민 의식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바. 가족공원 조성

- 평화지역은 생태환경이 좋고 아름다운 고장이지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놀이공원 등의 시설은 별도로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됨. 특히 고성 지역에서는 공원 부족이 지적되었음.

그런 공원이 너무 없어요. 그냥 조형물이 서 있는 공원들은 있지만, 이렇게 뛰어놀 수 있는 공원은 없어요.(중략) 바다랑 강하고 만나는 곳에 조금 개발해 주시면...(중략) 북천에 코스모스 막 이렇게 조성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공원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 가족들이 오면 사진을 안 찍어요. 안 찍는데 코스모스 밭으로 이렇게 조성을 해놓고 그러면 공원이 같이 있어야지 꽃을 보러 오면서 사진도 찍고 거기서 뛰어 놀지, 공원은 없는데 꽃만 있으니까 좀 위치를 바꿨으면 좋겠더라구요.(고성군 여성단체지도자 A)

- 공원 부족은 가족과 함께 즐길 유미적 공간이 부족함을 시사함. 이러한 상황은 지역의 낮은 출생률로 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상황이 또한 그 지역에서 자녀를 낳고 기르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로 작동하는 악순환을 만들어 낼 수 있음.
- 인제군의 조사참여자들은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인해 곳곳이 공원과 같아서 특별히 공원 조성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음. 하지만, 생태적이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만족하기보다 그러한 환경을 활용하여 자녀를 동반한 가족이 특별한 활동과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은 평화지역의 특징점을 살리는 길이 될 것임.

4. 전반적 추진여건

가. 여성친화도시 사업관련 행정 및 의회의 관심

- 이 절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여건의 체크리스트에 따라 여성친화 관련 사업에 관한 군정 및 의회의 관심, 여성단체와 지자체의 관계 및 여성단체의 역량, 주민의 최근 관심사 등을 살펴봄. 이 절은 포커스 그룹 면접조사에 기초함.
- 현재 강원도 평화지역에는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없음. 철원과 양구 등 몇 개 군은 조성사업을 시도한 적이 있으나 여건상 부족한 것이 많아 중도에 중단하였음. 이에 적어도 이들 지역은 여건이 성숙 되면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평화지역 5개 군은 최근 문화 및 가족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돌봄과 건강, 교육을 위한 시설 투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러한 노력은 곧 여성친화적인 환경조성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음.
- 평화지역 5개 군은 모두 최근 개봉영화관을 포함한 작은 영화관, 어린이도서관, 문화공연시설 및 주민체육시설 등 평화지역에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해 왔고, 현재 많은 시설들이 건립 추진 중임.

저희가 체육 시설은 모든 경기를 다 즐길 수 있게 공공시설로 다 되어있습니다. 탁구, 테니스부터 시작해서 뭐 골프장 이런 것도 하려고 하고 있고, 체육시설은 거의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구요, 그리고 공원 같은 데도 지금 시설이 늘어나면서 그 지역에 공원이 같이 딸리고, 이 중간 중간 지금 이런 공원들이 지금 뭐 주택가 주변에도 조그마한 공원들이 많이 늘어나 있어요. 주차장을 조금 조성을 하더라도 그 옆에 공원까지 같이 조성을 하니깐. 그래서 문화시설은 좀 많이 되어 있다고. 공공시설로도 많이 되어있다고 생각...(중략)...국비 사업을 신청해서 ...(중략)...키즈 카페가 얼마 전에, 지난달에 오픈을 했구요,...(중략)...민간 키즈 카페도 생겼고, 민간 블록 놀이방도 생겼고,...(중략)...지금은 육아 쪽도 많이 인프라가 많이, 2-3년 전보다 훨씬 늘어난 상태예요.(양구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팀)

- 더불어 교육 지원 정책도 강조하였는데, 농촌지역 혜택뿐 아니라 고등학교 기숙사, 통학버스 등 자녀교육을 위한 지역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음.

- 특히 화천은 교육복지부를 설치하고 교육복지에 주력하고 있는데, 관내 학생뿐 아니라 타지로 유학 간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정책 등을 펴고 있음. 여성정책 담당자는 최근의 인구 증가 및 출생률 증가가 이러한 교육여건 개선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보았음.

애기 낳아서 대학까지 지금 다 공짜로 아이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돼 있거든요. (연구자 : 공짜로요?) 예. 공짜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행정에서 다 지원을, 장학금 주고 그 다음에 뭐 유학을 간다, 아니면 유학비도 대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요 (중략) 교육정책 때문에 관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 수가 많이 늘었다고 (알고 있어요 : 연구자 주),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 (연구자 : 춘천으로 안 나가고...?) (중략) 화천처럼 잘 되어있는 데가 없을 겁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이. 동아리부터 해 가지고 뭐 애들 그 예능 가르쳐 주는 거.(화천군 공무원 A)

- 이러한 돌봄 및 교육 여건 개선과 인프라 확충은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기에 유리한 조건임.
- 양구는 둘레길을 연결하고 가로등 설치, CCTV 재정비 등 기반을 준비해 왔다고 함. 군청에 CCTV 감시센터를 두는 등 지역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지금 양구에서 또 잘하는 게 아까, 잘 안 보이는 곳에 네트워크를 연결한다 그랬는데 그 일환으로 하나가 산책길 해서 모든 산책길을 읍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계속 시켜 나가시더라고요.....(중략)...거기에서 필요한 거는 가로등이라든지 CCTV라든지 그런 것들을 중심에서 확장을 조금만 더 시킨다면, 이 덩어리 자체가, 양구라는 덩어리 자체가 읍까지도 굉장히 잘 묶일 수도 있겠다(양구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

주민의 안전은 CC카메라다.(중략)...범죄가 나고 나서 처리를 하는 것보다 예방이 중요한 거예요.....(중략)...그래서 옛날에 만든 CC카메라를 요즘 화소에 맞게 재정비, 그리고 다 해 놓긴 했지만 그래도 세세한 부분까지 새로 설치하는 게, 총 예산을 올린 게 4억 얼마더라고 (중략)CCTV 감시 센터를 아예 군청에, 감시 센터를 만들어놔서 그 인력을 보강했어요. 그래가지고 실시간 계속, 볼 수 있게.(양구군 공무원)

- 하지만, 이러한 모든 정책이 성인지 관점에서 총괄되고 있지는 못한 것이 현실임.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시민참여단이 지역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게 된다면 이러한 정책들에 주민의 요구가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성인지 관점에서 바람직한 변화를 불러올 것임.

- 의회에서 성평등 의제에 협조적인지, 관련된 질문이 의회에서 다루어지는지를 물었음. 이에 관해 평화지역 모두에서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음.

뭐 시기적으로 이런 상황(지방선거 직전 : 연구자 주)이니까 관심은 있어 하세요. 그리고 길은 열어두십니다 항상 저희 의원님들은. 뭐 실행은 저희가 어떤 기획을 올려서 어떻게 될지는 차차. 일단은 뭐 저희가 하는 말은 뭐 선거 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들어는 주세요, 요새 의원님들은.(철원군 공무원)

- 특히 지방선거 직전이기에 때문에 주민 생활복지와 밀접하게 연관된 정책들에 대해 의회가 호의적이었던 것으로 보임. 또한 여성의원들은 양성평등 정책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보임. 여성의 의회 진출은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 등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데 좋은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나타남.

(연구자 : 의회에서 양성평등 정책에 관심이 좀 있으신지요?) 여성 의원님이 계시거든요. 그 분들은 당연히 관심 있죠. 여성 관련해서. (연구자 : 여성 의원 몇 분이셔요?) 한 분이예요. (연구자 : 아, 한 분이시군요) 비례... 하셨던 분이신데 이번에 이제 또 나오셔서 만약 된다면 그러면 두 명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여자 의원님이시니까 많이 관심을, 다 문화라든지 뭐... 보육이라든지. 보육도 저 우리 또 다른 의원님이 또 신경 엄청 썼어요. 다른 의원님이. 그, 여성이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세요. (화천군 공무원 A)

- 이 연구는 2018년 6.13 지방선거 기간을 포함하고 있어, 이 연구가 완료되어 가는 시점에 의회구성이 완전히 바뀌었음. 기존 의원들이 대부분 낙선하고 새로운 의원들이 대거 진출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의회 분위기는 바뀔 것으로 판단됨. 이에 구 의회의 협조를 평가하는 것의 의미가 다소 축소됨. 하지만 새로운 의원들의 진출, 특히 여성의원들의 다수 진출은 기초의회가 보다 성평등 의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함.

나. 주무부서와 여성단체의 협력과 역량

- 조사 참여자들은 주무부서와 여성단체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나아가 지역주민들 사이에 단합이 잘 되는 것이 평화지역의 특징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음. 지역의 특성상 군과 민이 의논하여 결정해야 하는 사안들이 있고, 이 경우 민의 중지를 모으기 위해 주민 협동이 필요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이 경우 행정에서 둘의 이해관계를 연계하고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렇게 주민회의나 협력이 자주 일어나는 상황은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협의체나 시민참여단의 구성에 유리한 환경인 것으로 판단됨.
- 그런데 조사에 참여한 여성단체장들은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참여에 대해 의지는 있으면서도 여성들이 매우 바빠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걱정하였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슈가 연관돼 있음.
- 하나는 여성들이 일을 하러 많이 나가기 때문에 “자원 봉사” 를 할 시간이 없다거나 “자원봉사센터”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느라 여성단체 행사에는 별로 참여하지 못한다는 식의 지적이 나왔음.

일자리 사업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하는 그런 사업도 있지만 또 군에서도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많이 하거든요....(중략)... 일자리는 사실 여기가 기업 도시도 아니고, 군부대지역이다 보니까 좀 그런 제한이 있죠..(화천군 공무원 A)

지금은, 각자 일자리 창출이 너무 많이 됐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젊은 사람들이 자기 길을 걸어갑니다, 이제. 그래서 일 할 사람이 없고 단체에도 봉사 할 사람들이 없어요. 대개 봉사하는 사람들이 50대 이상, 60대 이런 분들이 사회에서 일을 받아주지 않고, 이런 분들만 모여서 단체 일을 하고 있어요(인제군 여성단체지도자 A)

- 다른 하나는 여성단체의 세대교체의 문제임. 여성단체에 젊은 회원들이 들어와 세대교체를 이루었다고 자부하는 지역도 있었지만, 단체들이 나이 든 회원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상황을 벗어나지 못한 지역도 있었음.
- 여성단체 활동을 “자원봉사” 로 생각하는 것은 그 동안 주무부서와 여성단체의

협력사업이 양성평등 정책이나 사업보다는 대체로 지역 자원봉사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으로 판단됨. 다음은 이번 FGI 조사에 여성단체에서 가장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지역의 사례를 예시임.

저희는 활동 많이 하세요. 기금 사업으로도 많이 하시구요, 한 단체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그것 때문에 아이들 이불 만들어서 저소득층 계층에 나눠주고 청소년 단체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 해서 전래 놀이도 가르쳐주고 아이들끼리 물건 교환을 하면서 성과금으로 기부한다든가 바르게(살기운동본부) 같은 경우도 학교에 가서 성교육을 하구요, 그 다음에, 예림회 같은 경우도 학교에 가서 다도 예절 이런 것도 다 하고. 저희는...(연구자 : 양성 평등 관점은 어떠실까요? 그러니까 양성 평등에 대해서 의식을 많이 하시는 편인지?) 아니, 저희 지역 주민들이요? (연구자 : 아니, 지역 여성 단체들이요.) 아, 여성 단체들. 저희는... 보통 다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철원군 공무원)

- 평화지역 여성단체의 성평등 의식과 성평등 이슈에 대한 집중력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대답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였음. 이것은 위에서 지적한 대로 여성운동이 아직 지역을 위한 자원봉사의 성격이 강한 것과 연관되는 것으로 보임.
- 이에 실무부서와 여성단체의 협력이 행정의 요구에 응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민의 요구와 민관 상호의사소통을 통한 협치(거너번스)에 이르기까지 여성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임.

다. 최근 지역 현안

- 최근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 현안에 관한 사항을 살펴봄. 여기에는 초점집단 면접조사에서 해당 지역의 변화에 대한 기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 관련 주민들간 갈등 등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음.
-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는 병원 등 의료시설에 관한 내용이 많았는데, 관련된 내용은 다른 절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제외하였음.
- 이에 농산촌 지역이자 최근 마을축제의 성공적 개최, 광역교통망 확충 등으로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으로서 가로등 설치 관련된 주민들 간, 또는 주민 및 외부인들 간 정책요구의 갈등을 이 절에서 다룸.

- 또한 최근 평화지역에 대한 군사적 대립적 시각에서 벗어난 발전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광역교통망의 발달에 관해서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FGI에서 나타났음. 이에 이를 지역 주요현안으로 소개함.

1) 가로등과 농작물 생육환경 둘러싼 주민 간 갈등

-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의 “안전” 이슈에서 가로등 설치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임. 이것은 물리적 안전뿐 아니라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로부터 여성 및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기 때문임.
- 특히 농산촌 지역으로서 인가가 드문 지역이 많고 마을 간 멀리 떨어져 있는 환경인 도 평화지역에서 가로등 문제는 중요한 현안임.
- 이에 FGI에서 가로등 설치 등 안전을 위한 행정 조치 필요에 관해서 물었을 때, 어두운 밤길을 밝히기 위해 가로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전답이 많은 강원도 평화지역에서는 가로등 설치가 주민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
- 이는 특정 농작물뿐 아니라 대부분의 농작물이 밝은 가로등에 의해 생육에 지장을 받는다는 점 때문에 가로등이 설치되면 그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는 식이었음.

저희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가로등이 설치가 되면 농산물들이 안 커요.(중략)...그래서 가로등은 설치되어 있지만, 또 이 농가에서 저희는 꺼 주세요, 그러면 꺼 줘야 돼요. (중략)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논밭이 많은 데는, 농작물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또 감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고성 공무원 A)

- 도 평화지역에는 최근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가로등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지고 있음. 앞으로 평화지역의 환경개선 및 광역교통망의 발달은 필히 관광객 및 외부인들의 유입을 증가시킬 것이므로 가로등 설치에 대한 요구는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도 평화지역에서 주민과 관광객 사이의 요구 차이를 잘 조정하고 민의를 모을 필요가 있음.

조사를 해서 설문을 해서 필요한 곳은 하고 말한 대로 필요치 않은 곳은 안 하고 이런 창구를 만들어서, 좀 의견을 모아야 돼...(그런데 사실 가로등이 다 필요하잖아요, 길이니깐)

그런데 어디에 초점을 둘 거난데, 말 한 대로 그냥 뭐 농작물에 돌 건지, 아니면 외부 사람이 관광으로 왔다가 이게 갑자기 캄캄해지니까 어디로 가야될지 몰라서... (고성 여성단체 지도자 B)

- 이에 대해서는 가로등의 키높이를 무릎 정도로 낮춤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음.²⁾
- 가로등 설치 등과 관련해서 주민들 간의 의사소통과 토론이 필요함.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은 무엇보다도 주민의 참여가 사업의 중요한 기반이므로 주민 의사소통을 위해서도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유리함.

2) 광역 교통망 등 지역 인프라 확충

- 이번 FGI를 통해서 평화지역 주민들은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지역의 광역 교통망 확충 등 개발 기회가 생기는 것에 대해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화천에서는 곧 개통되는 고속철도가 광역 교통망 확충은 물론 내부 대중교통 문제도 해소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발견되기도 했음. 고성은 대륙과 이어지는 국가 간 광역교통망등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는데, 교통망 확충사업이 일자리를 늘려 줄 것이라고 생각하였음.

속초랑 KTX 연결된다는 게 12월 말에 발표가 나자마자 민간 분양사들이 자기네가 찾아와서 자기네가 대상지 확인해가지고 사업 계획 신청한 거예요. 딱 그게 하나예요, 교통. KTX 딱 발표 나자마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이 해결이 되면 민간단체들이랑 민간 업체들이 다 내려오죠. 그러면 당연히 일자리 생기는 거고. 아파트 지으려면 일자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발생을 하는 거죠. (여기 지금 이제 철도 사업 하면 일자리 엄청 늘어날 거예요) 그렇죠. 일단 교통이 뚫려야.(고성 공무원 A)

- 하지만, 광역교통망의 확충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평화지역 5개 군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인제 지역의 FGI에서는 특히 최근 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지역 상권이 쇠락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음.

2) 강원도 평화지역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 설명회의 강의에서 오미란 박사의 조언 중(2018. 5. 30. 본원 2층 회의실)

여기가 양양-서울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인제에 유입 인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제일 뭐 기존의, 영업, 식당 하시던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매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사람이 들어와야지. 여기는 그래도 1차 산업이 물론 군인들도 많지만 관광을, 다 어디나 관광으로 많이 하잖아요. 관광 관련해서도 또 많이, 지자체 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뒤야 될 것 같아요. 머물 수 있는 관광을 해야지, 그냥 이 쪽은 아예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거야. 다 그냥 고속도로 저쪽으로 가 버리고 하니까. (지금 원대리 같은 데는 문을 많이 닫았어요) 네, 거의 죽었지. (80%? 죽었어요, 식당들이) (인제 여성단체 지도자)

- 평화지역의 광역교통의 발달은 강원도 평화지역의 특정 군에는 경제발전의 기회가 되지만 다른 군에서는 위기를 가져오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대응하여 위기를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의 기회로 만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함. 특히 머물 수 있는 관광을 위한 지역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전략이 여성 일자리 확충과 일자리 질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노력을 위해 정책을 요구하고 정책을 모니터링 하는 데에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3) 인프라 부족으로 인구 및 소비유출

- 평화지역 주민 중에는 직장은 평화지역에 있지만, 거주나 쇼핑은 인근 시에서 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이러한 경향이 최근에는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상당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철원은 강원도 내 큰 도시 인프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어서 철원 주민들은 가까운 경기도 의정부시의 인프라를 많이 이용한다고 함. 화천에 직장이 있는 경우 춘천에서 거주하며 오가고 소비는 춘천이나 서울에 가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고성은 속초에서 거주하고 쇼핑도 속초에서 한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임. 공무원과 군가족 역시 이러한 상황인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지적되었음.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나 아내의 직장 때문에 중간지역에 집을 마련하다 보니 이러한 결과가 되는 경우도 있고, 자녀교육 인프라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함.
- 화천은 최근 교육 인프라가 크게 확대되고 적극적인 교육지원정책으로 이러한 직주 분리나 인구유출이 상당히 완화되었다고 함.
- 더 많은 가족이 정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화지역에서는 교육 및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공무원 등으로 취업을 하러 되돌아 오는 인구들도 있고 이에 관해서는 정주 관련 자격을 요구하고 있음.

지역 출신들 인재 육성 차원 이렇게 해가지고, ...(중략)... 여기에 4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주소를 뒤편에만 응시를 하게, 공무원 시험을....(중략)...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갔다가 다시 와서 여기서 직장을 잡는 직원들이 많아졌어요....(중략)... 공무원 과도 생겼죠? 고등학교에. ...(중략)...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로 아무래도 예년보다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죠.(화천 공무원 A)

- 인근 도시의 대형마트는 소비를 유인해 냄. 특히 젊은 층은 주말에 인근 도시로 나가 소비와 놀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고성사람들은 속초로 다 모여서 속초에서 장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속초가 붐빈다고 함. 관광객까지 늘어나서 속초는 더 많은 인구가 붐비고 있음.

속초에 주말에 나가서 마트를 못 가요.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차가 막혀서, 오히려 속초 주민들은 토요일 날 장을 못 봐요, 이마트 장을. (연구자 : 네, 인제에서도 속초로 가서...) 네. (연구자 : 거기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형 마트를 가시는군요. 그러니까 고성군 주민들도 대형마트를 가시느라고 속초를 가서....) 이제는 ㅇㅇㅇ라는 큰 마트가 있어서, 이제 여기서 거기로 나가죠.(고성 공무원 A)

- 인근도시로 나가서 소비를 하는 현상은 주변에 큰 도시가 있는 군에서는 일반적인 일임. 철원은 의정부시로, 화천은 춘천으로, 고성과 인제는 속초로 나감.
- 이러한 상황은 지역 상권의 성장을 저해하고 경제를 어렵게 할 수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임.

제5장

평화지역 SWOT 분석 및 여성친화마을 조성 모델(안)

1. 평화지역 특성종합 및 SWOT 분석
2. 평화지역 여성친화마을 조성 모델(안)

제5장

평화지역 SWOT 분석 및 여성친화마을 조성 모델(안)

1. 평화지역 특성종합 및 SWOT 분석

- 이 장에서는 강원도 평화지역의 특성을 지역별로 종합하고, 평화지역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요인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제안함.

가. 평화지역 5개군 지역별 특성 및 여건 종합

1) 철원군

- 철원군의 강점은 전국 및 강원도 대비 조출생률과 조혼인율이 높아 인구감소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임.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매우 낮은 것은 약점이지만, 여성고용이 3차 산업에 쏠려 있지 않으며 제조업이 3위로 나타나 강원도에서는 제조업 종사 여성비율이 높은 편임.
- 여성단체의 세대교체 및 활발한 활동, 실무부서와의 원활한 협력관계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음. 여성단체가 성평등 이슈에 집중하고 성인지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임.
- 철원군의 약점은 노인인구 비율과 8세 미만 아동인구 비율이 높아 인구 중 피부양인구 비율이 거의 절반으로 평화지역에서 가장 높다는 점임.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낮고 공보육 인프라가 부족함.

- 10년 전에 비해 인구가 약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새로운 기회라고 할 수 있는데, 산후조리원 등 출산 인프라 및 서비스 확대는 이러한 변화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됨.
- 하지만, 지역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 소비 인구의 도시 유출이 지속되는 것은 위협요인이라고 보았음.
- 이에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모멘텀을 잘 이용하여 공보육 인프라와 특히 젊은 여성 일자리 등 여성 정주 환경을 집중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농업분야에 젊은 여성 일자리 지원 사업이 바람직함. 여성 귀농귀촌인구를 지원하여야 하며, 농업을 중심으로 남북한 여성교류의 거점을 구축하는 것도 바람직함.

2) 화천군

- 화천군은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8세미만 아동인구비율이 높을 뿐 아니라 조혼인율은 전국 및 강원도보다 훨씬 높음.
- 피부양인구비가 높고, 등록된 여성단체 수가 적어 민관 협력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점이 약점임.
- 여성일자리가 가장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수준이 낮은 음식숙박업에 몰려 있어 개선이 필요함. 질 좋은 여성일자리 개발을 위한 사업이 필요함.

3) 양구군

- 양구군은 인구감소 면에서는 위험이 가장 적음. 출생률이 고성 다음으로 높아 매우 높은 수준이며 혼인율 또한 매우 높음.
- 하지만 평화지역 중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이며 노인 피부양 인구비가 높고 여성직업도 음식·숙박업에 몰려 있음. 여성 일자리를 질 제고를 위한 사업이 요구됨.

4) 인제군

- 인제군은 조출생률이 전국 및 강원도 평균보다 매우 높은 지역임. 또한 8세 미만 아동 수 비율이 매우 높음. 이에 인구증가의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측면에서 발전이 기대됨.
- 이처럼 인구 전망이 평화지역 중 가장 밝지만 출산 인프라 부족이 부족함. 이것은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의 필요를 높이지만,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기엔 여성정책부서 인력 규모가 매우 작다는 약점이 있음.
- 노인 1인 가구 비율이 매우 높아 노인 돌봄을 위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됨. 또한 결혼이주 여성의 수는 철원과 인제에 가장 많으므로 다문화 여성들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에서 고려해야 함.
- 보육 및 출산 인프라에 대한 요구가 많은 지역이므로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을 통해서 이 부분을 개선함. 재정 여건이 평화지역 중 가장 어려우므로 중앙부처 및 도의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5) 고성군

- 고성군은 평화지역 다른 4개 군과 달리 전국 및 강원도와 비교하여 조출생률이 낮을 뿐 아니라 인구 유출도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남. 평화지역 중 가장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초고령 사회인데다 출생률도 전국평균보다 낮아서 인구소멸의 위기가 있는 지역임.
- 고성군은 평화지역 중에서 범죄발생률이 높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과 가정폭력 사건도 가장 많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런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평화지역 중 가장 높고, 제조업이 여성고용 분야의 3위로 여성이 저임의 **3차 산업**에 쏠리는 현상이 4개 군에 비해 덜 심각함.
-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될 가장 지역 중의 하나로 광역 교통 인프라가 일자리 및 인구유입의 기회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이러한 기회를 잘 이용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어두운 밤길 개선 등 여성안전을 위해 힘쓸 필요가 있음. 또한 가족공원 부족이 문제로 지적된 만큼 유미적 가족유대 위한 놀이공간 제공 등에 관심을 뒤야 함.

나. 평화지역 SWOT 분석 및 정책전략

1) 강점과 전략

- 여성친화마을 조성의 관점에서 강원도 평화지역의 강점은 출생률 및 조혼인율 등 인구재생산 관련 지표가 청신호라는 점임(고성 제외). 최근 인구도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조심스러운 관망이 가능함. 이는 출산 인프라 확충 등을 이 끌어 낼 수 있는 **여성친화마을 조성에 대한 정책수요**의 존재를 강력히 시사함.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높다는 점도 강점임. 여성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안정화하는 전략을 사용해야 함. 더불어 생태환경이 좋아 **관광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가족공원** 등 돌봄친화적 환경조성에도 유리함.

2) 약점과 전략

- 평화지역의 약점은 출산 등 돌봄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임. 이는 키즈카페 및 공동육아 나눔터, 출산병원 및 산후조리원 등의 설치로 해결해야 함. 철원과 양구에 산후조리원 및 출산병원이 추진 중이므로 해당 지역의 출산 인프라 수요는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키즈카페 및 공동육아 나눔터는 사실상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키즈카페는 민간시설로는 안전사고가 일어날 경우 사업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공공시설이 바람직함. 이에 **키즈카페의 기능과 결합한 공동육아 나눔터**를 읍면 단위에 각기 조성함.
- 여성 일자리의 질이 낮아 저임직, 음식 숙박업 등 특정 산업에 쏠림 현상, 젊은 여성 위한 일자리 부족 등이 약점임. 이에 평화지역 특성에 맞도록 6차산업 분야를 포함한 여성 일자리 개발과 취·창업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키즈카페 및 육아 서비스를 포함한 **여성취창업지원센터**로 조성하는 것도 가능함. 여기에는 군인가족, 결혼이주 여성 등 다양한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함.
-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의 발전은 여성을 주축으로 한 주민의 성인지 역량과 밀접하게 연관되므로, 여성운동단체 및 지도자가 자원봉사의 개념을 넘어 성인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여기에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평화와 생태를 결합한 젠더관점 제고**가 필요함.

- 여성평화운동 및 생태주의 페미니즘 등 이미 젠더 관점은 평화 및 생태주의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관점의 결합은 특히 강원도의 평화지역으로서의 발전에 매우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임. 이는 평화지역이 위협한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한 여성 및 주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할 것임.
- 재정 여건 및 부양 부담 등 강원도 평화지역의 경제적 여건의 어려움은 **중앙정부 및 도 차원의 예산 지원의 필요**를 제기함.
- 광역교통망 등 교통여건은 지역 발전에 관한 여러 계획이 수립 중이므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3) 기회와 전략

- 4.27 판문점 선언 등 남북간 평화 무드가 평화지역에 매우 중요한 기회요인임. 강원도는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치렀고 남한 최대 접경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군사 긴장 완화와 화해 무드는 강원도 및 평화지역의 발전에 매우 긍정적인 기회임. 이에 강원도는 평화 상징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한 **평화 이슈 선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함. 이 기회를 평화지역은 십분 활용해야 함.
- 평화지역은 강원도가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이동성폭력 상담소 등으로 국내외에 심은 성평등 이미지를 제고하고 레거시로 계승발전시키는 의미에서 **평화와 성평등을 변화와 발전의 열쇠**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함. 이로써 평화와 성평등은 서로 상승작용을 가져올 것임. 강원도 평화지역에 여성친화마을 조성은 이러한 관점 실현의 좋은 예가 될 것임.
- 도 및 중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화지역 발전을 위한 계획들은 평화지역의 일자리 및 산업발전을 자극할 것임. 특히 관광산업 발전과 관광객의 증가가 기대됨.
- 이 과정에서 여성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여성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배가하는 것이 필요함. 이러한 노력을 통해 특히 젊은 여성의 안정적 거주 조건을 만들어야 함.

4) 위협과 전략

- 강원도 평화지역의 약점에 새로운 기회요인이 작용하면서 위협요인을 낳고 있기도 함. 광역교통의 발달은 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관광객 등 외부 인구유입을 가능하게 하지만, 인근 광역시도로 소비 및 인구유출의 가능성도 동시에 높임.
- 뿐만 아니라 외부 인구유입에 따라 주민과 외지인 간의 갈등도 생겨날 수 있음. 예를 들어 관광객이 증가하면 가로등 설치 등에 대한 요구가 증가될 수 있는데, 농사를 짓는 주민들이 작물의 생육에 가로등이 유해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서 민원을 제기 하는 등, 요구 충돌이 일어날 수 있음. 이러한 상황은 주민의 의견을 모으고 민의를 반영하는 거버넌스를 더욱 필요로 하게 됨. 여성친화마을 조성 사업은 핵심전략이 거버넌스임.
- 이동 인구의 증가와 일자리 증가는 범죄의 증가, 성매매의 증가 등을 초래할 수 있고, 더불어 여성 대상 성폭력의 위협을 증가시킬 수 있음. 철원에 유일하게 가정폭력상담소가 있을 뿐, 성폭력 및 가정폭력 관련 지원 인프라가 부족한 평화지역의 환경이 나빠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관련 인프라 및 서비스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주민들의 성평등 및 성폭력 관련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하는 것도 중요함.
- 지역의 대규모 개발 사업이 들어오면 지가가 상승하여 공공 인프라 확충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고, 지가 상승 등으로 저소득층 주민과 여성 한부모 가족 등의 재정 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음. 지역 개발 과정에서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적 관심이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임. 개발의 효과에서 지역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함.
- 또한 개발이 생태환경을 훼손함으로써 평화지역의 가장 큰 장점과 매력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생태주의적 관점을 평화지역 주민들에게 확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표 V-1> 평화지역 SWOT 분석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 극복 청신호 지표 좋음 : 출생률 및 조혼인율 높음 - 8세 미만 유아 인구비율 높음. -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높음 - 생태환경 좋음(DMZ) - 철원, 양구 농업 발달로 6차 산업 일자리 확대 가능성 - 접경지라는 사회적 조건으로 인해 주민단합 및 민과 군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가정폭력 인프라 부족 - 어두운 밤길 많음 - 여성 일자리 질 낮고, 음식숙박업 쏠림 현상, 젊은 여성 일자리 부족. - 여성단체 세대교체 어려움, 자원봉사라는 인식 넘어 성인지 역량 제고 및 활성화 필요 - 출산 및 의료 서비스 부족(산과, 소아과) - 인구 규모 작고 밀도 낮아 행정 및 서비스 전달 어려움. - 고령화 수준 높음(초고령사회 포함)고령사회. 노인인구 비율 높음. - 소년부양비 및 노년부양비 모두 높아 부양 부담. - 재정자립도 및 자주도 낮음. - 대중교통 기반 취약, 광역교통망 부족 - 총포소리 등 소음 - 군사 대치 지역으로서 위험한 곳이라는 이미지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평화 무드 조성 및 도민 평화의식 상승 - 강원도의 평화상징 이니셔티브 선점노력 : 평화지역이 전쟁이 아니라 평화상징지역으로 이미지 제고 가능 - 평화지역 발전에 대한 국가 및 도정의 관심 제고 - 접경지역 개발제한 관련 법 및 제규정 완화 전망 - 철원 산단 예정 - 동북 철도 및 고속도로 개발 - DMZ 생태공원 조성 - 평화의 바다 공원 조성 : 일자리 증대, 노동력유입 - 국내외 관광객 증가 전망 : 일자리 및 관련산업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공공 인프라 확충 제약 가능성 - 관광 및 광역교통망 확대로 외부인구 유입에 따른 정책요구 둘러싼 이해갈등 - 외부인구 유입에 따른 범죄 증가 - 관광업 발전에 따른 성범죄(성매매, 성폭력) 증가 - 광역교통망 발달로 인근 도시의 소비, 인구, 거주 유인력 증가

2. 평화지역 여성친화마을 조성 모델(안)

가. 조성의 방향

- 세계의 마지막 분단국가의 마지막 분단도인 강원도에게 평화지역은 단지 시·군 중의 일부가 아니라 중요한 상징적 지위를 가진 지역임. 군사적 대치와 전쟁의 상징이었던 평화지역은 강원도 이미지의 중요한 부분이었음.
- 이제 강원도가 평화를 상징하는 지역으로 이미지를 쇄신하고 평화문화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강원도의 구 접경지역, 즉 평화지역을 일상 주민의 삶의 질이 높은 지역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함. 이에 강원도정에서 평화지역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짐.
- 강원도 여성친화마을 조성여건 분석을 통해 도출된 현안 과제들을 토대로, 여성가족부가 제시한 여성친화도시 조성목표에 따라 평화지역 여성친화마을 정책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함.

<표 V-2> 여성친화도시 5대 조성목표에 따른 평화지역 정책과제

5대 목표	내 용
① 성 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 - 성평등정책 추진 주무부서 인력보강 - 성평등정책부서를 중심으로 한 부서 간 협력체계 강화 - 지역 여성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구축 -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
②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취·창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및 6차 산업과 연계된 직업훈련 및 취·창업 지원 - 젊은 여성, 이주여성 취업, 군가족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 여성 고용 확대 및 질적 제고 방안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젊은 여성 위한 일자리 확대 - 여성 고용 창출 및 고용 안정 목표 공시 및 지속 모니터링
③ 지역사회 안전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교통 확충 및 가로등 설치 - 범죄예방 디자인 적용

5대 목표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대상 성폭력 예방 및 성평등 교육 확대 - 여성 안전 위한 지역환경 조성 참여
<p>④ 가족친화 환경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 고용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경력 유지와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 여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 가족친화기업 확대 • 돌봄에 대한 지역사회 책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 서비스 내실화와 돌봄 인프라 접근성 향상 - 마을 단위 돌봄 확대
<p>⑤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사회 여성 활동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 평화, 생태를 이슈로한 여성 단체 활동 활성화 및 네트워크 확대 • 모든 분야의 여성 대표성 증진을 위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내 공식적인 의사결정 기구 여성참여 확대

○ 이러한 정책과제를 토대로 강원도 평화지역 여성친화마을 조성의 비전과 목표 그에 따른 사업안을 제안하고자 함.

1) 여성친화마을 조성 비전

○ 강원도 평화지역 여성친화마을 조성 비전은 “모두 함께 누리는 세계적 평화·생태 마을” 로 제안함.

(1) 평화 · 생태 마을

○ 구 접경지역을 평화를 상징하는 지역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접경지역의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강원도는 이러한 정책 변화의 흐름을 강원도 발전의 중요한 기회로 삼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또한 평화지역과 관련하여 강원도는 광역 교통망 개선 등 평화지역 지역개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평화지역 담당부서를 설치하는 등 조직개편을 포함한 추진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음.
- 평화지역 여성친화마을 조성은 강원도가 평화 상징지역으로서의 주도권을 갖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서도 중요성이 있음. 강원도 평화지역이 평화를 상징하는 지역으로 내실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민 생활여건 개선이 필수적임.
-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강원도 평화지역의 최대 약점인 인구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 특히 젊은 여성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평화지역의 인구구조를 고려할 때 청장년 여성인구 유입 및 정주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인구정책과 관련해서는 강원도 인구정책기본계획(2018-2022)에서 밝히고 있듯이 인구증대를 목표로 하는 것이 현실성을 갖기 어려우나, 인구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필요함.
- 이에 출산, 돌봄 등에 관한 현실적인 정책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여성 일자리 등 실제로 인구 유출을 불러오는 문제에도 대응이 필요함. 이는 귀농·귀촌 지원정책과도 연계될 수 있음.
-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전쟁과 분단이 여성에게 가한 폭력과 삶의 왜곡에 관심을 가진 연구들이 꾸준히 지속되어 왔음. 이러한 노력은 국제사회적 연대행동으로도 나타남. 일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0년에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를 채택하였음. 이처럼 국제적으로도 전쟁을 극복하고 평화의 관점을 채택하는 것은 성평등 관점과 밀접히 연계됨.
- 강원도는 ‘2018 평창포럼 for 여성’을 여성과 평화를 주제로 하여 개최함으로써 성평등 관점과 평화를 연계하는 평화문화 운동을 이미 시작하였음. 이제 이러한 평화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도내에 여성이 주축이 된 여성 평화운동이 활성화된다면 평화문화를 확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생태환경은 강원도 평화지역의 중요한 자산이므로, 평화와 생태의 결합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평화지역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임. 평화지역은 생태관광을 발전시킴으로써 지역 경제를 부흥시키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 것임.
- 생태와 환경 이슈는 에코 페미니즘 등 여성적 가치와 결합해 왔음. 이에 강원도 평화지역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은 평화, 생태, 성평등을 결합시킴으로써 지역 특성을 살리고 강원도 발전에 기여하며, 나아가 도 평화지역이 평화와 생태보존에 있어서 세계적 위상을 가지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

(2) 모두 함께 누리는 마을

- 성평등은 비전에 담지 않고 대과제로 하여 평화와 생태라는 강원도 평화지역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의 핵심적 특성이 성평등을 여성이 주도하도록 하였음. 이것은 실질적으로 여성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시민참여단 활동에는 여성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임.
- 이렇듯, 강원도 평화지역 여성친화마을 조성의 비전은 기본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가지고 있는 성평등의 기초를 평화 및 생태와 강하게 연계시키는 것임. 하지만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이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성평등은 대과제로 제시하고, “모두가 함께 누림”을 비전으로 제시함.
- 이것은 여성친화마을이 담고 있는 기본 개념인 양성간의 평등뿐 아니라, 나아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함께 지역의 자원과 풍요를 누려야 한다는 개념을 표현함.
- 평화지역의 광역 교통망 발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국내외 관광객과 일자리를 위한 인구 유입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이에 평화지역 주민과 외국인들과의 갈등을 예방하는 것도 필요함. 이러한 목적을 위해 위해 “모두 함께 누림”을 비전에 담았음.
- 이동해 온 인구가 평화지역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의 안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 더욱이 청장년 여성의 단독 여행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여성 안전은 한층 더 중요한 정책임.
-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에서 여성의 안전은 여성을 위한 특별한 우대가 아니라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이동권을 위한 것이므로 일차적으로 성평등 개념에서 비롯된 것임. 즉, 성평등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성이 처해 있는 사회적 상황(gendered situation)을 고려한 조치임.
- 강원도 여성친화마을을 “세계적”인 마을로 조성한다는 비전을 담은 것은 평화의 상징지역으로서 평화지역의 위상이 단지 국내에서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자리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비전을 나타냄.
- 실제로 접경지역을 평화의 상징지역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국가 및 강원도의 노력은 이 지역을 세계적인 평화 상징지역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임. 평화지역에 관한 각종 개발계획도 단지 국내적 차원이 아니라 국제적인 인프라와의 연계를 고려하고 있음.

- 이에 이러한 평화지역 관련 정책기조의 흐름을 반영하여 강원도 평화지역을 “모두 함께 누리는 세계적인 평화·생태 마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조성할 것을 제안함.

2) 가치와 목표

- 강원도 평화지역 여성친화마을 조성의 비전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하여 가치와 목표를 제시함.
- 평화지역 여성친화마을 조성 비전에는 평화, 생태, 성평등의 가치가 연계되어 있음. 이에 강원도가 이 가치를 선도하는 지역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갖도록 노력할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음.
- “모두 함께 누림”의 비전은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목적에 따라 기본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중요한 가치로 포함하고 있음. 이에 가치로 “참여”를 제시하고, 강원도의 정책목표로서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참여의 질적·양적 확대를 제안하였음.
- 이것은 특히 강원도 평화지역 여성의 고용률이 높지만 질 좋은 일자리와 청년 여성을 위한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을 타개해야 함을 표현함.
- 돌봄과 나눔은 돌봄이 일방향적인 것이 아니라 양성간, 세대간 돌봄 등 마을 주민간의 상호협동의 필요를 제시한 것임. 강원도 평화지역의 고령인구비율이 높고 출생률도 높아 돌봄 수요가 양방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응책임. 돌봄은 주로 여성에게 전가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과 아동을 위한 이중돌봄 부담을 해소하는 것은 여성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함.
- 누림의 가치는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것임.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과 사업은 다양하고 광범위하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핵심적인 정책과 정책수단을 고려하여 필수적인 정책목표인 안전과 건강을 제안하였음.

비전	모두 함께 누리는 세계적 평화 · 생태 마을			
가치 와 목표	평화·생태· 성평등	참여	돌봄·나눔	누림
	평화·생태· 성평등의 글로벌 선도	여성의 경제 및 사회참여 양·질 확대	돌봄의 네트워킹	안전과 건강
정책 과제	대과제		중과제	
	성평등·평화·생태 의식 선도		-여성단체 및 주민의 성평등·평화·생태 의식제고 및 선도적 역량 강화 -생활 속 성평등·평화·생태 문화 확산	
	여성일자리 확대 및 질 제고		-젊은 여성 위한 일자리 확대 및 질 제고 -농업인 여성 지원 확대 -군가족 여성 등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여성대표성 제고 및 성평등추진체계 강화		-정치 및 공공분야 여성대표성 제고 -성평등 주무부서 인력확충 및 위상강화 -성평등 정책 관련 부서간 협력체계 강화	
	돌봄친화 환경 조성		-노인돌봄 및 아동 돌봄의 연계 -돌봄의 공공성 강화 -돌봄친화적 마을 문화	
	젠더폭력 대응 및 여성건강증진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등 젠더폭력 대응 체계 -산후조리원 및 산과 의료 서비스 확대	

[그림V-1] 평화지역 여성친화마을 조성 비전과 목표, 정책과제(안)

나. 추진체계 조성

- 여성친화도시(마을) 조성사업은 주로 시·군·구 기초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지만, 강원도 평화지역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은 재정이나 중요성에서 볼 때 도는 물론 국가적 차원의 관심이 필요해 보임.
- 여성가족부의 도시재생 연계사업이나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등 중앙정부 예산을 적극적으로 끌어오는 것도 가능함. 이를 위해서는 도와 평화지역 5개군의 협력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함.
- 하지만 현재, 강원도 차원에서는 시·군의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과 연관체계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음. 여성친화마을 조성체계는 기초지자체 차원에 한정되어 있고, 도가 여성친화도시 관련된 업무가 거의 없는 상황임.
- 이 절에서는 평화지역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을 위하여 도와 기초지자체의 추진 체계를 제안하고, 또한 도와 군이 추진체계를 위해 각각 해야 할 바를 설명함.

1) 평화지역 5개 군 차원

(1) 조례 및 업무배치 명시

- 평화지역 5개 군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추진체계는 가지고 있으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추진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음.
- 이에 평화지역에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지자체 차원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기존 조례에 관련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 여기에서는 이 사업을 위한 예산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시민참여단 등 주민 활동지원이 이 예산 안에서 가능하도록 함.
 - ※ 강원도 18개 시군 중 강릉, 영월, 원주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조례를 가지고 있는 시군은 강릉, 영월, 원주이며, 동해시는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여성친화도시 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 또한 기초지자체는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을 위해 양성평등 주무부서의 업무분장에 여성친화도시 업무담당자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매뉴얼에 따라 업무담당자는 최소 2인 이상을 배치함.

(2) 업무 평가체계에 포함

- 강원도 평화지역에 여성친화마을을 조성하는 것은 접경지역을 평화지역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출발을 나타내는 신호로 여겨질 것임. 이에 평화지역의 기초지자체는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을 군정의 주요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위의 목표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서의 참여와 협조가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 성과평가체계 BSC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업무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예를 들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제2기를 추진 중인 강원도 영월군은 공무원 평가체계 BSC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관련 실적을 포함하고 있음. 이는 부서들의 협조와 참여를 끌어내는 데에 효과적임.

(3) 여성친화마을 조성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

-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의 계획수립은 여성친화도시 인증 신청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인증에 관심을 가지는 지자체에서는 모두 추진하고 있음. 이 계획이 젠더 정책으로서의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의 목적에 잘 부합하고 목적을 위해 집중적인 사업을 조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성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5개년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특히 강원도의 특성과 강원도 중에서도 평화지역이라는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젠더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 중장기계획에는 주민요구에 관한 설문조사를 포함하여 주민의 정책수요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에 기초한 사업을 발굴해야 함.

(4) 주민활동에 대한 예산지원 및 다양한 주민조직 발굴과 협력

-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범죄 취약지역이나 교통사고 위험지역 등 위험한 지역을 찾아내고 안전지도를 제작하는 등 주민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해내는 사업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함. 이러한 주민활동을 위한 예산지원이 미미하여 활동에 비판을 받아 왔음.

- 이러한 주민활동의 대부분이 주부인 여성들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지원 없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가사노동과 같이 여성의 노동력을 대가 없이 사용하는 부블노동의 예가 될 수 있음.
-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여 실제로 강원도 내의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시·군들은 약간의 활동비 지원을 하고 있으나 미미한 수준임.
- 강원도 평화지역의 여성일자리, 노인일자리 지원사업들을 통해 대다수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어 여성단체 활동이 어렵다는 FGI의 결과를 고려할 때에도 평화지역에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에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주민참여활동에 대한 예산지원을 현실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임. 이에 기초지자체는 주민참여를 위해서 지역의 여러 시민단체들을 대상으로 정책을 홍보하고 참여를 이끌어내야 함.
- 이때 대상단체의 범위가 양성평등정책 업무 주무부서에 등록된 여성단체들에 국한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함. 이는 관에 등록되지 않은 채로 활동을 하는 새로운 주민 모임이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임. 예를 들어 도서관 소모임, 건강 리더 프로그램, 소규모 문화 동아리 등 다양한 주민 모임의 리스트를 파악하고 이러한 조직들을 거버넌스에 참여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 특히 화천군 등 등록 여성단체 수가 적은 지역에서는 여러 주민 모임의 리스트를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임.

2) 강원도 차원

(1) 여성친화마을 조례 제정 또는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관련 조항 구체화

- 강원도는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여성친화 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내용이라기 보다는 여성친화를 지향해야 한다는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한 내용으로 되어 있음.
- 이에 강원도 평화지역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을 위해서 도가 실질적인 추진체계를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함. 평화지역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이 강원도의 평화지역 선도지역이라는 이미지에 가져올 효과를 고려할 때, 도에서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 강원도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도정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친화도시 확장을 목표로 수립하고 있음. 이에 걸맞은 체계를 갖추도록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에 기존 강원도 여성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하거나, 기존의 양성평등기본조례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관련 조항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더불어 관련 조례 및 조항에서는 예산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또한 여성청소년가족과의 업무분장표에 여성친화도시 사업 담당자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2) 강원도 여성친화도시 네트워크 형성 및 강화

- 강원도 평화지역은 돌봄 인프라가 부족하여 여성친화마을 조성에 대한 주민 수요가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은 불충분한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 있음.
- 이 지역에 여성친화마을을 조성하는 것은 강원도의 평화상징 지역으로서의 위상 강화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임. 하지만 평화지역이 인접해 있고 접경지라는 공통된 성격 때문에 5개 군간 불필요한 중복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을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를 위해 네트워크를 통해 기본사업을 벤치마킹하고 특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 현재 본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에서 운영하는 강원도 여성친화도시 협의회가 있어 도내 여성친화도시 및 친화도시(마을) 조성에 관심을 가진 기초 시·군들이 참여하고 있음. 평화지역 5개군이 이러한 도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은 평화지역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임.
- 또는 강원도가 평화지역 여성친화마을 사업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강원도 평화지역 여성친화마을 전략회의’를 조직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이 회의에서 평화지역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의 목표, 예산확보방안, 특성화 전략을 모색함으로써 강원도 평화지역에 걸맞은 사업을 계획할 수도 있을 것임.
- 이 전략회의는 여성청소년과와 여성가족연구원 공동으로 운영하고, 도 및 평화지역 군의 실무자, 연관부서 실무자,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 컨설턴트 등 관련전문가가 참여함.

(3) 소규모 공모사업 통한 예산지원과 시민참여단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

- 현재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강원도가 시군에 지원하는 예산은 전혀 없음. 이러한 상황에서 도가 주축이 되어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임.
- 강원도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한 소규모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을 지원하고 지역 특화사업 개발을 격려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 지원된 예산은 시민참여단 활동 지원금으로 사용되도록 함.
- 이 공모사업은 평화지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심 있는 시군이 모두 참여할 수 있게 함. 평화지역은 이 공모사업에 응모준비를 하면서 지역 현안과 특성에 집중한 사업을 개발할 수 있음.
- 또한 강원도는 여성친화도시(마을) 시민참여단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민참여단 한마당’ 과 같은 행사를 개최하여 노고를 치하하고 특별히 모범적인 참여시민을 표창하는 것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도의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 담당자는 물론 평화지역 군의 담당공무원, 시민참여단에게 국내외 선진지역 견학의 기회를 주어 전문성, 자부심, 목표의식을 제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함.

다. 평화지역 여성친화마을 조성 시범사업(안) 제안

- 강원도 평화지역 여성친화마을 조성 비전, 목표, 정책과제 내용에 따라 특별히 예시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시범사업을 이 절에서 제안함.
- 평화 지역 전반이 인구 밀도가 낮으므로, 돌봄 인프라 및 서비스 공급에 관하여 시장원리로 접근하면 사업성이 낮아서 추진이 어려울 것임. 이에 인프라와 서비스 공급은 민간에서 하기 어렵고 공공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도 평화지역의 여성 일자리는 단기 일자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 가지는 여성의 일 기회가 많은 반면 질 좋은 일자리 부족이 만성화되어 있는 문제임. 이에 여성 취·창업을 위한 새로운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특히 이 지역 젊은 여성 인구 부족을 고려할 때 20-30대 젊은 여성들의 취·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

- 판문점 선언 등 최근의 남북간 평화 무드에 따른 광역철도 및 도로 건설 등 평화지역에 대규모의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사업들로 인해 평화지역 최대 자산인 생태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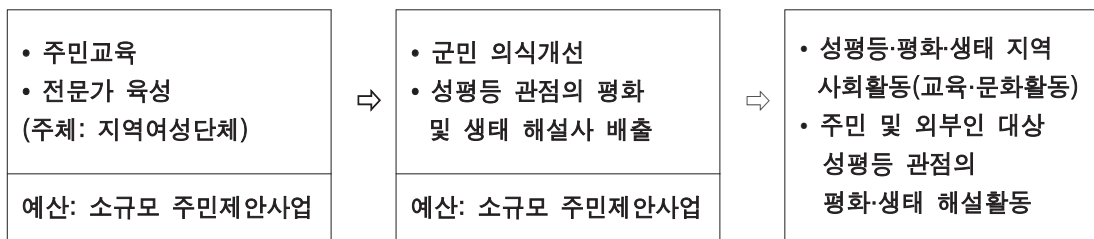
1) 성평등·생태·평화 문화선도 및 관련 여성 일자리 개발

(1) 젠더 관점의 생태·평화 문화운동 활성화 및 전문가 배양

-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은 그 목적이 성평등을 통한 마을 구성원 모두의 안전과 편의, 삶의 질 고양임. 이렇듯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모두가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한 것인 만큼 그 사업추진방식은 민이 주도 하면서 관과 협력하는 거버넌스의 형태라는 점이 그 핵심임.
- 평화지역은 여성단체 등 여성주민들이 군정에 협력적이지만, 여성단체의 활동이 거버넌스로 발전해 가는 단계에서 동원(mobilization)의 상황을 여전히 벗어나 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 이는 평화지역 여성단체들이 성평등 이슈에 관해서 거 활발히 문제제기 하고 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세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함.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젠더 관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여성단체의 역량강화 및 활성화가 중요함.
- 여성단체의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민·관 협력은 사실상 관이 주도 하게 되어 현실적으로 전문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런 상황을 벗어나고자 외부 전문가에게 의존하게 되는데, 이들 전문가가 지역의 사정을 잘 모를 경우 지역의 특수성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울 수도 있음.
- 이에 이 강원도 평화지역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여성주민과 여성단체의 역량을 배양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 과정은 단지 수동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식의 변화를 필요로 함. 이에 특히 사업준비 단계에서 여성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이 필요함. 이러한 교육과 컨설팅은 성평등 관점과 대안적 교수법(pedagogy)을 지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함.
- 평화지역 여성단체의 역량은 단지 성인지 관점만이 아니라 평화지역이 앞으로

발전해 갈 비전과 연결되어야 함. 생태주의와 평화의 관점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이러한 인식이 지역의 변화를 위한 기본적인 시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주민 문화 운동이 필요할 것임.

- 이에 성평등, 평화, 생태는 강원도 평화지역 여성단체 및 지도자들이 젠더 전문가로서의 갖추어야 할 역량의 특징적인 방향이라고 지적하고자 함. 이것을 평화지역 여성친화마을 조성의 가치기반이자 특성으로 확고히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여성단체의 역량강화는 일자리 개발과도 연계될 수 있음. 평화지역의 문화 및 역사 해설사, 자연해설사를 대상으로 평화와 성평등 관련 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의식을 제고하고, 성평등, 평화, 생태를 콘텐츠화 하도록 함.
- 이러한 의식화 및 교육을 여성단체들의 전문가들이 실시하도록 단체에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방안임. 또한 이러한 교육을 여성단체 및 시민참여단체에 시행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도록 모색함.
- 이러한 사업은 평화지역 5개 군에서 모두 필요하나, 특히 여성단체 세대교체가 필요하거나, 여성단체의 활동력이 미진한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의식화 사업은 다음과 같은 여성 일자리 사업과 연계 가능함.
 - 이주여성 일자리 개발 : 이주여성을 외국 관광객을 위한 지역문화 해설사로 육성하고 이들의 교육 프로그램에 성평등, 평화, 생태 관점을 콘텐츠 화함.
 - 군가족 고학력 전업주부 여성의 일자리 개발 : 군가족 고학력 주부들을 평화생태 해설사(초등학생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평화생태 교육)로 교육하고 활용.
 - 귀촌 여성 일자리 : 타지에 젊은 평화생태 여성활동가 및 전문가들이 교육 담당자로 일할 수 있도록 훈련 및 일자리 연계
 - 도시재생 소규모 주민제안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가능 : 교육 및 훈련 예산.



[그림V-2] 평화지역 성평등·평화·생태 주민 역량강화 사업 흐름도

(2) 다양한 주민대상 성폭력·가정폭력 및 인권교육

- 강원도 평화지역은 12세 미만 아동 및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및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있지만, 철원군에 가정폭력상담소가 있는 것 외에는 지원시설이 부족하여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인근 도시로 가야 하는 상황임.
- 이에 평화지역은 성폭력과 가정폭력처럼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은 물론 사후상담 등의 조치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지역임.
- 이에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함.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다양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의식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 이것은 여성단체가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예산은 여성가족부의 소규모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확보하도록 노력함.
- 교육 및 의식화 프로그램은 다양한 집단의 특성과 학습 준비도(readiness)에 맞도록 개발하여 운영함.
 - 유아용, 여성주민용, 노인용, 남성용, 여성단체 지도자용 등으로 개발하여 시행
- 일방적인 주입식 강의가 되지 않도록 대안적 교수법(pedagogy)을 가진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시행함.

(3) 여성·평화 가치의 글로벌 선도 위한 문화사업

□ 여성과 전쟁·분단 역사박물관 건립

- 평화문화 선도를 위해서는 전쟁과 분단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함. 이러한 관점이 주민들 및 외부 방문객에게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 전쟁과 분단에 관한 여성사 박물관을 건립함.
- 이 박물관은 전쟁과 분단에 관한 여성의 경험과 기억을 기록하고 보관함으로써 전쟁과 폭력의 역사를 성찰하고, 평화의 중요성과 가치를 일깨우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함.
- 전쟁과 분단에 관한 여성사 박물관은 구술사 자료 등 각장 사료와 물품도 전시함. 이곳은 단지 전시만이 아니라 국내외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한 평화교육 장소로 조성함.
- 박물관 조성과 운영을 위해 지역의 여성단체 등 젠더 전문 조직 및 대학과 연계하여 여성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활용함.

- 현재 서울 용산구에 전쟁기념관이 있으나 호국 영웅의 희생과 공적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서, 호전적인 전시양식과 개념에 기초해 있음.
- 여성사 박물관으로는 우리 나라에 국립여성사 전시관이 고양시에 있고, 세계 여러 나라에 여성 및 여성사 박물관이 다수 있음.

<국립여성사전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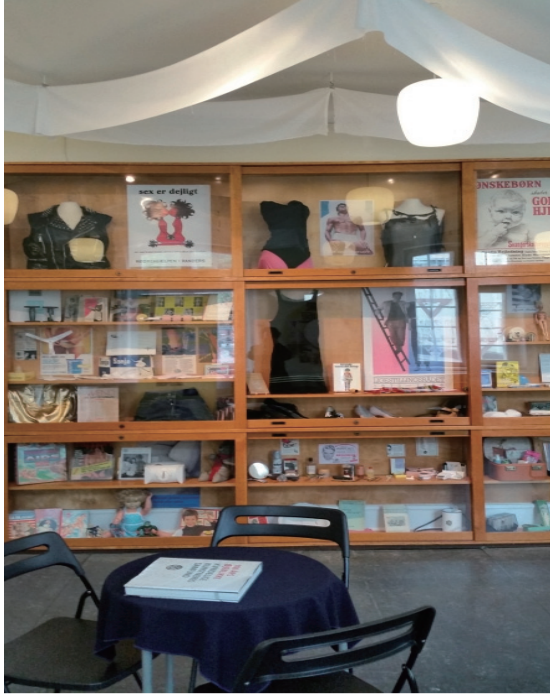
- 국립여성사전시관은 일본군위안부, 여성의 독립운동 등에 관한 자료 등 한국여성사의 다양한 측면과 주제에 관해 전시하고 있음.
- 하지만 전쟁과 분단을 주제로 한 전시는 하고 있지 않음.
- 경기도 고양시 소재.

사진 : 국립여성사전시관의 일본군위안부 할머니의 동상(출처 : 국립여성사전시관 홈페이지)

<덴마크 오르후스(Arhus) 여성사박물관>



- 덴마크 제2의 대도시 오르후스에 중앙에 위치한 여성박물관 전경
- 1982년에 건립. 1991년에 국립박물관으로 지정.
- 여성구술사 자료 보유.



• 덴마크 오르후스 박물관 내부 모습

위와 아래 사진 :
기계형, 기계형의 세계여성박물관을 찾아서 3) 덴마크여성사박물관 (여성신문 2017. 7. 9.)
<http://www.womennews.co.kr/news/view.asp?num=98535>

□ 남북여성평화회의의 구성 및 운영

- 남과 북의 교류차원에서 여성 지도자들간 만남을 정례화함. 성평등 등 여성 이슈와 남북한 여성의 지위와 경험에 관한 공감대와 공동과제를 발견하고 상호이해를 확대하기 위한 포럼으로 조직.
 - 포럼형식의 정기회의로 함.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적인 평창여성포럼(가칭)과 연계하여 국제적인 행사로 확대하는 것도 가능함.
 - 공동회의는 남북한 여성협력사업으로 추진함. 남북한 주민 협력사업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문화·학술·체육 분야의 행사 및 활동으로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경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음.
 - 현재 평화이슈를 중심으로 한 여성회의 및 조직들이 있으나 성평등 관점이 다소 불충분하거나 성평등 이슈를 제기하지 않는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작단계에서 남북한 여성들간의 성평등의제 공유라는 목적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성평등과 평화 이슈는 서로 잘 연계될 수 있음. 자칫 남북 가부장제의 통일이나 화합이 되지 않도록 여성이 참여하고 여성의 관점에서 평화의 가치를 토론하는 자리 만들 필요가 있음.
- 이는 강원 여성의 성인지 역량 제고를 강하게 요구할 뿐 아니라 그것을 결과하기도 하는 좋은 이슈임. 특히 젊은 여성 젠더활동가들의 관심을 제고하면서 지역 여성단체의 세대 재생산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음.
- 이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여성단체 및 젠더 전문가와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2) 지역 맞춤형 여성 일자리 확대 및 돌봄 네트워크

(1)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 철원 등 평화지역 내 농업기반이 강한 지역은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음. 이는 농촌지역 여성의 일과 가정 균형이 어려운 현실을 시사함. 이에 농업인 여성의 일과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로서 여성농업인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재 평화지역에는 양구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가 있음.
- 여성농업인센터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위한 지원뿐 아니라 인문교양강좌, 육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고충상담 및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
- 철원과 같은 농업중심 지역에 남북한여성 영농기술 교류 센터 및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것도 바람직함.
-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7조(여성농어업인의 육성)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 사례 : (사)횡성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 사단법인의 형태로 운영 중임.
- 영농교육 및 정보나누기, 나눔밥상, 동네부엌 행사 통해 요리교실 및 음식 나누기, 동화책 전시회, 보리어린이집 운영, 여성농민 대상 사회문화 교육 등



사진 : 흥성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온라인 카페
<http://cafe.daum.net/hsyeonong/Sxxv/6>



사진 : 흥성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온라인 카페
<http://cafe.daum.net/hsyeonong/U1pf/40>

□ 사례 : (사)지리산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 사단법인의 형태로 운영 중임.
-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과 사회적 지위향상, 전문인력화 ” 목적명시
- 상담, 다문화사업, 도농 직거래, 농어업인 가족지원, 농어촌지역 아동·청소년지원



정보화 교실



교육장



다문화예술치료



허브체험

사진 : 지리산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jicenter.net/>

(2) 농촌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설치·운영

- 평화지역에 젊은 여성의 농촌 취·창업,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여성 귀농·귀촌을 지원하기 위한 농촌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설치함.
-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새로일하기센터 프로그램에 농촌형 프로그램을 접목함.
- 평화지역 특성 반영한 성평등·평화·생태 관점의 문화해설사 양성과정 운영도 가능함.

□ 사례 : 영월군 농촌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경력단절 여성 및 결혼이민 여성의 경제자립 지원과 일자리 연계
- 찾아가는 새일센터로서 관내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아파트 단지, 지역축제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이동 상담실 운영
- 사후관리로서 꿈드림데이(취업 1개월 후 축하선물 및 간식 지원), 멘티멘토 프로그램 운영, 워킹맘 자녀진로설계 프로그램 등 운영

(3) 복합 돌봄 공간과 돌봄 네트워킹 : 돌봄키즈카페 + 공동육아나눔터 + 여성취창업 보육센터

- 평화지역에는 공공 키즈카페가 없으며, 공동육아나눔터도 없어, 육아 중인 여성 등 주민이 육아 관련 정보를 얻거나 네트워킹 통한 사회참여를 모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특히 군가족 여성 등 타지에서 온 여성들은 정보와 사회적 관계로부터 고립될 수 있음.
- 이에 관내 유희시설을 이용하여 공동육아정보나눔터와 키즈카페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센터를 만들고 이를 민간 여성단체 등에 위탁운영함. 키즈카페 겸 공동육아나눔터는 평화지역 5개군에 최소한 하나씩 설치되도록 추진하되, 장기적으로는 읍면에 하나씩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여성취창업보육센터나 농촌형 새일센터와 사업연계 및 복합공간 조성도 가능함.

□ 사례 : 제주도 수놓음육아나눔터 조성사업

- 제주도에 설치된 시설로서 자녀돌봄이 필요한 주민들 공용 공간

- 장난감 대여, 부모 및 자녀 참여 프로그램, 육아정보 제공, 품앗이육아
- 여성가족부의 공모사업을 통해 마을회관, 복지관, 아파트, 도서관 등 33㎡(10평)이상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조성(2017년 12월 말 현재 제주도 20개소 전국 91개 지역 160개소)



제주 수놓음 육아나눔터 14호점
 사진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eogwipo-si&logNo=221299425338>



제주도 수놓음육아나눔터 20호점
 사진: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supbody&logNo=221168556336>

□ 사례 : 창업 및 고용지원센터

- 서울시, 고양시, 경기도 등의 여성창업지원센터, 마포구 고용복지센터 등의 시설
- 교육, 컨설팅, 정보안내, 인큐베이팅 위한 사무 및 작업, 제품판매 가능
- 공동사무실(카페형태) 및 개인사무실, 육아실 등 공간제공



경기도여성창업보육센터 코워킹 사무실
 사진 : 허목화(2017)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카페
 사진 : 허목화(2017)



서울시 여성창업 플라자 제품촬영 스튜디오
 사진 :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ykmin921/221133860664>



서울 여성창업 플라자 시설
 사진 :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ykmin921/221133860664>

□ 사례 : 독일 베를린 미테 ‘아내들의 창업주 협동조합’

-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확대·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
- 창업자금, 공간, 노하우 제공. 조합에 소속된 대출업체를 통해 일반 신용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소액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조합 건물에 낮은 임대료의 사무실 임대 가능
- 건물 안에 유치원 설치.
- 조합 건물 안에 여성창업자센터에서 창업상담 제공.
- 여성창업자와 다른 창업자들, 전문가 간의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

(내용 및 사진 : 한주연 통신문 “ ‘어편네’ 들 힘 모으니, 접시 깨지긴 커녕 사장님으로 우뚝” (한겨레 신문 2013. 8. 22.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600585.html)

(4) 아동-노인 돌봄연계 위한 복합공간 조성 및 서비스

- 평화지역은 노인인구 비율이 높고, 특히 노인 1인가구 비율이 높음. 맞벌이 가구 아동의 방과후 돌봄과 1인 가구 독거노인 돌봄을 연계하여 마을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
- 마을의 가운데에 공공시설 유휴 공간을 이용하여 함께 모여, 방과 후 프로그램 및 공동식사.

- 특히 인제와 고성처럼 노인인구 비율 높고, 노인 1인 가구수 많은 지역에서 추진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례 : 경기도 의정부시 ON 브릿지 사업

- 아동과 노인 세대간 공동 돌봄 프로그램
- 주중 : 15:00~18:00 운영, 주말 : ‘대가족 밥상’ 운영, 전통놀이체험.



사진(좌, 우) : 최유진 (2017)

3) 여성 및 아동이 안전한 지역 만들기

- 평화지역은 철원에만 가정폭력상담소가 있고 성폭력상담소는 모두 인근 도시의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등 여성안전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함.
- 특히 고성은 평화지역 중에서 상대적으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성폭력 및 가정 폭력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있음. 이러한 지역사회 환경은 여성의 사회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지역에 대한 정주의식을 약화시킴.
- 고성지역은 앞으로 동해안 지역발전 위한 각종 기반시설 확충사업 과정에서 일 자리를 찾아온 외지인과, 높아진 지역 위상 때문에 늘어난 관광객 등으로 유입 인구가 많아질 수 있음. 이러한 변화는 여성 안전 대책을 더욱 필요로 할 것임.
-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밝은 지역공간 이미지를 만들고 여성이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함. 이를 위해 어두운 거리에 CPTED를 적용하고 여성이 걷기좋은 길 조성 사업을 벌이는 등 안전과 심미를 동시에 추구함.
 - 가로등이 부족한 지역에 생태와 평화를 테마로 한 ‘여성이 걷고 싶은 길’ 조성.
- 또한 어린이 하교길 동행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린이 안전도 도모함. 이것은 중고령 및 노인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음.

□ 사례 : 도심 속 여성의 걷고 싶은 옛길 조성사업(대전시 대덕구)

- 도심 및 구 시가지 중심지역 중 공원이 필요한 지역에 조성하여 여성 안전 도모, 심미적 공간이자 가족휴식 공간 제공
- 대전시 대덕구 ‘도심 속 여성이 걷고 싶은 옛길 ’ 조성
- 황토길 조성, 여성 문인 스토리 텔링과 연계



사진 : 대전시 대덕구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daedeokgu&logNo=221292322508>

□ 사례 :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인천광역시 부평구)

- 주거지역 내 마을길 500~1,000m 내외, 건물 및 시설물 개보수, 집 앞 녹화, 공터 개선, 주민 욕구에 따라 CCTV 및 보안등 설치



사진 : 인천시 부평구 블로그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https://blog.naver.com/withbupyeong/221016170683>



사진 : 인천시 부평구 블로그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https://blog.naver.com/withbupyeong/221014068964>

□ 사례 : 여성과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 만들기(인천광역시)

- 어린이 안전과 노인 일자리 연계한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 사업.
- 하굣길, 놀이터, 상가 등 학교 주변 순찰 통제 위험 예방, 경찰청 및 경찰서와 비상 연락망 체계 갖추.
- 순찰시 도로파손 등 시설 설비 안전 점검도 병행
-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노면에 노란색 구간 조성(엘로우 카펫). 어린이가 노란 색 구간에 서 있게 함으로써 운전자들의 눈에 쉽게 띄어 교통사고 예방 효과.
- 밤거리 노면 가로등 설치, 안심수호기사단 결성 등



사진 : <http://blog.daum.net/nowljs/1635>



사진 : <https://blog.naver.com/law2033/221257158876>

참고문헌

- 김범수(2015), 『강원도 접경지역의 민군관계 실태와 과제 : 철원군을 중심으로』, 강원발전연구원 연구보고, pp.15-17.
- 김범수(2013), 『접경지역정책과 강원도』, 강원발전연구원 정책메모 제299호.
- 김승희(2012), 『강원도 고령친화마을 조성방안』, 강원발전연구원.
- 김예성(2018),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주요내용과 향후과제』, 국회입법조사처 편, 이슈와 논점, 1470.
- 민소담(2017), 『강원도 벽지 거주여성 범죄안 실태 및 대책』,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보고서.
- 보건복지부 (2018), 『다함께 돌봄』 사업 개요
- 안희정 · 이갑숙(2010), 『강원도 여성친화마을 모델 개발』,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보고서.
- 여성가족부(2018a), 『2018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운영 지침.
- 여성가족부(2018b),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개요.
- 여성가족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7), “2017년 여성친화도시 담당자 및 컨설턴트 워크숍 자료집” .
- 여성가족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7), 『2017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
- 여성가족부(2014),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 이행을 위한 대한민국 국가행동계획』 .
- 오미란 외(2018), 『횡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강원도 횡성군청.
- 오미란(2016), “광주 여성친화 5년 성과와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광주광역시 주최 여성친화도시 추진현황과 향후과제 자료집.
- 이미원(2009),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 및 발전방향』, 여성부 연구보고 2009-04.
- 박종필(2015), 『강원 접경지역의 성장지체 요인 및 경제 활성화 방안』, 한국은행 강원본부
- 장은진(2017), 『강원도 아동급식 실태와 지원방안』,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보고서.
- 정혜윤 · 안태운(2015), 『경기도 여성친화 안심마을 조성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정책과제.

- 조주은·김예성(2017), 『여성친화도시의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현장조사보고서 50.
- 주혜진(2016),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와 입장 : 대전시 동구 사례를 통해 본 동상이몽”, 『페미니즘연구』, 16(2), pp.133-175.
- 최경인·허목화·윤지영(2017), 『강원도 및 시군별 보육수급 현황과 정책과제』,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보고서.
- 최유진·김양희·오미란·이미원·장미현·문희영(2017), 『여성친화도시 이행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최유진·이택면·김승희·문희영(2018),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5개년계획(2018-2022)』.
- 최유진(2016), “여성친화도시 사업현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광주광역시 주최 여성친화도시 추진현황과 향후과제 자료집
- 파레냐스·라셀 살라자르(2009), 『세계화의 하인들 - 여성, 이주, 가사노동』, 문헌아 옮김,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여이연이론 17.
- 허목화(2017), 『강원도 여성창업보육센터 지원방안 모색』,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보고서.
- 강원도(2018),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강원도 농정과 내부자료.
- 강원도(2018), 『남북교류협력사업 기본계획 : 평화의 중심지 강원도』, 강원도청.
- 국토교통부(2018a),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국토부 공모)”.
- 국토교통부(2018b), 관계부처 연계사업(75개) 설명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도시재생 뉴딜, 공적임대 공급·스타트업 육성 등 특화사업에 중점 연내 70곳 내외 시범사업 선정...주거복지·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주력”, 2017년 9월 14일.
- 여성가족부(2018.6.12.), 정책뉴스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여성의 힘을 입히다.
<http://www.mogef.go.kr/nw/enw/nw>
-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2000), 『*Resolution 1325 on Women, Peace and Security : Understanding the Implications*』, *Fulfilling the Obligations*.
- 강원통계정보, <http://stat.gwd.go.kr/>
- 마을미술프로젝트 홈페이지, <http://www.maeulmisul.org/>
-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

제6장

부 록

1.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과 연계 가능한
평화지역 5개군 및 중앙부처 사업
2. 초점집단 면접조사 설문

<부록 1>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과 연계 가능한 평화지역 5개군 및 중앙부처 사업

1. 평화지역 정책 및 사업현황

- 평화지역 5개 군별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에 관한 중장기계획은 없으나, 군별 지역발전 위한 중장기 계획 중 사업내용과 성과가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과 연계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음. 2018년도 사업계획에도 유사한 성격의 사업들이 있음.
- 이 절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추려서 ‘연계 가능 사업’ 으로 제시함. 중장기계획에서 사업 관련 내용을 찾아보기 쉽도록 계획서상의 번호의 번호가 있는 경우 그것을 따랐음.

가. 철원군

1) 철원군 2030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

- 비전: 평화와 생명이 공존하는 통일수도
- 전략:
 - 광역 연계체계의 강화/ 농림축산업의 혁신과 첨단화 / 친 산업 환경의 조성
 - 계층·세대·민군 통합과 사회적 자본 구축
 - 한반도 중부의 생태·평화 거점도시 조성
- 아젠다 및 핵심 전략사업
 - 사회적 자본 축진의 도시재생 활성화
 - 열린 교육도시 만들기 (도시/보건 복지/사회)
 - 창조거리 만들기(도시/보건 복지/사회)

<표VI-1> 철원군 203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의 여성친화마을조성 연계가능 사업

부분별 계획	
<p>1. 남북교류협력분야 추진전략 및 과제 -직접적으로 여성친화 관련 전략 및 과제 없음.</p> <p>2. 건설, 교통 분야 추진전략 및 과제 도시재생 통한 신 거점의 구축 -열린교육도시 조성 -동승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농촌 작은 거점 만들기</p> <p>3. 문화 관광 분야 추진전략 및 과제 주민주도형 문화공간 조성 -문화마을조성 -1읍면 1생활문화진흥 프로젝트 청소년 대상 문화지원 강화 -청년문화레지던스사업 -어린이 창의박물관 건립</p> <p>4. 산업, 경제 분야 추진전략 및 과제 -직접적으로 여성친화 관련 전략 및 과제 없음.</p> <p>5. 농림축산/농촌 분야 추진전략 및 과제 -직접적으로 여성친화 관련 전략 및 과제 없음.</p>	<p>6. 지역개발/환경 분야 추진전략 및 과제 -직접적으로 여성친화 관련 전략 및 과제 없음.</p> <p>1) 다양한 사회교육 실시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군민의 자기 개발과 삶의 질 향상</p> <p>2) 아동 여성 폭력 예방 및 여성,아동인권 보호지원체계 구축(여성의 권익증진 확대)</p> <p>3) 다문화가족의 안정화와 지역사회 정착 및 기틀 마련</p> <p>○ 영유아 보육지원으로 아동의 건전육성 조성</p> <p>1) 영유아를 밝은 미래의 동량으로 육성하고자 운영여건 조성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p> <p>3) 유아 및 아동의 창의성 개발을 위한 안전한 놀이공간 조성 (㉔ 어린이 실내 상상놀이터 신축)</p> <p>7. 보건복지/교육분야 추진전략 및 과제 열린 교육환경 조성 - ICT 중심 농산촌 전원학교 건립 - 지역학습공동체 활성화 사업</p>

<표VI-2> 철원군 2018 주요업무추진계획의 여성친화마을조성 연계가능사업

2018 주요업무 중 여성친화 연계 가능한 사업	
<p><관광과></p> <p>⑤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 ⑧ 철원 고석 지오파크 조성사업 ⑩ DMZ 생태평화공원 운영 활성화</p> <p><자치행정과></p> <p>② 철원을 빛낸 인물 공적 선양사업 추진 13) 귀농인 지원사업 15) 농촌체험 “철원에서 살아보기” 운영 20) 사문안 뚜루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p> <p><주민생활지원과></p> <p>16) 여성의 권익증진 확대 18)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 ⑩ 아동의 건전육성 지원</p>	<p><문화체육과></p> <p>⑦ 와수천 주민친화공간 조성사업 ⑧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⑨ 작은영화관 운영</p> <p><민원봉사과></p> <p>③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추진 ⑦ 농·어촌버스 운영 활성화 추진 10) 희망택시 운영</p> <p><환경산림과></p> <p>⑬ 두루웰 숲속문화촌 조성</p> <p><농업지원과></p>

2018 주요업무 중 여성친화 연계 가능한 사업	
⑳ 어린이 실내 상상놀이터 신축 <경제진흥과> ② 추억과 함께 정을 나누는 장터촌 만들기 사업 17) 일자리 창출 발굴 추진 <인재육성과> ⑯ 함께하는 「철원군 마을교육공동체」 추진	③ 신규농업인(귀농·귀촌) 정착 지원 ⑥ 농촌여성교육 및 생활개선회 활성화 -> 개선필요 ⑧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⑯ 릴레이 팜파티 프로그램 운영 <보건소> ③ 분만 산부인과 및 공공산후조리원 신축 ⑧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⑭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⑮ 출산·양육 지원사업

나. 화천군

1)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중·장기 추진 계획 (2017-2026)

[비전]

- “세계 제1의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 “출산율 전국 1위, 인구 3만명 달성”
- “행복한 마음, 신나는 삶, 밝은 화천”

[추진방향]

-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를 위한 기반여건 조성
-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를 위한 생애단계별 시책개발
-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지속적 추진을 위한 정책 범제화

[추진내용]

-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
- 공교육 지원 확대
-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 다자녀 및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 확대
- 지역출신 공무원 임용

<표VI-3> 화천군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증장기 계획의 여성친화마을조성 연계가능 사업

[신규사업 추진계획]	
1. 아이기르기 좋은 화천, 환경 조성 ① 키즈센터 건립 ② 화천장애인복지센터 건립 ③ 사내수영장 건립 ④ 장난감 대여소 운영 ⑤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지원조례 제정 ⑥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자문위원회 구성 ⑦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가이드북 제작	2.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시책개발 추진 ⑧ 소아청소년과 서비스 개선 ⑩ 다자녀 가정 지원 ⑪ 고등학생 무상급식 확대 지원 ⑬ 화천군 아이돌봄 지원사업 ⑭ 농어촌학생 통학여건 개선 ⑮ 장애아동 교통비 지원 ⑯ 경력단절 여성 지원 ⑰ 다문화가정 아동 방문학습 지원 ⑱ 화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2018년 시행계획

[2018년 아동정책 추진방향]

- 교육소외지역의 교육복지환경 개선으로 건전한 여가활동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교육중심도시 화천으로 도약
-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시설환경 구축 및 꿈과 비전이 정립된 지역인재 육성
- 부모·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 저출산·다문화·장애인·경력단절여성·의료 등의 문제를 분야별로 분석 후 개선대책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조성

<표VI-4>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2018년 화천군 시행계획의 여성친화마을조성 연계가능 사업

[과제별 시행계획]	
I. 미래를 준비하는 삶 1-1-4 어린이집 부모교육 지원 1-1-8 장난감 대여소 운영 1-1-9 행복교육지구 운영	III. 안전한 삶 3-1-1 어린이놀이터 시설관리 및 보수 3-1-4 농어촌학생 통학여건 개선

[과제별 시행계획]	
II. 건강한 삶 p.35 2-1-1 연중(365일) 아동급식 지원 2-1-2 소아청소년과 민간전문의 업무대행 지원사업 2-1-3 모자보건사업	IV. 함께하는 삶 4-1-1 공립 푸르나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V. 기본계획 실행기반 조성 5-1-1 화천청소년수련관 운영 5-1-2 공공 어린이도서관 운영

<표VI-5> 화천군 2018 주요업무추진계획의 여성친화마을조성 연계가능 사업

화천군 주요업무 추진 계획(2018년 기준) 중 여성친화 관련 사업	
<p><기획감사실></p> <p>1.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꽃·빛향 평화생태마을 조성 (관광정책과 상서 종합문화센터 신축 (주민복지과 화천 문화복지시설 확충 (주민복지과 용화산 아랫말 생태마을 조성 (관광정책과 교육문화 커뮤니티 공간조성 (문화체육과 종합아트프라자 조성사업 (문화체육과 화천키즈센터 건립 (교육복지과</p> <p>5.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추진 (지역발전위원회 주관 '13년부터 추진된 공모사업으로 생활권내 지자체간 연계협력을 통해 중복 투자 방지와 자원 공동 활용을 통한 주민서비스 제고 사업. ※본 사업은 접경지역 청소년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화천군 주관 철원, 양구와 연계 협력 추진 사업임.)</p> <p>6. 취약지역 ICT거리 조성사업 (기획감사실)</p> <p>7. 명월3리 행복마을 마을회관 조성사업 (기획감사실)</p> <p><민원봉사실></p> <p><input type="checkbox"/>주거안정 및 효율적 건축행정체계 구축 - 신읍리 평화생태마을조성사업 (* 전역자 인구 유입 주거환경 인프라 구축)</p> <p><input type="checkbox"/>주거 및 생활환경 정비를 통한 주민 정주여건 개선 - 봉오새뜰마을조성사업 (*사업내용: 취약한 주거 환경 개선, 노인. 아동을 위한 안전시설정비-마을유휴지 정비 및 환경개선으로 주민 정주여건 개선) - 오음새뜰마을조성사업 (*사업내용: 취약한 주거 환경 개선, 노인. 아동을 위한 안전시설</p>	<p>8. 질서 확립 기반구축 (* 범죄발생 사전예방 지원-범죄예방 및 재난대응을 위한 방범용 CCTV 구축)</p> <p><교육복지과></p> <p><input type="checkbox"/>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추진</p> <p>1.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추진</p> <p>2. 화천키즈센터 건립</p> <p>3.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번개맨!!! 공연 개최 .</p> <p>4.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수능힐링콘서트!!! 개최</p> <p>5. 주니어 아카데미 운영 .</p> <p>6. 장난감대여소 운영</p> <p><input type="checkbox"/>공교육 활성화 지원</p> <p>1. 방과후 학교 지원 및 공교육 활성화 지원</p> <p><주민복지과></p> <p><input type="checkbox"/>활기찬 복지기반 구축</p> <p>1. 상서종합문화센터 신축</p> <p><input type="checkbox"/>여성의 권익증진 및 양육친화적 보육환경 조성</p> <p>6.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p> <p>7. 여성에 대한 인권보장 및 안전한 사회 조성</p> <p>9. 보육비용 경감 및 맞춤형 보육 활성화</p> <p>11.건강가정·다문화가족 안정적인 생활기반 구축 (*통합교육운영: 가족, 성평등, 인권, 사회통합등분야별교육운영)</p> <p><input type="checkbox"/>어르신들이 건강하고 따뜻한 복지 구현</p> <p>23.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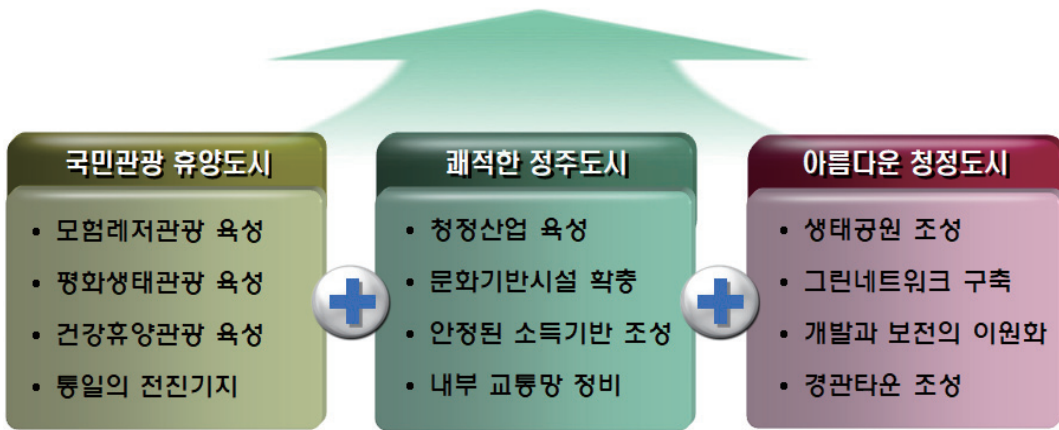
화천군 주요업무 추진 계획(2018년 기준) 중 여성친화 관련 사업	
<p>정비-마을유휴지 정비 및 환경개선으로 주민 정주여건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실버주택 및 실버복지관 건립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립 -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p><자치행정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조직안정화를 통한 효율적 업무추진 기반 마련 2. 대외협력 지원강화를 통한 소통행정 구현 <input type="checkbox"/> 안전이 우선되는 밝은 화천 구현 7. 군민의 생명.재산보호 및 비상.안보태세 확립 <p><문화체육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문화예술역량강화와기반확충 6. 간동 영화관 조성 <input type="checkbox"/> 군민공감 스포츠 역량 강화 17. 화천 KSPO 여자축구단 운영지원 20.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여자축구단 운영지원 <input type="checkbox"/> 체육시설 확충 및 활용도 제고 29. 화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30. 사내 실내수영장 건립사업 31. 간동 생활체육구장 조성 32. 화천 생활체육공원 개선 사업 34. 하남면 실내 게이트볼장 신축 36. 화천 생활체육공원 휘트니스센터 정비 37. 화천 생활체육공원 경관 개선 38. 화천 생활체육시설 정비 사업 <p><지역경제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효율적인 도시 관리 19.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 관리 21. 도시재생사업 <p><농촌개발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농가경영 안정화와 농업인 복지 향상 3. 현장중심밀착형농업 농촌행정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 ◦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p><관광정책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사계관광 활성화 기반 여건 확충 6. 파로호 선착장 주변 환경개선 사업 8. 꽃빛·향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input type="checkbox"/> 관광자원 활용도 및 가치 제고 10. 산천어공방 운영 <p><건설방재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쾌적한 접근 도로망 확충 및 녹색성장 기반 시설 구축 4. 북한강 호수변 체험공간 조성사업 <input type="checkbox"/> 맞춤형 관리를 통한 친환경 수변공간 조성 15. 주민친화적소하천정비 <p><보건의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임신·출산에서 육아까지 복지 시혜 확대 8. 고위험 임신부 지원사업 9. 분만 취약지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자체사업 1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1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자체사업 14.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p><농업기술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전문농업인 교육 및 학습단체 운영 13. 6차산업선도 농촌주민 전문인력 양성 <input type="checkbox"/> 농촌생활 개선 활력화 지원 27. 농촌여성 소규모 농산물 생산·가공 지원 <input type="checkbox"/> 산림사업 지원을 통한 소득기반 창출 41. 화천 수달평화생태마을 조성 <input type="checkbox"/>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42. 산촌 생태마을 운영 44. 산림 탄소순환마을 조성

다. 인제군

<인제 종합발전계획 >

모험과 낭만이 가득한 종합 관광, 휴양레저 도시

모험과 낭만이 가득한 종합 관광·휴양레저 도시



<표VI-6> 인제군 종합발전계획의 여성친화마을조성 관련사업

부문별 개발 전략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살기좋은 정주공간 구상 2. 편리한 기반시설 구축 3. 보람 찾는 농업, 신명 나는 경제 4. 사계절 관광을 통한 생산적인 관광 육성 5. 청정환경의 보전과 육성 6.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함께하는 복지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찾아가는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시설 확충 및 의료서비스 기능 강화(종합병원 유치, 보건기관 전문의료인력 확충:20명)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확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 사회복지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 아동 보육서비스 수준의 제고 및 청소년을 위한 건전 놀이공간 조성 ○여성의 능력 개발 및 여성활동 강화 : 농촌 여성 여가 활동 기회 확대 및 건강관리실 설치 운영 - 마. 교육·문화·체육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 기반시설을 강화하여 군민에 삶의 질 제고 ○읍·면별 생활체육공원 1개소씩 지속적 추진 ○지역별 주민 휴식공간 조성

<표VI-7> 인제군 2018 군정업무계획의 여성친화마을조성 관련사업

2018년 군정업무계획	
<p><기획감사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저출산 극복 및 인구 늘리기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와 아이 모두 <행복한 INJE I 프로젝트>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과 미래지향적인 시책개발): 2018년 2월 관련조례 “부모와 아이 모두 행복한 인제 만들기 지원 조례” 제정, 저출산 극복 및 인구늘리기 종합 대책 연구용역 시행 ◦ 친환경 키즈파크 <하늘내린 노리마루> 조성 <p><자치행정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사회 안전 기반 확충 및 정보통신 고도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p><주민복지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행복하고 건강한 여성, 가정, 나눔 복지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및 양성평등 실현 ◦ 일,가정 양립의 가족친화 환경조성 ◦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p><문화관광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문화누리권 향상을 위한 다각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복지 복합건물 건립 ◦ 인제기적의도서관 건립 ◦ 군립도서관 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p><체육청소년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함께 나누는 고품격 체육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통다목적체육관 건립 ◦ 기린다목적체육관 건립 ◦ 인제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 <input type="checkbox"/> 행복한 아동, 건전한 청소년 육성정책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개선 지원 ◦ 인제읍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p><환경보호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녹색공간 확충으로 생활환경 개선 및 산림휴양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 도시숲 조성,관리 ◦ 나무은행 조성, 운영 (마을별 특화수종 녹색쉼터(소공원) 조성) ◦ 숲길 조성 관리 ◦ 명상숲, 생활환경 숲 조성 <p><도시개발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군 계획시설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린면 현리 근린공원 조성사업 ◦ 북면 제1공원(어린이 공원)조성사업 ◦ 사화면 제1공원(어린이 공원) 조성사업 <p><안전건설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편리한 교통망 확충 및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린면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p><보건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산모, 영유아 지원사업으로 아이낳기 좋은 군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모지원사업(분만취약지 안전한 출산인프라 구축사업, 임산부 산후돌봄지원) ◦ 영유아지원사업 <p><농업정책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역량있는 선도인력 양성 및 농업,농촌 가치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업인 편의장비지원 시범

라. 양구군

<표VI-8> 양구군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위한 「결혼·임신·출산·육아」분야별 사업 추진계획의 여성친화마을조성 관련사업

추진계획 및 과제	
<p>1. 결혼·임신·출산장려 및 사회시스템 구축(보건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9.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1-10. 임신부 건강관리 1-11. 임신부 철분제 지원 1-13. 산후 건강관리지원 1-1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1-15.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의료비 지원 1-17.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사업 1-18.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1-19.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p>2. 맞춤형 양육 지원 및 돌봄 지원체계 강화(주민생활지원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 아동학습센터 조성·운영 2-5. 어린이 한마음 페스티벌 2-7.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 	<p>3. 여성 사회참여 및 교육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3-1. 여성강좌 운영 (주민생활지원실) 3-2. 여성 한마음축제 지원 (주민생활지원실) 3-3. 여성 농업인센터 운영 (농업정책과) 3-4. 농가도우미 (농업정책과) 3-6. 여성어업인 단체작업물품 지원 3-7. 여성농업인 농기계이용 교육 및 견학 (농업지원과) <p>4. 지방의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추진기반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4-3. 여직원 휴게실 운영 (자치행정과) 4-8. 육아휴직 대체인력 확보 (자치행정과) 4-9. 유연근무제 운영 (자치행정과) 4-16. 인문학이 익는 마을 조성사업 (어린이도서관 설립) (문화체육과) 4-17. 양구 박수근 미술체험마을 조성사업 (어린이 미술관) (문화체육과) <p>5.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 제고(주민생활지원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5-2. 결혼이민자 활용 제2외국어교육 강사료 지원 5-4.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한마음 대회

<표VI-9> 양구군 2018년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여성친화마을조성 연계가능 사업

2018년 주요업무 시행계획	
<p><기획감사실></p> <p>2019년 국비확보 대상사업 中</p> <p>6.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사업(공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 아이낳기 좋은 세상 프로젝트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임신·출산에 관련된 교육) - “좋은 부모, 행복한 가족” 부모교육이 찾아갑니다 <p>7. 저출산 극복 공모사업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 지역아동과 주민들을 위한 장난 	<p><생태산림과></p> <p>2018년 시정연설 역점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구자연생태공원 육성을 위한 중·단기계획 수립 ○ 생태숲길(소양강 생태수변 둘레길)조성사업 ○ DMZ생태아카데미 확대 발전 <p>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로호 수변 힐링 산림공원 조성사업(○ 레포츠 녹색쌈지숲 조성사업 ○ 명상숲(학교숲) 조성사업

2018년 주요업무 시행계획	
<p>감 대여소 설치</p> <p>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p> <p>4. 양구상징 디자인 LED가로(보안)등 조성사업</p> <p><주민생활지원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장애인·여성에 대한 일자리 확대, 취미 활동 강화, 자기개발 프로그램 확대 (*2018 시정연설 사업계획) ○ 양구여성 아카데미 『여성시대』 운영 ○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를 통한 양성평등 도모 ○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 육성 ○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p><자치행정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구군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2018 새로운 시책) ○ 지역치안유지 및 범죄피해자 지원 <p><문화체육과></p> <p>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수근미술체험마을 조성 사업 ○ 인문학 익는 마을 조성사업 ○ 양구역사테마길조성사업 ○ 작은 영화관“정중앙시네마”위탁 운영 ○ 글로벌 교육을 통한 박수근미술관 활성화 ○ 비봉전망대 및 열린문화쉼터 문화공간 활용 ○ 문화가 있는 날 시설 운영 ○ 해안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p>2019년 국비확보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곡천 녹색쌈지숲 조성사업 ○ 농공단지 폐도로 녹색쌈지숲 조성사업 ○ 명상숲(방산중) 조성사업 ○ 친환경농공단지 생활환경숲 조성 ○ 자연생태공원 치유의 숲 조성사업 <p><도시개발과></p> <p>2018년 시정연설 역점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지·주차장 조성사업 <p>2018년 신규 시책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 없는 거리 경관 조명 개선 ○ 태양광 LED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사업 <p><농업정책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p><보건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산후조리원 신축 ○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운영 ○ 분만취약지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사업 ○ 출산을 제고를 위한 임신·출산 지원

마. 고성군

<표VI-10> 고성군 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및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여성친화마을조성 연계가능 사업

<p><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p> <p>2018년 주요 시행계획</p> <p><input type="checkbox"/>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서비스 기반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단절 여성 직업교육지원프로그램으로 실무능력과 직장체험기간을 지원하여 장기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함
---	---

<p>□ 가족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 정부-가족-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돌봄 지원 강화 □ 남성과 여성, 기업이 함께 하는 알가정 양립 실천</p> <p><「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2018년 시행계획 1. 다문화가족 장기 정착 지원 (1-3. 안정된 가족생활 지원) 2.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 (2-1. 자립역량 강화/ 2-2. 취·창업 지원 서비스 내실화/ 2-3. 사회참여 확대) 3.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 (3-2. 학업 및 글로벌 역량 강화) 4.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지역환경 조성 및 참여교류 프로그램 활성화)</p> <p><2018년 고성군 일자리대책 세부계획> 개선계획 ○ 청년졸업자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농공단지 에 기업 유치 활성화, 기업경영 방식 개선(파트타임 등), 찾아가는 구인·구직 일자리지원센터 운영</p>	<p>○ 수익과 연계 가능한 노인일자리사업 발굴 추진 ○ 지역적 특성에 걸맞는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의 지속 발굴·육성·지원하여 취약계층 생활 개선 ○ 취·창업지원 시책 발굴 ○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p> <p>부문별 사업계획 1. 공공부문 2) 직업능력개발훈련 ○ 여성 농업인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으로 전문여성 농업인 육성</p> <p><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최희영님 고성군 or 중앙계획?) 2018년 시행계획 1. 비전 꿈꾸는 아이가 행복한 고성 - 출산,보육이 걱정 없는 돌봄 환경 조성 - 안심하며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 - 건강하고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p>
---	---

<표VI-11> 고성군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여성친화마을조성 연계가능 사업

비전	2018 추진방향	부문별 과제	시행계획
출산,보육이 걱정 없는 돌봄 환경 조성	보육 걱정이 없는 돌봄 환경 조성	출산,보육이 걱정 없는 돌봄 환경 조성	- 어린이집 행사 참여지원 - 어린이집 운영 지원 - 고성군 어린이날 대축제 행사 지원 - 청소년 수련관 진로 직업 체험 프로그램
안심하며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			
건강하고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건강하고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건강하고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결식아동 지급 지원
	돌봄기관 협의체계 활성화 등을 통한 돌봄 사각지대 방지	안전취약부분으로부터 미래세대 보호	- 법무부 법사랑 위원 운영지원 - 청소년육성 및 복지 지원
	차별 없는 환경에서 올바르게 성장	차별 없는 환경에서 올바르게 성장	

<표VI-12> 고성군 2018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의 여성친화마을조성 연계가능 사업

계획	사업명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참여 확대	- 청소년참여위원회 - 청소년운영위원회 - 청소년동아리 운영
청소년들을 위한 놀이·여가 유형 다양화 및 공간 제공	청소년수련관 CCTV 설치
청소년수련시설을 활용한 진로교육 강화	학교연계 진로직업체험 및 진로특강
다문화 청소년 한국어 교육 및 학습 지원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청소년 한부모 지원강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나홀로 청소년 활동·돌봄 지원 강화	방과후돌봄교실
취약계층 돌봄공백 해소 지원 강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내실화 및 공공성 강화 추진	지역아동센터 지원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지원 강화	청소년 유해환경개설활동

<표VI-13> 고성군 보육발전 5개년계획의 여성친화마을조성 연계가능 사업

<p><고성군 보육발전 5개년계획> 정책과제 정책과제 1: 지역기반 보육 공공성 확대 및 질적 향상 정책과제 2: 수요자 맞춤형 보육·양육지원 정책과제 3: 양육·보육비용의 부담 완화와 격차 해소 정책과제 4: 보육교사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 정책과제 5: 안심보육환경조성 정책과제 6: 보육 전달체계 정비 및 협력체계 강화</p> <p><203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비전: 평화통일을 선도하는 미래 자립도시 고성 실천목표 및 추진과제 ○ 지역특색을 살린 주거환경 개선</p>	<p>5. 문화 및 관광 부문 - 지역 문화,체육 역량 강화 (마을 작은도서관 활성화, 작은 영화관 조성)</p> <p>6. 재난 및 환경관리 - 지역주민 생활안전 환경조성(기후변화 폭설적응형 안심마을 조성사업)</p> <p>7. 통일기반 구축 부문 - 통일고성 기반 구축 (강원도 평화마을 조성)</p> <p><2018 주요업무 계획> Part2: 스마트한 휴양레저 관광도시 조성 3. 함께 누리는 문화,예술, 축제 - 행복고성 문화복합센터 준공(작은 영화관, 유아놀이방, 쉼터 등) part4: 더불어 함께 나누는 맞춤형 희망복지 구현</p>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및 지역 산업 특성화 ○ 공공교통 이용체계 구축 ○ 수요자 중심의 보건 및 복지 서비스 체계 구축 ○ 지역 문화 및 관광 자원을 활용한 글로벌 경쟁력 향상 ○ 안전한 생활환경과 선도적 환경관리 ○ 평화통일의 거점도시 <p>부문별 발전전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활 및 주거환경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적인 여성친화 사업 구상 없음. 2. 산업 및 지역경제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적인 여성친화 사업 구상 없음. 3. 도로 및 교통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적인 여성친화 사업 구상 없음. 4. 보건 및 사회복지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의료 서비스 개선 (응급의료 시스템 확충) - 선택적 사회복지 중심의 서비스 강화 (미래지향적 군인 생활 및 복지시설 확충)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일,가정 양립지원을 통한 건강사회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회관 아카데미 운영 - 강원여성대학 운영 - 여성단체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지원 -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아이돌봄 운영)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4.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 의료서비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임기 여성 임신전 검사 및 초음파 검사 등 <p>part5: 쾌적하고 살기좋은, 편안한 정주여건 조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활 밀접 교통망 확충 및 재난,재해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	---

2. 중앙부처 사업

- 여성친화도시 사업은 예산지원 기반이 매우 약한 사업임. 하지만 최근 도시재생사업 등 연계 가능한 사업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도시재생사업 중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분류된 사업도 있음.
- 이러한 중앙부처의 사업들의 예산을 지원받아 수행하게 되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기초지자체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
- 이에 이 장에서는 중앙 부처 사업들 중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과 연계 가능한 사업으로서 예산지원이 있는 사업들을 정리하여 제시함.
- 기초지자체에서는 이들 사업을 받기 위하여 여성정책 부서와 지역개발 및 도시재생 등 관련부서와 협업이 필요함.

가. 통합적 연계로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목표 중 하나의 목표와의 연계가 아니라 사업 전반에 걸쳐 통합적인 연계가 가능한 사업임.
- 주관 부처: 국토교통부
- 기초 지자체의 도시재생 관련업무 부서와 연계추진

□ 법적(제도적) 근거

- 100대 국정과제 중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 지원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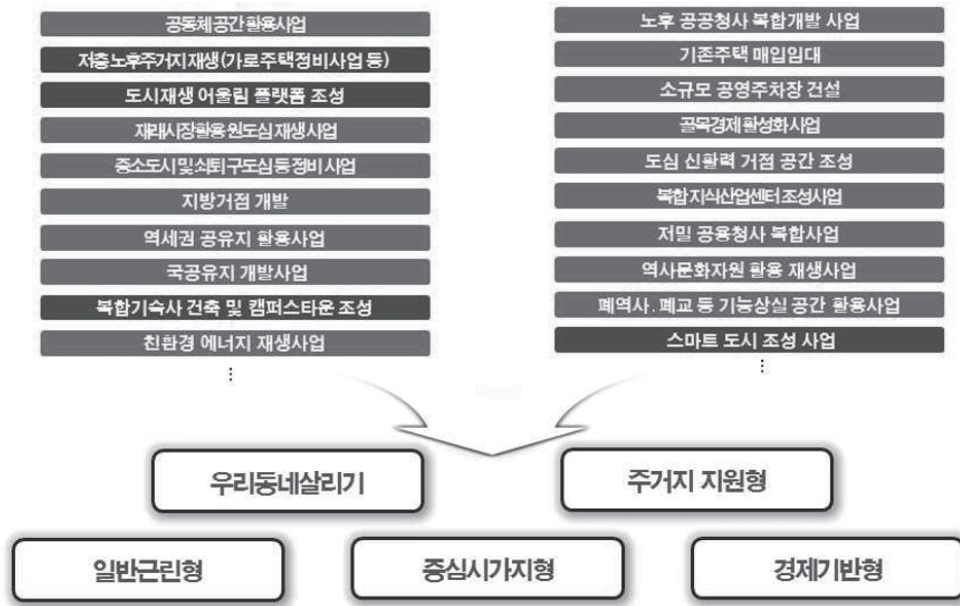
- (정책 방향)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대규모 철거 및 정비방식이 아니라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사업을 이끌어냄으로써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 으로 추진할 계획.
- 선정시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지역별로 “특색 있는 사업” *을 발굴하여 차별화된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국정과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유도.
* (예시) 역사·문화 복원, 차별화된 경관·건축,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임대상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업, 찾아가는 복지, 소형주택 에너지성능 강화, 청년 창업 등
- (사업규모 및 선정방식) 2017년 부동산 시장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부터 지역별 시범사업 수준의 신규사업 70곳 내외를 선정, 지역이 주도하여 성공사례를 만들도록 유도.

□ 성격

- (사업모델 및 사업유형) 정부가 57개의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메뉴 (예시) 형태로 제공, 주민과 지자체는 다양한 사업메뉴를 참고 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 *을 수립.

* 지자체의 사업계획은 사업의 성격과 규모 등에 따라 5가지로 분류: ①우리동네 살리기(소규모 주거), ②주거지원형(주거), ③일반근린형(준주거), ④ 중심시가지형(상업), ⑤ 경제기반형(산업)

- 57개의 메뉴에는 공공시설 복합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청년창업 지원 뉴딜사업,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스마트도시 기술 적용 뉴딜사업 등 주거복지 실현, 사회통합, 도시경쟁력 회복, 일자리 창출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모델이 포함.



[그림VI-1] 다양한 사업모델(예시)과 다섯 가지 뉴딜사업 유형

* 유형별 구체적 사업모델은 지역상황·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 가능

□ 예산 규모

- 향후 5년간 연평균 재정 2조 원, 기금 4조 9천억 원의 공적 재원 및 연간 3조 원 이상 공기업 투자를 유도하여 재생지역에 집중 투자할 계획
- 재생이 필요한 낙후 지역일수록 지방재정이 열악한 현실을 감안하여 국비 지원 비율을 확대*

* 국고보조율: (기존) 50% → (변경) 광역 특별자치시 50%, 기타 지방 60%

시기 및 절차

- (2017년) 10월말에 사업계획서를 접수(10.23.~10.25.), 평가(11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최종 선정(12월)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 예시

- 『여성친화형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추진 (아산시)

나. 여성친화도시 조성목표별 사업 연계

- 정부 부처의 사업들 중 여성친화도시 조성목표와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의 살펴 보고, 예산지원, 사업내용 등 사업연계에 필요한 기초정보들을 정리함.

1)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확대

(1) 마을기업 육성사업

- 주관 부처: 행정안전부

법적(제도적) 근거

- (추진근거)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11년~)

지원자격

- (지원대상)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한 법인

성격

- 경상보조 (국비 보조율 50%)
- (절차) 시·군·구(심의-신청) ⇒ 시·도(심의-추천) ⇒ 행안부(심의-최종선정)
- (운영방식) 민간경상보조로 주민 주도적 직접 사업 후 시군구 정산

□ 예산 규모

- (사업규모) '18년 국비 71억(국비:지방비 = 50:50),
- (재정지원) 3년간 1억원 지원(1차: 5천, 2차: 3천, 3차: 2천 / 국비50%)
※ (국비) '11년 124억, '12년 100억, '13년 175억, '14년 100억, '15년 90억, '16년 89억, '17년 80억

□ 시기 및 절차

- (공모시기)
시도공고(10월) 시군구접수·검토(11월), 시도심의(1월), 행안부심의(2월)

(2)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 주관 부처: 고용노동부

□ 법적(제도적) 근거

- 고용보험법 제34조 : “고용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단체가 그 지역에서 고용안정·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원자격

- (일반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와 고용관련 비영리기관이 컨소시엄으로 일자리 사업 기획시 지원(훈련, 취업지원, 창업·창직 등 소규모 일자리사업)
- (지역혁신프로젝트)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산업·교육·복 지정책 등 대규모 자원을 연계·활용한 종합 일자리사업 지원(연 50억 한도, 최대 3년간 지원)

□ 성격

- 시설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 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사업을 발굴·추진하면 고용부가 지원

□ 예산 규모

- '06년 100억 → '13년 532억 → '14년 803억 → '16년 1,300억 (당초: 989억, 기금계획변경: 311억) → '17년 1,313억
- * 자치단체 참여확대를 위해 민간경상보조를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전환('11년)
- '18년 예산 1,144억 (국비보조율: 60~90%)

□ 여성친화도시 연계가능 사업 예시

- 여성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대구 달서구)
- 수성여성클럽 (대구 수성구)
- 농촌 여성 일자리 창출 (전북 익산시)

(3)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

- 주관 부처: 고용노동부

□ 성격

- 창업지원
- (사업방식) 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진 위탁 기관*을 선정, 이를 통해 사업 추진 초기의 상시적인 경영·창업 자문 등 전문적 인큐베이팅 서비스 제공
- * '17년 21개, '18년 27개 창업 전문기관(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인큐베이팅 서비스 제공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공간, 창업비용, 창업 관련 교육 및 멘토링, 자원연계 및 후속지원 등
- ('18년 계획) 청년 사회적기업 육성 확대 계획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18년 550팀에게 맞춤형 창업인큐베이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술·해외진출·도시재생 등 특화기관을 확대

□ 예산 규모

- ('18년 예산) 208억

* 창업팀별 특성에 따라 차등지원(팀당 1천만원~5천만원)

□ 여성친화도시 연계가능 사업 예시

- 여성의 사회적경제 모델 발굴·확대 (서울 도봉구)

(4)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주관 부처: 고용노동부

□ 법적(제도적) 근거

- (사업 목적)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중앙부처 중심으로 소관분야에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
- '12년부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제 도입

□ 지원자격

- 9개 부처 321개소 지정 운영 ('18.2월 기준)

부처명	지정현황(개소)	사업내용
교육부	0	방과후 학교, 언어치료
농림축산식품부	3	농촌체험, 친환경 농산물 판매 등
환경부	14	재활용, 폐기물 수집 등
보건복지부	13	심리상담, 주거환경 개선 등
여성가족부	18	다문화 교육, 검소한 혼례 등
문화재청	8	전통문화 체험, 문화재 경성컨설팅 등
산림청	42	숲 조성 관리, 산림 휴양
통일부	9	의류 제조, 예술 공연 등
고용부	214	사회적경제 역량교육 등
총계	321	

* 국토교통부 신규 지정 예정 ('18.5월)

□ 성격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 신청서 접수 및 현장 실사 → 심사위원회 심사·지정 → 예비사회적기업 관리·지원
- * 부처별로 연중 1~2회 공모 및 심사

□ 예산 규모

- 예산 1억 (국비보조율 100%)

□ 시기 및 절차

- 신청접수(2.28 ~ 4.6)→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4.27) → 지정심사 (~ 5.4)→지정공고(5월중)

2) 지역 사회 안전 증진

(1)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

- 주관 부처: 행정안전부

□ 법적(제도적) 근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 성격

- 시설설치
- 시도별 공모사업 선정지역에 사업비 보조(행정안전부) * 국비(50%), 지방비(50%)

□ 예산규모

- 18년 정부 예산 43억원
- 국비보조율 50%
- (2018년 선정규모) 8개소 내외(개소당 5~6억원)

□ 시기 및 절차

- (추진절차)
공모계획 통보(6월) → 제안서 접수(7월) → 평가(8~9월/ 1차 서면, 2차 현장, 3차 발표평가) → 선정(9월말)

□ 여성친화도시 연계가능 사업 예시

- 노란별길 (경기 시흥시)
 - 통학로 개선 사업 및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 (안전거리 조성사업) 공원과 연계된 도로를 공원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민공간으로 조성

(2)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법사랑타운사업)

- 주관 부처: 법무부

□ 지원자격

- (현황조사) 범죄유형별(강력범죄 발생지역, 성폭력범죄 발생지역, 기초 질서 위반 지역 등), 지역특성별(공·폐가 등 재개발 지역, 유흥가 밀집지역, 구도심 지역, 환경개선 시급지 등) 범죄유형에 따른 조사·평가
- (우선정비구역)
 - 범죄에 대한 안전체감도가 낮은 지역, 범죄빈발 지역으로 범죄불 안감이 고조되는 등 셉테드 필요성이 시급한 지역 - 지역별 특성에 따라 사업 적합성을 고려하여 셉테드 사업으로 범죄에 방이 가능한 지역

- (사업대상지 검토) 사업이 실시될 지역의 주민자치단체의 사업의 이해 및 관심도를 통해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결정하도록 지원

□ 성격

- 프로그램 운영 및 법령 등 제도 개선
- 범죄예방 컨설팅 - 범죄예방 기초 환경설계, 범죄예방 계획 수립 등
-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 기초법질서교육, 각종자치 활동 프로그램 지원 등
- 범죄예방 기본법 제정 추진

□ 예산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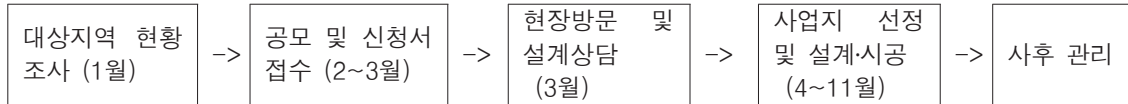
- (지원예산) 법무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 진행

구분	사업비(1곳 기준)	지원내용
물리적 환경개선 사업	2억 6천만원 (법무부, 지자체)	- 공·폐가 가림막 설치, 골목길 정비, 통학로 개선, CCTV 설치, 가로등 설치 등 - 기초 설계를 반영한 지역별 맞춤형 셉테드 사업
범죄예방 컨설팅	5,400만원 (법무부)	- 지역 현황분석 및 기초 설계안 작성, 성과분석 - 지역별 중장기 범죄예방 대책(안) 수립 등
주민역량 강화교육	3,000만원 (법무부)	- 주민 역량강화 교육, 법교육 등 실시 - 주민 커뮤니티 조성을 위한 교육 계획 수립
법교육 프로그램	1,000만원 (법무부)	- 솔로몬로파크 견학, 찾아가는 로파크 수업, 법교육 출장 강연, 마을번호사를 통한 법률상담 등

□ 시기 및 절차

- ‘14년부터 ’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 추진
- ‘17년부터 기존의 셉테드의 단점을 보완하고 주민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한국형 2세대 셉테드’ 법사랑타운 사업 추진
- (‘18년 사업계획) - 국토교통부(도시재생사업), 행안안전부(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와 협업하여 사업지(10개)를 선정중이며, 지자체·준법지원센터 공모를 통하여 ‘법사랑타운’ 사업지 3곳을 선정 및 사업추진

○ (공모절차)



□ 여성친화도시 연계가능 사업 예시

- 우리 동네 한바퀴 지킴이단 (경남 창원시)

3) 가족친화 환경 조성

(1) 어울림 마을 조성

- 주관 부처: 해양수산부

□ 법적(제도적) 근거

- 어촌지역 생활문화와 귀어 귀촌 수요를 고려하여, 기존 주민과 귀어 귀촌인이 함께 어울려 사는 활력 있는 어촌마을 조성
 - * [국정과제 84-3] 어업 경영개선과 어촌 활력제고
 - 어촌 활력제고 및 인구증대를 위한 명품어촌테마마을 **漁울림 마을** 조성 방안 ('17.12)

□ 지원자격

- (지원대상) 최근 3년간 귀어 귀촌인 5가구 이상인 어촌마을

□ 성격

- 시설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 (사업규모) 매년 5개소씩 선정 지원하여, 25년까지 **漁울림 마을** 20개소 조성 추진
 - 동 서 남해 권역별 지역민과 귀어 귀촌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득형, 은퇴형, 휴양형, 복합형 등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기반시설 지원

- (기반시설 지원) 도로, 상 하수도, 오폐수 처리장 등 생활기반시설과 커뮤니티센터, 영유아보육시설 등 의료 문화 교육 복지시설 건립 지원

□ 예산 규모

- 매년 5개소씩 선정 지원(3년, 50억원 규모, 국비 70%, 지방비 30%)

□ 시기 및 절차

- (추진 계획)
 - 漁울림 마을 대상지역 수요조사('18上), 사업추진계획 수립(' 18下)
 - 청년·중년·은퇴귀어인 중심 및 복합형 漁울림 마을조성 추진('20~)

(2) 「다함께 돌봄」 사업

- 주관 부처: 보건복지부

□ 법적(제도적) 근거

- 보편적 돌봄 지원을 위해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등 사업 추진 기반 마련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정과제<ul style="list-style-type: none">- (48-3) 보육,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복지부)· 초등돌봄 공공인프라 확대 및 지자체 중심의 컨트롤타워 운영을 통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49-2) 온종일 돌봄교실을 초등 전학년으로 확대, 내실화 방안 병행추진(교육부)· 부처 간, 지자체-교육청 간 협력을 통해 학교 안팎 온종일돌봄체계 모델 개발·확산 |
|---|

□ 지원자격

- (대상자 기준) 소득수준 무관 6~12세 이하(초등학생 중심)의 아동 대상 돌봄서비스 및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필수
- (시설 확보)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 제공에 활용할 안전하고 접근성 높은 공간 확보

- (지역돌봄협의체 운영 또는 참여) 마을 단위 돌봄협의체(초등학교 포함) 운영 또는 참여로 지역 내 자원 공유·활용 활성화
 - '18년 다함께 돌봄사업 수행 지자체에서는 돌봄협의체 운영 또는 참여 계획 수립
- (재원확보) 인건비·설치비 국고지원에 따른 지방비 확보, 운영비 확보방안(예: 이용료 일부 자부담 등) 마련
- (그 외 고려사항) 향후 우수사례의 확산 등을 위해 조기에 사업 실적과 운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경우, 뉴딜사업 선정지자체가 다함께 돌봄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원

□ 성격

- 시설 설치 사업
- 중앙정부 표준모델 및 설치비, 인건비 예산 지원
- 지방정부 사업대상, 사업추진방식 결정, 민관 참여적으로 사업방향 설정 및 추진,
- (재원조달) 설치비와 인건비는 국비·지방비 매칭 지원, 운영비는 이용자 자부담 등 활용, 그 외 다양한 지역자원 연계·활용
 - 돌봄서비스 이용료는 월 10만원* 범위에서 자율적 결정
 - * 어린이집 방과후보육 이용료 기준
- (운영방식) 지자체 직영, 공동운영, 위탁운영 등 다양한 형태 가능
 - 지역복지재단 등 지자체 소속법인 등에 위탁, 사회적 협동조합 또는 마을주민 협의체(운영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공동운영 등

□ 예산 규모

- (사업규모) 2018년 17개소
- (지원내용) 개소당 최대 약 1억원(총사업비 기준, 국고보조율은 서울 30%, 지방 50%)
 - 설치비 50백만원, 인건비 49백만원 (최대)

□ 시기 및 절차

- (사업추진절차) 시·군·구 사업 신청 → 시·도(복지부) 사업계획서 검토, 현지 확인 → 지역별 사업대상기관 확정 → 국고보조 →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 지자체의 다양한 사업설계·운영방식에 대한 평가를 거쳐 '19년 전국 확산 추진

(3)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주관 부처: 보건복지부

□ 법적(제도적) 근거

- (국정과제 48-3) 미래 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 지원자격

- (목적) 취약지역(농어촌, 저소득층밀집지역),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등에 민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지원

□ 성격

- (사업추진절차) 시·군·구 수요 제출 → 시·도, 복지부 현지점검 → 지역별 대상 확정 → 국고보조 →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 (목표) '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보장 - 매년 최소 450개소(총 2,250개소)씩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추진방향) 관리동 어린이집 전환, 민간 장기임차 허용 등 확충방식 다양화 및 지원 단가 인상, 공공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등 제도 개선 병행

□ 예산 규모

- (2018년) 684억원 (450개소)

○ 신축

- 평균 단가 : 784백만원 * 최대 지원액 : 922백만원(검토) - 면적당 단가 : 1,397천원/㎡ - 지원 면적 : 561㎡(최대 660㎡)
- 개소수 : 102개소

○ 장기임차

- 평균 단가 : 210백만원 - 리모델링 1.1억+근저당 1억
- * 근저당설정 비용은 국공립 장기 임차 종료 후 회수
- 개소수 : 123개소

○ 공동주택리모델링

- 지원단가 : 110백만원
- 개소수 : 225개소

□ 시기 및 절차

○ (추진절차)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전년 8월) -> 사업 대상 선정을 위한 현지 점검(전년 9월) -> 정부예산 확정(전년 12월) ->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 (당해년도 1월)
-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4) 공동육아나눔터 등 돌봄사업

○ 주관 부처: 여성가족부

□ 법적(제도적) 근거

<아이돌봄지원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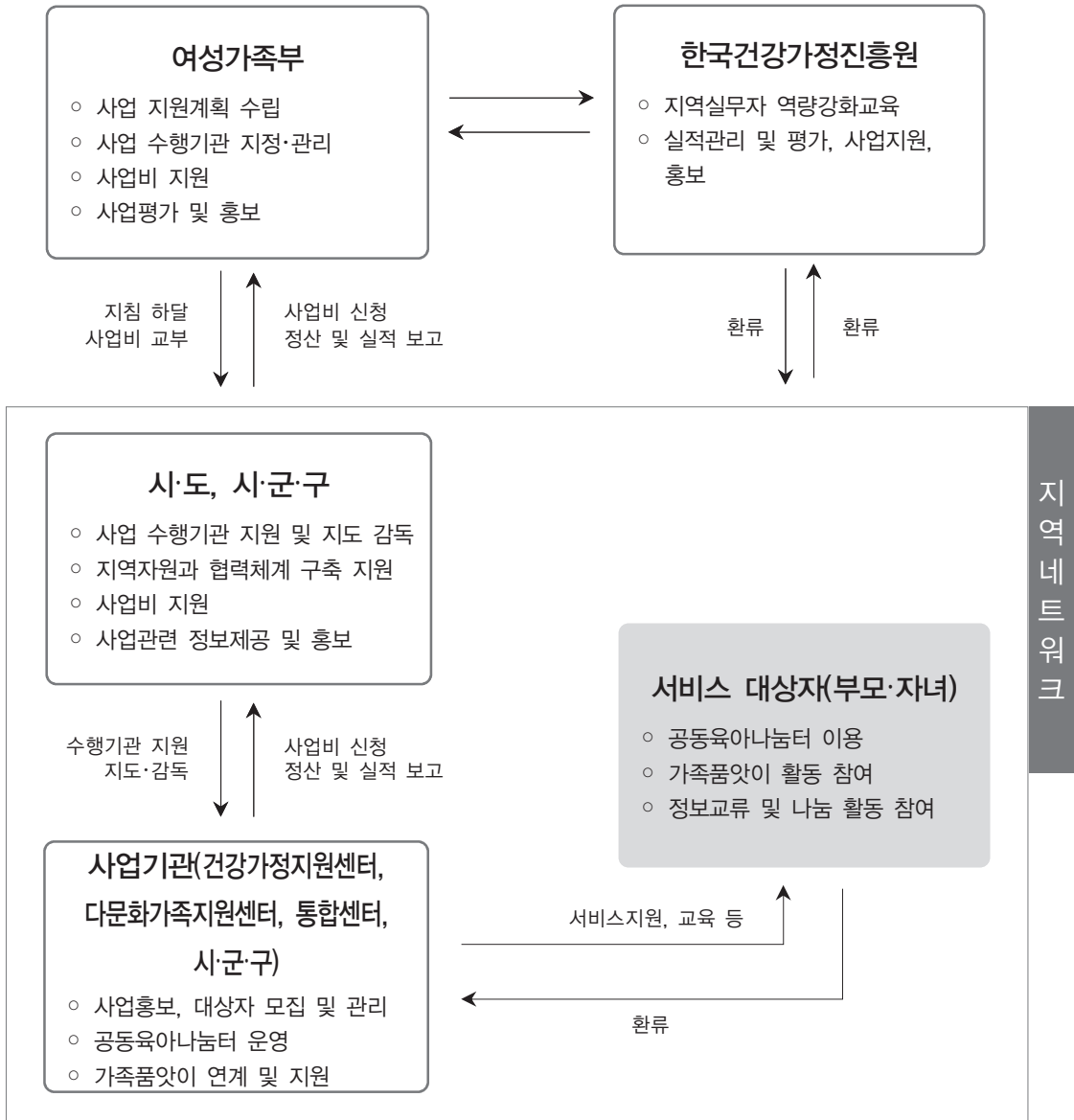
제19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지원자격

- (공급계획) 6세 이하 아동 수가 많고 돌봄시설 미수용 아동 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 설치('22년 3,600개, 일 234천명 이용가능)
- 사업 전달체계 및 지역주민,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공간 확보 및 설치를 통해 운영지역 확대
 -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작은도서관, 주민센터 등 공공·민간 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간 확보

□ 성격

- 시설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 (운영 체계)



[그림VI-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절차

□ 예산 규모

- 사업 규모: (' 17년) 91개 시군구 160개소
- 소요 자원: ' 18년 8,190백만원
 - (정부) 국비 2,956백만원, 지방비 1,564백만원
 - (민간) 기업기금 3,670백만원

- 현재는 시·군·구당 운영 개소 수에 상관없이 4천만원*지원하고 있으나 시설 개소당 지원과 리모델링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중
- 국비보조율: 서울 30%, 지방 70%

(단위: 천원)

구 분	내 역	금 액
인건비	· 공동육아나눔터 전담인력을 두어 사업추진 · 종사자 인건비(건강가정지원센터 호봉 적용) · 제수당,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포함	28,800 (예시)
운영비 (최대 12% 이내)	· 기관운영비 : 교육훈련비, 시설관리비, 복리후생비, 특근매식비 · 일반운영비 : 소모품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우편비 · 여비 : 국내출장여비 · 자산취득비 : 운영비의 10% 이내 - CCTV설치비(대여시 제세공과금에서 지출) · 공동육아나눔터 보험료(어린이시설상해보험, 화재보험)	4,800
사업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가족품앗이 활동 지원)	· 상시프로그램, 품앗이 전체모임, 소모임 등 운영 · 품앗이 신규교육 및 지역리더교육(강사료, 자료집 인쇄 등) · 자원봉사자 교통비 등 지급(1회 1만원 이내) · 공동육아나눔터 소식지 발행 등 홍보비 · 장난감 및 도서 구입	6,400 (예시)
합 계		40,000

□ 시기

- 2012년 이후 현재운영중이며 2022년까지 향후 추진 계획 있음.

(5)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 주관 부처: 교육부

□ 법적(제도적) 근거

-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사업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으로 지원되며 인건비(총액인건비에 포함)와 제주(제주특별법에 따라 보통교부금 총액의

1만분의 157로 산정)는 별도 지원

□ 성격

- 프로그램 운영
- 방과후 나홀로 방치되는 아동 청소년에 대해 단순 일시적 보호를 넘어 지속적 종합적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확대하여 아동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 지원

□ 예산 규모

- 8,359억원 (지방비 100%)

4)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1) 시민주도 공간활성화 프로젝트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 주관 부처: 행정안전부

□ 법적(제도적) 근거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사회 축소, 저성장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방치되어 있는 공간이 지속적 증가
 - 유휴공간의 방치는 자원낭비는 물론 우범화 등으로 지역쇠퇴의 원인

< 유휴공간 현황 >

(공공재산) 용도폐지 대상 행정재산 423필지, 미활용 일반재산 3.6만 필지, 형상불량 등 활용곤란 14.3만 필지, 미활용 폐교 408개교, 철도유휴부지 1,755만㎡ 등

(사유재산) 지역개발로 활력없는 원도심지, 미활용 옥상·지붕, 공사중단 건축물, 주민이주로 방치된 폐가 등 다수 존재

- (사업목적) 시민들의 참여와 활동을 통한 공간활성화의 우수사례 발굴 및 시민주도형 사회문제해결의 사회적 확산

□ 지원자격

- 대상공간: 비활용·저활용되고 있는 유휴공간 (국유재산, 공유재산 + 사유재산)으로서 공익을 위해 활성화가 필요한 공간임
 - * 공간에는 건물·시설·토지 등이 모두 포함
 - * 국유재산·공유재산 및 사유재산 모두 가능
 - * 분리된 다수의 공간을 연계하여 활용 가능
- 사업주체 : 창의적 아이디어와 사업수행 역량이 있는 단체
 - * 영리 비영리 불문이나 임의단체는 불가
 - * 지자체, 기업, 단체 등 공동입찰참가 가능

○ 중점사항

제안범위	제안자는 '시민참여를 통한 공간의 활성화'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공간조성과 활동전개로 구분하여 제안
대상선정	대상공간은 공간형태, 소유관계를 불문하고 활성이 필요한 상태이면 제안 가능 *국유재산·공유재산 외 사유재산도 가능
시민참여	대상공간의 발굴부터 사업의 기획·설계, 공간의 조성·활용 등 공간활성의 모든 과정을 시민이 주도하게 하고, 참여자의 자율을 보장함으로써 시민 역량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함
활동위주 ∨ 공간조성	단순한 공간조성에 그치지 않고 시민참여를 통해 유휴공간을 활용한 활동전개 위주의 사업 추진 *현행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은 공간조성 중점사업으로서 자본보조에 치중
지속·확산	계약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공간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의 지속성과 사회적 확산을 담보 *국가·지자체등 유관사업 연계, 예산 자부담율이 높은 사업 우선 선정 *유관사업 :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행안부 마을공방 육성사업 등

□ 성격

- 경쟁계약을 통한 용역계약 체결

□ 예산 규모

- 사업금액 : 금700,000천원
- 예산집행 : 공간조성비(35% 이하) + 시민활동비(65% 이상)
 - * 자산(부지·건물 매입비, 임대보증금, 사무집기 등) 취득시 재산권 국가 귀속
 - * 자부담금 등이 함께 집행될 시 동 사업예산은 소모성 경비에 우선 집행

□ 시기 및 절차

- (추진절차)
입찰공고(3월) → 제안서 접수(3월) → 평가(4월, 실사시행) → 선정(5월) → 시민 주도 유휴공간 활성화 추진(~12월)

(2) 공공 유휴공간 민간활용 지원 사업

- 주관 부처: 행정안전부

□ 법적(제도적) 근거

- (사업목적) 활용도가 낮은 공유재산의 민간 활용 지원을 통해 지역 사회문제해결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 증진 도모

□ 지원자격

- (사업내용) 지자체가 보유한 유휴·저활용 공유공간을 공간별 특성을 살려 공동체적 가치, 문화·예술적 가치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

□ 성격

- 시설설치
- (추진방식) 지자체 대상 사업공모 선정
- (지원방법) 자치단체 자본보조(국비 100%)

□ 예산 규모

- '18년 신규사업
- ('18년 계획) 국비 20억원 지원, 총 4개소 내외 추진(개소당 5억원 내외)

□ 시기 및 절차

- (추진절차)
공모계획 통보(4월) → 제안서 접수(5월) → 평가(5월/ 1차 서면심사, 2차 현장실사, 3차 발표평가)→ 선정(5월말)

□ 여성친화도시 연계가능 사업 예시

- 우먼 라이브러리 (부산 사상구)

(3)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 주관 부처: 행정안전부

□ 법적(제도적) 근거

- (사업목적) 자치단체 소유 토지·건물 거점 기반, 주민의 참여·협력 프로세스 구축으로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 국정과제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행안부)」 사회 혁신 기반 강화 및 생태계 조성

□ 지원자격

- 자치단체 소유 토지·건물 거점 기반
- (사업내용) ①혁신공간 조성 및 혁신문화 정착, ②입주형 혁신활동 지원, ③지역문제 생활실험 지원, ④사회혁신 저변확대, ⑤사회혁신 연구 및 아카이브

□ 성격

- (지원방법) 자치단체 경상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추진방식) 자치단체 대상 사업공모 선정

□ 예산 규모

- (선정규모) 2개소 내외(개소당 20억원 내외)

□ 시기 및 절차

- (추진절차)
공모계획 통보(2월) → 제안서 접수(3월) → 평가(4~5월/ 1차 서면, 2차 현장, 3차 발표평가) → 선정(5월 말)

□ 여성친화도시 연계가능 사업 예시

- 여성 문화공간 休 운영 (경기 수원시)

(4)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 주관 부처: 국토부

□ 법적(제도적) 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생활기반계정 세출)

□ 지원자격

- 도시재생 사업지 외 지역의 주민제안사업('18년 뉴딜 신청예정지 가능)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쇠퇴요건 충족 지역
** 도시재생 선도지역('14년)/ 2차지구('16년)/ 뉴딜시범지역('17년) 등 국비지원을 받은 지역 제외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가능)

※ 뉴딜 본 사업 제외지역 제외 : 부동산 시장 영향 우려로 ‘17년도에 본 사업 선정이 제외되고 있는 지역 제외(’18년도 본 사업 선정에 포함되는 경우 하반기부터 소규모 재생사업 가능)

- (제외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별표2*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제외 사업
 - * 국가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사무, 교육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보조사업 등
 - ** 초·중등학교 중식 지원, 민간개발소프트웨어 등
- (제안주체) 10인 이상 주민(조직)이 기초·광역지자체에 사업 제안
 - *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센터에서 사업제안 검토 및 사업 계획 구체화 지원 업무 수행
- (사업내용)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재생사업
 - * 지역 역량강화를 위한 일반적인 교육사업은 제외(도시재생대학 교육지원과 중복)하나, 당해사업을 위해 필요한 주민교육은 가능

< 소규모 재생사업에 포함 가능한 사업 예시 >

사업내용(예시)	지원금액
① 집수리 등 도시재생 경제조직 설립·운영	5천만원 ~ 2억원 (국비) (지자체 매칭비율 50%)
② 상생협약 협약서(안) 마련 및 협약 체결	
③ 빈집 리모델링 활용방안 및 조례안 마련, 시범사업 실시	
④ 골목길·간판 정비 및 담장 허물기(골목 주차면 확보 등)	
⑤ 공동체 활동거점 조성, 마을 공동서비스 제공·운영 등	
⑥ 마을 공방, 북카페, 도서관 등 주민참여·운영	
⑦ 안전지도 만들기 등 마을안전 관리	
⑧ 지역자산 조사 등을 포함한 재생계획 수립	
⑨ 마을공동체 행사 등 문화 프로그램 운영	
⑩ 주민 소식지 발간 등 기타	

□ 성격

- (지원내용) 주민이 제안하는 마을도서관 등 소규모 H/W 사업 및 주민소식지 발간 등 공동체 형성 S/W 사업 지원
- (지원기간) 사업별 1~2년

□ 예산 규모

- 국비 총 50억, 사업별 5천만원 ~ 2억원(지자체 별도매칭 50%)
- *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협의하여 분담 가능

□ 시기 및 절차

- 지자체 설명회 개최 : 4.27~5.4
 -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뉴딜사업 권역별 설명회’ 시 함께 설명·배포
- 소규모 재생사업 신청·접수 : 5.14~6.8
- 소규모 재생사업 평가·선정 : 6월말
 -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지원사업 선정
- (하반기) 추가 접수·선정 : ‘18.하반기
 - 상반기 소규모 재생사업 선정 이후 추가 접수·선정 추진
- 실적 점검 : ‘18.12
 - 집행실적 및 사업 추진성과 점검

□ 강원도 평화지역(접경지역)중 응모 자격 가능 지역

- (철원) 동송, 갈말, 김화, 문혜리, 자등리, 육단리
- (화천) 화천읍, 오음리, 산양리, 사창리
- (양구) 양구읍
- (인제) 인제읍, 남면, 북면, 기린면, 서화면

(5) 마을미술 프로젝트

- 주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 법적(제도적) 근거

- ‘마을미술프로젝트’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재)아름다운 맵이 주관하는 공공미술 사업으로 2009년 예술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예술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시작되어 2017년까지 전국 103곳의 마을이 변화하였음.

□ 지원자격

- 지자체와 작가팀 한 팀으로 응모

<지자체>

- 공모사업 1곳만 지원가능 (※복수응모 불가)
- 지역문화재단, 국·공립 미술관 등 관련기관 협력 가능
- 지방비 매칭예산 2018. 6. 29(2018년 경우)까지 확보 가능하거나 대상지로 확정된 이후에 최초 추경에서 예산확보가 가능한 곳
- 장소사용승인서(사업완료 이후 최소 3년, 작품 일몰제 반영) 및 주민 동의서 제출 필수

<작가(팀)>

- 공모사업 1곳만 지원가능 (※복수응모 불가)
- 팀 구성원 : 책임작가 1명 (필수), 행정담당 1명 (필수)외 전체 인원 제한없음
작가 자격요건 : 회화, 입체, 미학(미술분야 이론), 건축, 디자인, 영상미디어 등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자(팀)으로써 전업작가 중심
행정담당 자격요건 : e나라도움 경험자, 문화예술재단 근무 경력자, 회계부서 참여자 등 행정실무관련자 ※ 경력증명서 첨부 필수

- 사업 대상지 : 제한 없음 (※ 접수 및 선정 제외대상 참조)

- 마을미술프로젝트 기존 사업의 형식(주제)과 관계없이 자유로운 제안(예: 유희공간, 생태공간, 재생공간 등 마을미술 사업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로 사업의 파급도가 높은 곳)

□ 성격

- 2018년 마을미술프로젝트는 최대 3개년 조성사업인 공모1. 행복프로젝트 2곳과 단 년도 사업인 공모2. 자유제안 3곳으로 총 5곳을 조성하며, 행복프로젝트 2곳 중 1 곳은 2017년 당선된 대전이 2차년도 사업으로 진행됨.

- 공모사업으로 국비대비 지방비 매칭 1:1이상(필수)

공모1: 행복프로젝트

- 사업기간 : 최대 3개년 지원하는 사업
- 사업대상지 : 2곳 (※1곳 대전 2차년도 진행 확정)

공모2: 자유제안

- 사업기간 : 단년도 사업
- 사업대상지 : 3곳 (※기존 사업지도 응모 가능)

□ 예산 규모

- 공모사업예산 : 842백만원(국비) (사업대상지 : 5곳)

공모1: 행복프로젝트

- 440백만원 (※ 신규 : 1차년도-140백만원, 대전: 2차년도-300백만원)

공모2: 자유제안

- 402백만원 (※1곳당 134백만원)

□ 시기

- 사업 실행절차 :
프로젝트 공모(장소+작품 공모) → 심사 → 실행안 수립 → 작품 제작 → 만족도 조사 및 평가

(6)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 주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 지원자격

- (사업 선정 범위) 일반 주민조직 및 문화예술단체·기관·시설 대상 공모 (당해년도 상반기)

□ 성격

- 프로그램 운영
- 내 용 : 문화소외지역(임대아파트, 서민단독주택밀집지역, 농산어촌) 주민 대상 문화예술 활동을 매개로 한 공동체 형성* 지원을 위해 주민간담회비, 활동비 지원
* 마을 자원 조사, 주민 간담회, 동호회(음악, 미술, 공예 등), 마을미디어(신문, 팟캐 스트, 영화제작 등), 인문학교육, 마을축제

□ 예산 규모

- '18년 예산 : 1,300백만원
- 지원규모 : 예비지원(5백만원/20단체 내외), 신규지원(15~40백만원/15개 단체 내외), 연속지원(20~40백만원/10단체 내외), 지역협 력네트워크(15~25백만원/6개 단체 내외)

□ 시기 및 절차

- 사업기간 : '09년~계속
- (사업추진절차)
사업계획수립, 공모, 선정(1~3월), 선정대상자 교육 및 컨설팅(4월), 사업수행(5~11월), 사업평가(12월)

(7) 인문활동가 양성 · 파견

- 주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 법적(제도적) 근거

- (목적) 매개인력 양성을 통한 자생적 인문활동 촉진 및 인문분야 유휴인력 ‘징검다리 일자리’ 창출

□ 지원자격

- 인문활동가 및 활동처 선정을 위해 지자체 대상 공모 추진(20개)
- 인문활동가 사업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된 지자체라야 인문활동가 파견 지원 가능

□ 성격

- 프로그램 운영
- (내용) △양성과정 개발·운영, △지역 문화시설 등*에 인문활동가 파견, 인문활동 수행(활동기획·운영, 교육·강연) 등
- * 동아리 및 학습공동체, 도시재생공간, 특화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등

□ 예산 규모

- ('18년 소요예산) 2,923백만원(민간경상보조)

□ 시기 및 절차

- 사업 시작시기 : '17.9월~
- (주요일정) 지자체·활동가 공모·선정(4~5월), 교육·파견(6~12월)

(8)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 주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 법적(제도적) 근거

- 도서관법 제27조(공공도서관 설치 등) 및 도서관법시행령 제17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 작은도서관진흥법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5조 (지역문화·관광의육성및환경보전), 제16조 (성장촉진지역등의개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4조(농어촌 문화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지원자격

- (사업 선정 범위) 전국 지자체
- (지원항목) 자치단체자본보조의 성격에 적합한 작은도서관 조성 경비
 - * 지역 유희시설 및 기존 시설 대상 작은도서관 공간(서고 열람공간 모임공간 등) 조성 리모델링 공사비(기자재 포함) 및 적정 소요물자(자료, PC, 프린터 등) 경비
 - * 자료구입비는 총사업비의 30% 이내 배정

□ 성격

- 시설설치
-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공시설 유희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작은도서관으로 활용
-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도서관 문화 형성 및 지역의 문화·정보 향유권 증진
- (사업예산) 지역발전특별회계 / 자치단체자본보조

□ 예산 규모

- 1관당 50% 지원, 최대 70백만원까지 지원
- 농산어촌 또는 재정자립도 30% 미만 지역은 국고 70%까지 지원 가능

□ 시기 및 절차

- (사업주체)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 시·도에서 시·군·구의 운영계획·교부신청·정산 등 제반사항을 취합 하여 문체부로 제출
- (사업추진절차)
지자체 신청('17.03) → 문체부 적정성 검토('17.05) → 작은 도서관 조성(18.01~)

<부록 2> 초점집단 면접조사 설문

**「강원도 접경지역 여성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과제
실무자 및 전문가 초점집단 면접조사 설문**

- 여성친화(성주류화 또는 성평등 포함), 또는 저출산, 보육, 가족, 여성 관련 반구조화된 설문으로서 조사현장에서 상황에 맞게 응용됨.

<정책 요구>

1. 인구 및 사회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요구

- 인구 또는 주민의 사회적 특성
- 인구 또는 지역사회 특성상 지자체에 특별히 필요한 사업이나 프로그램 있는가? 무엇?
- 주택 환경 관련, 주택 부족이나 노후 문제?
- 지역 안전 문제(교통 및 범죄 등)
- 문화시설, 공원 등 여가시설은 충분한가? 불충분하다면 어디에 무엇 제안?
- 보육 및 청소년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 관련, 무엇 필요?
- 상업지구 존재? 특성은?(유흥지역?)
- 군인 거주지역 특성은 무엇?

2. 주민의 현안 관심사

- 접경지 불편사항 무엇?
- 접경지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은?
- 군부대 또는 군인과 주민(생활) 관계는 어떠한가?

3. 여성 관련

- 접경지 여성들의 불편사항 무엇? 접경지 여성생활 위해 시급한 것은?
- 키즈카페 등 아동양육자 정보교환 및 네트워킹 위한 공간이 있는지?
아동양육자들은 어디에서 모이는가?
- 기존 시설 이용해서 키즈카페나 주민쉼터 등 만들 수 있을지?
- 여성 및 아동 관련 사건이나 사고 자주 일어나는지? 언제 무엇?

- 대비책으로 무엇 필요? 군대가 미치는 영향 있나?
- 여성대상 폭력, 여성안전 문제 등 관련 상황은 어떠한가?
 - 지역 내 여성관련 문화 유산 및 유적지 있는지?
 - 성매매 집결지 있는지? 어디? 규모는?

<정책 환경>

1. 지자체 및 단체장의 관심

- 지자체의 역점시책이나 관련사업 있는가?(저출산, 보육, 가족, 여성 위한 타 시군과 다른 사업이나 프로그램 있는가?)
- 관련 교육이나 회의에 단체장 및 공무원 참여 정도
- 지자체 정책에서 관심은 어느 정도?
- 여성가족부서 인력상황(여성친화마을 조성업무 관련)

2. 의회의 관심(여성친화 또는 저출산, 보육, 가족, 여성 관련)

- 관련 정책이나 현상에 관심 있는 의원들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활동?
- 의회 질의에서 관련 관심 표명되는가?

3. 여성단체와의 관계

- 여성단체의 성인지 역량은 어느 정도인가?
- 여성단체의 활동력은 어느 정도인가? 젊은 세대 참여가 있는가?
- 여성친화 또는 성주류화에 대한 여성단체의 관심이나 활동이 있는가?
- 여성단체와 여성가족정책 주무부서의 관계는 어떠한가?

4. 여성친화도시 인적 자원

- 지역 내에 여성친화도시에 관심 있는 전문가(여성단체활동가, 연구자 및 대학교수)가 있는가?
- 시민참여단이나 협의체에 참여할 활동가들이 있는가?

연구보고서 2018-02

강원도 평화지역 여성친화마을 조성방안

2018년 9월 일 발행

발행인: 박기남

발행처: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주소/강원도 춘천시 외솔길 25(석사동)

전화/(033) 248-6300 (대)

팩스/(033) 248-6305 (대)

<http://gwfri.gwd.go.kr>

보고서 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착오가 발견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번호 72-6420607-000086-01

ISBN 979-11-87764-15-1